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877-01

2021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노인의 생애사를 통해서 본 인권상황 실태조사



Nation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노인의 생애사를 통해서 본 인권상황 실태조사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일반 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12.

연구수행기관 케이스탯컨설팅

연구책임자 송영호(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 이상일(케이스탯컨설팅 소장)

공동연구원 이미진(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안식(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정지연(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최영미(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조연구원 오혜인(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문

1. 연구의 목적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빈곤율도 43.2%(2019년 기준)로 가장 높음. 불확실한 노후로 인해 여전히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됨.
- 노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일자리는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지 않는 질 낮은 일자리로 여전히 빈곤과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노인들의 불안정성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립과 단절,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급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구술생애사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의 삶과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이 처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임.
- 특히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영역을 생활세계 전반으로 확장하여 노인들이 처한 ‘조건’(condition)으로서 일상적 삶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주목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일상화 영역은 경제적 불안정성, 사회적 관계의 불안정성, 건강보장 불안정성, 여가에서의 불안정성으로 구분하여 접근함.

2. 연구의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①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노인 관련 주요 이슈 및 현황 분석, ② 국내외 대응체계와 노인 인권보장 정책 사례 분석, ③ 노인 인권 실태조사, ④ 재난 상황에서 노인 인권보장 체계 구축방안 마련으로 구성됨.
- 실태조사를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면접과 생애구술사 방법을 혼용함.

3. 이론적 논의 및 해외 사례

1) 이론적 논의 및 주요 인권 실태

-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선행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역할 기능이 저하된 사람으로 개념 규정을 함.
- 이러한 노인의 특성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가이 스탠딩(Standing, 2017: 7)의 ‘프레카리아트’ 논의, 사회적 배제와 주변화, 누적적 계층화(cumulative stratification) 혹은 누적적 이익/불이익(cumulative advantage and disadvantage) 관련 이론을 기반으로 노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노인의 빈곤과 불안정성을 고정된 시점(정태적 결과)에서 드러난 현상보다 생애과정을 거쳐 누적된 불평등이 발현되는 과정(동태적 과정)으로서 프레카리아트화(化)¹⁾ 되어 가는 일상에 집중할 것임.

<표 1> 사회적 배제와 관련 개념의 비교

	정태적 결과 (static outcome)	동태적 과정 (dynamic process)
소득 차원 (income)	빈곤 (poverty)	빈곤화 (impoverishment)
다차원적 요인 (multi dimension)	박탈 (deprivation)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

자료: Berghman, J.(1995)

- 정부의 승인통계와 행정 데이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노인 인권 관련 실태는 다음과 같음. 특히 노인의 건강, 일자리, 사회적 관계에 관한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건강은 노인 1인당 의료비 지출은 매년 늘고 있는 형편임. 2020년 노인진료비는 37조 6,135억 원으로 2016년과 비교하면 1.5배 증가함. 1인당 진료비는 4,870천원으로 매년 상승 추세임.
 - 다음으로 일자리의 경우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2.9%로 2015년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임. 이는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이 증가했다는 측면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공존함.
 -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50%는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함. 하지만 노후 준비를 하는 비중은 남자가 60.9%이고 여자가 39.3%이고, 공적연금 수급률도 여자가 35.9%로 남자의 약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성차에 따른 노인 빈곤 수준의 차이가 큼.

1) 버틀러(Buttler, 2013)는 신자유적 세계질서에 따른 고용 불안, 노동 유연성 등 사회경제적 영역을 넘어 모든 인간이 공유한 보편적인 존재론적 조건으로 생존 가능성을 박탈당한 상태를 불안정성의 일상화(precaritization)로 개념화하고 있다.

- 사회적 관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3세 이상 인구 대비 낮은 수준. 특히 고령자 노인 3명 중 1명(33.4%)만이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함.

2) 노인 빈곤 경감을 위한 해외사례

- 노인 빈곤 경감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는 캐나다의 “기초연금(OAS)”, “최저보장연금(GIS)”, 뉴질랜드의 “기초연금(NZS), 퇴직연금(Kiwisaver)”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음.
 - 캐나다 기초연금(OAS)은 65세 모든 시민에게 정액급여를 지급을 원칙으로 노령보장법에 근거하며, 빈곤한 노인을 위한 탈빈곤 프로그램임. GIS는 여전히 소득이 낮은 빈곤 노인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지원 프로그램임.
 - 뉴질랜드 기초연금(NZS)은 보편적 성격의 정액연금으로 뉴질랜드에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시민이나 영주권자에게 지급, 노인빈곤 예방 및 완화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퇴직연금(Kiwisaver)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과 기초연금의 보완을 목적으로 뉴질랜드가 도입한 자발적 퇴직연금 성격임.
- 그리고 중고령자 일자리 정책으로 독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독일은 채용지원금과 추가고용지원, 점진적 퇴직제도, 이니셔티브 50+ 사업, Perspektive 50Plus를 통해 노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은 연방정부 차원의 유일한 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만성 실업상태에 놓인 저소득 고령 근로자에게 파트타임의 직업 기회를 제공함.
- 현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정부, 그리고 노인기관, 국가지원기관과 같은 수행기관 간의 유기적·체계적 협력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

4. 생애구술사 결과 분석

1) 심층면접 및 구술사 개요

- 연구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5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심층면접 참여자 중에서 생애구술사에 적합한 20명을 선택하여 추가로 면접을 1~2회 진행하고, 그 내용을 분석함.
 - 심층면접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북(전주시), 경북(대구시, 충남(부여/공주)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지역별,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할당하였고, 주로 노인종합복지관, 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하여 조사 참여자를 모집함.
- 심층면접과 생애구술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 대면 면접과 온라인, 전화를 활용한 방법을 혼용함. 구술자의 자택 또는 경로당, 카페에서 만나거나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인터뷰, 전화를 통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심층면접에서 노인들의 일반적 상황을 파악한 후 구술생애사에서는 유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생애 빈곤 경험과 불평등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함.

2) 구술사 주요 결과

- 구술사에 참여한 20명은 선행연구처럼 노인소득보장 취약, 일자리의 불안정성, 사회참여활동 제약, 의료정보 접근성 및 의료이용 제약, 돌봄이 부재, 질 낮은 주거 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짐에 따라 노년층 심리적 위축, 차별과 혐오에 따른 피해, 여가활동 제약, 사회적 관계망의 빈약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고독감을 경험함.
- 이는 연구참여자 어린 시절 경험한 전쟁, 가난, 학대 등이 불리한 경험이 청년, 중년까지 전이되고 노인의 취약성으로 누적된 결과가 드러나는 불리함의 연쇄가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어린 시절 '여자'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 부부 관계에서 남편으로부터 당한 '폭력과 폭행'으로 이혼까지 이르기도 하고, 이혼 이후 경제적 취약함으로 인해 기초수급을 받는 경우도 생김.
 - 즉 여성 노인은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사건의 충격, 생애전환기에서 급작스러운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로 사회적 관계도 그만큼 고립되고 위축되게 됨.

□ 경제적/일자리 취약성

- 심층면접과 생애구술사 참여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음. 다수는 기초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일자리 지원 사업 등과 같이 비정기적이고 허드렛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대부분임.

- 특히 생애구술사 참여자들의 경우 경제적 취약성이 생애 전반에서 드러남.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유년기 시절부터 노동에 시달림. 또한 IMF 이후, 계속되는 자영업 실패와 구조조정 등으로 중장년기의 경제적 어려움이 현재 노인의 생애까지 영향을 미침.
-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과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자신들이 자녀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야 하는 처지로 노쇠한 육체를 힘 없이 계속 일하면서 사는 처지에 놓이게 됨.

□ 건강의 취약성

- 생애구술사에 참여한 노인들은 건강 문제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 이는 경제적 취약성이 건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젊은 시절 교통사고 등 부정적 생애사적 사건을 경험한 노인들의 경우 이후의 삶에서도 일상적 삶에서도 신체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에서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됨.
- 손자녀 돌봄 등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의 경우 ‘아플 권리’마저 빼앗겨 본인들의 건강관리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함.
-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도 드러남. 한국전쟁을 겪은 노인들의 경우 전쟁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정서적 불안이 몸의 곳곳에 남아있지만 제대로 치료받은 적이 없음. 그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와 폭력, 배우자 폭력의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치과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사례들이 발견됨. 치아건강은 노년의 삶을 향유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에서 노인들의 치과진료는 ‘12개월 카드 할부’로 진행되거나 ‘자녀의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물리게 됨.

□ 사회적 관계 취약성

- 혼자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자녀들과도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 특징을 보임.
- 자신이 지닌 질병과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그만큼 사회적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 강화되고 고착화된 양상을 보임.
- 경제적 취약성은 사회적 관계 취약성으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스스로 고립상태를 유지하거나 합리화하기도 했음.
-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직장, 사업, 자영업이 그만두게 되면서, 주변화된 일자리를 뺏겨지고 장년과 노년기까지 주변화되고 고립된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을 드러내게 됨.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관계 취약성은 더욱 가중됨. 노인회관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회적 관계망이 해체되어 이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끼니’ 해결에도 영향을 미침. 하루 한 끼를 해결해야 할 ‘식사’를 나누는 즐거움이 없어짐.

□ 노인혐오와 차별

- 한국전쟁 전후에 출생한 노인들의 경우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여, 현재 한국에 대해 강한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함. 무상교통 등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시혜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인식은 대중공간에서 노인혐오와 차별이 발생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함.
-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인 노인에 대한 인식, 경제활동인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노인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비하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노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도 스스로 감내하고 심지어 동조하기도 함.

5. 정책 제언

- 생애구술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의 6가지 영역에 20가지 세부 정책과제를 제언함.
- 연령인지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노후 소득보장제도 개선, 건강보장 및 돌봄, 주거 환경 개선, 사회심리적 지원체계 제공 등에 관한 영역임.
- 제안된 정책은 단기-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지침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현이 가능한 사안은 단기 과제로, 그리고 국회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제언함

〈그림 1〉 정책 제언 사항

분야		세부 정책 제언
1	연령인지 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1-1 연령인지 감수성 제고 및 관련 교육 확대
		1-2 연령주의와 성차별적인 용어 사용 지양: '노년' 호명
		1-3 연령인지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의 결합
2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빈곤선 상향 조정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빈곤선 관련 기준 변경
		2-3 기초연금의 일부를 일종의 부가급여로 인정하는 방안: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의 해결
		2-4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자를 규정한 기초연금법 개정
		2-5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또는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 검토
		2-6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및 성인지적 관점 적용
3	노년층 건강 및 욕구를 고려한 고용노동정책 수립 및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	3-1 노년층 건강상태 및 욕구를 고려한 고용노동정책의 수립
		3-2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
4	건강보장 및 돌봄	4-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입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공공병원 역할 강화
		4-2 노인주치의 제도를 통한 일차의료체계 강화
		4-3 건강검진 항목의 추가: 정기적인 정신건강 스크리닝 등
		4-4 노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 건강보장 및 돌봄보장체계 구축
5	주거보장 및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5-1 주거빈곤에 기초한 급여 대상자 선정 및 주거급여액 상향 조정
		5-2 고령친화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다양한 주택 보급
6	노년층 심리적 지원과 여가, 교육, 문화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5-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
		5-2 노년기 여가, 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체계 구축

목 차

제1장 서론	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범위	6
3. 연구방법	9
제2장 국내외 환경변화와 노인의 인권 현황	13
1. 노인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13
2. 노인 인권 관련 주요 쟁점 사항	19
3. 노인의 빈곤, 주변화, 사회적 배제 현황	23
제3장 국내외 대응체계와 노인인권 보장정책	45
1. 국내 노인 관련 법령 및 정책	45
2. 노인 인권 관련 해외사례	58
제4장 생애구술사 결과 분석	71
1. 조사 개요	71
2. 구술생애사 사례별 분석 결과	78
1) 사례1-구술자M	78
2) 사례2-구술자N	91
3) 사례3-구술자O	101
4) 사례4-구술자P	108
5) 사례5-구술자A	117
6) 사례6-구술자B	128
7) 사례7-구술자E	137
8) 사례8-구술자F	143

9) 사례9-구술자G	150
10) 사례10-구술자H	155
11) 사례11-구술자I	163
12) 사례12-구술자J	174
13) 사례13-구술자K	182
14) 사례14-구술자L	187
15) 사례15-구술자Q	193
16) 사례16-구술자R	202
17) 사례17-구술자S	210
18) 사례18-구술자T	216
19) 사례19-구술자C	224
20) 사례20-구술자D	231
제5장 정책 제언	239
1. 연구 요약	239
2. 정책 제언	242
참고문헌	269

〈표 차례〉

〈표 1-1〉 노인 인권 실태조사 연구 및 조사 방법	10
〈표 2-1〉 노인의 개념 정의	13
〈표 2-2〉 사회적 배제와 관련 개념의 비교	16
〈표 2-3〉 65세 이상 인구 증가와 의료비 증가	26
〈표 2-4〉 고령자(65세 이상)의 직업별 ¹⁾ 취업자 분포	33
〈표 3-1〉 노인의 주거유형별 특징	57
〈표 3-2〉 노인 빈곤 경감 해외 사례	67
〈표 4-1〉 심층면접 질문지	73
〈표 4-2〉 심층면접(생애구술사) 참여자	74

〈그림 차례〉

〈그림 1-1〉 고령인구 및 고령자 1인 가구 현황	3
〈그림 1-2〉 노인빈곤율, 고용률, 실업률	4
〈그림 1-3〉 주요 연구내용	7
〈그림 2-1〉 기대여명(65세, 2018)	23
〈그림 2-2〉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기대여명(65세, 2018)	24
〈그림 2-3〉 고령자(65세 이상) 사망률	25
〈그림 2-4〉 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66세 이상, 2017)	27
〈그림 2-5〉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용률 및 실업률	27
〈그림 2-6〉 OECD 주요 국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17) ..	28
〈그림 2-7〉 고령자(65세 이상) 노후 준비율	29
〈그림 2-8〉 고령자(65세 이상) 노후 준비방법(주된응답, 2019)	29
〈그림 2-9〉 공적연금 수급률(65세 이상)	30
〈그림 2-10〉 성 및 연령별 공적연금 수급률(65세 이상, 2019)	31
〈그림 2-11〉 고령자(65세 이상)의 취업 현황	32

〈그림 2-12〉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건수	34
〈그림 2-13〉 자원봉사 참여율	35
〈그림 2-14〉 사회단체 유형별 참여 비중(2019)	35
〈그림 2-15〉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19)	36
〈그림 2-16〉 사회관계망	37
〈그림 2-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8
〈그림 2-18〉 삶에 대한 만족도	38
〈그림 2-19〉 연령대별 삶에 대한 만족도(2019, 65세 이상)	39
〈그림 2-20〉 학대피해 경험률(65세 이상)	40
〈그림 2-21〉 성 및 연령대별 학대피해 경험률(2019, 65세 이상)	41
〈그림 3-1〉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49
〈그림 3-2〉 노인건강보장사업의 구조	51
〈그림 3-3〉 노인건강보장사업의 구조	55
〈그림 5-1〉 정책 제언 사항	243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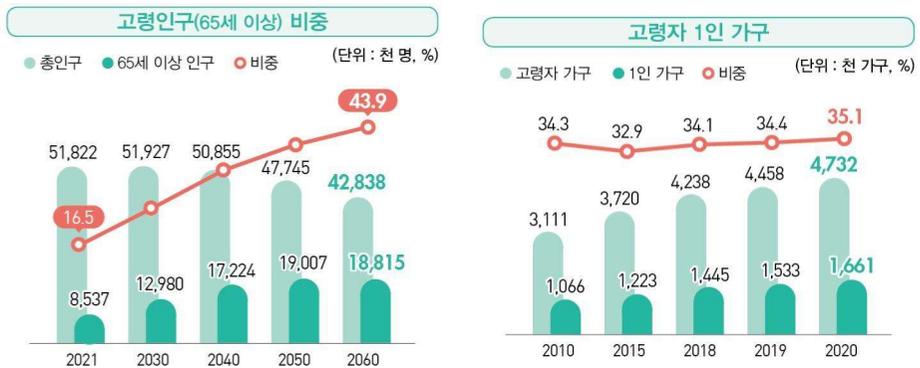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3. 연구 방법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고 함) 37개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는 OECD 평균(2.6%)보다 약 2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되었다(한국경제연구원, 2021). 통계청의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853만7,000명)로 2025년(20.3%)에 초고령사회¹⁾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홀로 사는 노인인 166만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고령자 가구 3가구 중 1가구(35.1%)가 혼자 살고 있다(통계청, 2021).

〈그림 1-1〉 고령인구 및 고령자 1인 가구 현황



자료: 통계청, 「2021 고령자 통계」

1) 유엔(UN)은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문제는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2%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통계청, 2021).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높은 경제활동참가율²⁾로 이어진다. 이는 불확실한 노후로 인해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2021년 고령자 통계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34.1%)과 실업률(3.6%) 모두가 2015년 이후로 점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1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55~79세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8.0%로 고령층의 절반 넘는 비율이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연령집단별로 구분해 보면 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9.6%, 65~79세는 43.6%이다. 고령층 노인 대다수(93.1%)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고, 장래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8.1%이다. 이 중 58.7%는 '생활비'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통계청, 2021).

〈그림 1-2〉 노인빈곤율, 고용률,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21 고령자통계」

2) 경제활동참가율(취업자+실업자/인구)은 전체 인구 가운데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인들의 일자리의 질은 녹록지 않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수입과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노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일자리는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지 않는 질 낮은 일자리로 여전히 빈곤과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즉 노인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청소·경비직 등 파견·용역 일자리가 대다수로 임금수준도 낮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지는 '생계형'이다. 이 때문에 노인들은 '잉여'와 '잔여적 노동자'로 취급받고 성별과 나이로 인한 노인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 일쑤이다.

최근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식당 주방보조, 청소, 건물 관리 등의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노인의 삶은 더욱 위축되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20년 파산을 신청한 60세 이상 노인이 2,715명이었다. 2017년 3월 법원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60세 이상 파산신청자는 2018년 2,058명, 2019년 2,373명, 지난해 2,715명으로 2년 만에 32%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60세 이상 노령 인구증가율인 11%의 세 배로 전체 파산신청자 증가율인 18%보다도 훨씬 높다(서울회생법원, 2021). 이는 일부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 이상이었던 액티브시니어들도 은퇴 후 창업을 했다가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노인의 빈곤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립과 단절,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급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생애과정을 중심으로 심층면접 분석을 통해 노인의 인권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노인들의 주변화(marginalized), 불안정성이 일상화(precaaritization)³⁾된 삶의 양상과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생애과정에서 노년층의 삶이 불

안정하게 되는 과정(precarization)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 분석, 심층면접과 생애사 분석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것이다. 특히 불안정성의 일상화 영역을 경제영역에서 생활세계로 확장하여 이들이 처한 ‘조건’(condition)으로서 일상적 삶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성, 건강보장 불안정성, 주거 불안정성, 사회적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①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노인 관련 주요 이슈 및 현황 분석, ② 국내외 대응체계와 노인 인권보장 정책 사례 분석, ③ 노인 인권 실태조사(심층면접, 생애구술사), ④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노인 인권보장 체계 구축방안 마련으로 구성된다.

3) 버틀러(Buttler, 2013)는 신자유적 세계질서에 따른 고용 불안, 노동 유연성 등 사회경제적 영역을 넘어 모든 인간이 공유한 보편적인 존재론적 조건으로 생존 가능성을 박탈당한 상태를 불안정성의 일상화(precaritization)로 개념화하고 있다.

〈그림 1-3〉 주요 연구내용

연구내용		세부내용	
1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노인 관련 주요 이슈 및 현황 분석	1	노인 빈곤, 노인의 사회적 배제, 노인의 주변화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2	노인 관련 실태조사 자료 수집·분석
		3	코로나19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노인 인권 관련 주요 이슈 및 현황 분석
2	국내외 대응체계와 노인 인권보장 정책 사례 분석	1	국내외 노인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사례 연구 -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노인 관련 주요 법령 및 정책(노후소득보장제도 등) 비판적 분석
		2	노후 빈곤을 경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3	노인 인권 실태조사 (심층면접, 구술사)	1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측면에서 노인의 권리 침해 실태
		2	구술생애사 분석 - 빈곤의 경로, 노인 빈곤의 사회구조적 요인 등 분석 - 노인의 주변화, 프레카리아트화 양상 분석
4	종합적 노인인권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제안	1	전문가 정책 자문
		2	사회구조적 제약 요인 상황에서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안

1)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노인 관련 주요 이슈 및 현황 분석

첫 번째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노인 관련 인권 현황과 관련 이슈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노인층의 사회적 배제, 빈곤화, 주변화, 프레카리트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노인이 처한 '조건'(condition)으로서 일상적 삶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관련 기관에서 출판한 보고서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행정 데이터 및 노인 관련 논의와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것이다. 이들 기초 자료를 통하여 노인 생활사 및 인권실태와 주요 상황을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국내외 대응체계와 노인 인권보장 정책 사례 분석

두 번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추진해 온 노인 관련 법령, 정책과 주요 제도의 현황과 성과 및 보완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 빈곤 경감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하여 독일, 등 노인 인권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제도의 우수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3) 노인 인권 실태조사(심층면접, 구술사)

세 번째, 노인, 특히 여성노인 구술생애사 분석을 통해 자본축적이 어려운 개인·가족 및 사회구조적인 요인 규명, 경제위기 등을 종합적인 분석할 것이다. 심층면접은 문헌 연구를 통해 파악한 노인의 일상생활 불안정성의 실태를 맥락적으로 파악하고,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 온 노인 인권 관련 대

정책의 효과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노인의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1차적으로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 중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사례 20명을 발굴하여 생애구술사를 진행할 것이다. 심층 면접 질문지는 핵심 의제별로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묻고,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데 그 초점을 둘 것이다. 특히, 여성의 빈곤화의 직접적 대상인 여성 노인, 돌봄 공백에 처할 가능성이 큰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 관련 사회복지 및 서비스의 격차가 큰 농촌지역의 노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돌봄 및 사회적 관계 및 참여의 격차와 불균형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4) 노인 인권보장 체계 구축방안

마지막으로 문헌 연구, 해외사례 분석, 집단별 심층 면접조사, 생애구술사 연구, 전문가 정책자문 등 다양한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인권보장 체계 구축방안 및 현행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심층면접, 생애사 분석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 연구는 노인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조사를 활용하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노인 관련 주요 이슈 및 현황과 국내외 대응체계와 노인 인권보장 정책 사례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심층면접 53명, 구술생애사 20명(심층면접자 중 선별)을 분석하고 노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특히 비대면 조사는 온라인 플랫폼인 줌(ZOOM),

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1〉 노인 인권 실태조사 연구 및 조사 방법

<p>문헌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통계자료 및 논문, 보고서 등 사전 검토 - 고령자통계, 경제활동인구연보 및 고령층부가조사 등 기존 통계자료 수집·분석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 검토 - 국제인권문헌(유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6호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및 유엔 「피해자권리 기본원칙」 등) 참조
<p>심층면접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50명 성별, 연령별, 지역별 및 경제활동시기 노동 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정
<p>구술생애사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20명(심층면접 대상자 중에서 선별) - 빈곤의 경로, 주변화, 사회적 배제, 누적적 불평등, 노인의 프레카리아트화 등 빈곤의 사회구조적 요인 등 분석
<p>정책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자 및 전문가 정책 간담회

제2장

국내외 환경변화와 노인의 인권 현황

1.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노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 및 쟁점
3. 노인의 빈곤, 주변화, 사회적 배제 현황

제2장 국내외 환경변화와 노인의 인권 현황

1. 노인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1) 노인의 개념

노인은 지역과 사회문화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될 수 있다. 노인은 대체로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라는 복합적인 특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김석중, 2015). 더 나아가 특정 시대의 사회문화, 정치, 경제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최해경, 2017). 즉 현대사회의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노인에 대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2-1〉 노인의 개념 정의

국제노년학회 (1951)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
Breen (1976)	생물학적, 생리적 측면에서 퇴화에 있으며 심리적 측면에서는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
최성재 (2003)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
서병숙·김수현 (2000)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며 이에 따라 특수한 성격을 갖는 사람으로, 사회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의 복합적인 역할에 의해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
권중돈 (2016)	노화의 과정 또는 그 결과로서 생물, 심리,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자립적 생활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
최혜지·이미진· 전용호·이민홍· 이은주 (2020)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쇠퇴와 상승, 발달을 경험하는 개인

국제노년학회(1951)에서는 노인을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최성재와 장인협(2010)은 노인을 노화의 복합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생리적·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심리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서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권중돈(2016)은 ‘노화의 과정 또는 그 결과로서 생물, 심리,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자립적 생활 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이렇듯 노인은 개인의 의지보다는 복합적인 환경에 의해서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최혜지 외(2020: 16)는 노년기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발달관점을 반영하여 노인을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쇠퇴와 상승, 발달을 경험하는 개인’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발달관점과 인권관점을 적용하여 노인복지를 ‘노년기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쇠퇴와 상승, 발달을 경험하는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기본적 권리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가치·지식·기술을 활용해서 개별·집단·지역사회조직 등을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노인 관련법에 명시된 연령 범주를 통해서도 노인의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60세부터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의 고령자는 55세 이상이며,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은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김귀환, 2017). 정부에서 생산되는 통계에서도 노인은 65세로 정의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추계에 의하면 인구는 크게 14세 이하까지는 유소년인구, 15~64세는 생산가능인구, 65세 이상을 고령인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는 국제 비교의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군의 학자들 논의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을 65세 이상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역할 기능이 저하된 사람으로 개념 규정을 하고자 한다.

2)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불안정성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문화적 함의와 차원에서 논의되는 매우 애매한 용어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는 다차원적인 표현이다(Silver, 1994; 최해지 2019: 7). 유럽 의회(European Commission)는 사회적 배제를 인간사회의 정상적인 교환, 관행,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피어슨(Pierson, 2001)도 사회적 배제가 단순히 빈곤의 보편적 개념을 넘어 개인, 가족, 집단 또는 이웃들로부터 사회·경제·정치적 활동 전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박탈당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 과정은 주로 빈곤에서 이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차별, 낮은 교육 수준,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 배제를 일련의 원인과 과정 모두를 포괄하는 역동적 개념으로 이해하거나(최재성, 2009), 박탈적 과정의 결과 또는 상태로 정의하기도 한다(윤진호 외, 2004).

실버(Silver, 1994)는 “시민권”의 개념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설명하였는데, 사회적 권리를 소유한 개인을 시민으로 간주하고 이들 시민의 사회적 권리에 노동 및 사회제도 참여, 일정 정도의 삶의 수준 보장받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버그만(Berghman, 1995)도 빈곤과 사회적 배제개념을 두 가지 차원(정태적 결과 vs. 동태적 과정, 소득 부족의 단일 차원 vs. 경제적 변수 이외에 다양한 차원)의 기준에 따라 관련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표 2-2> 참조).

〈표 2-2〉 사회적 배제와 관련 개념의 비교

	정태적 결과 (static outcome)	동태적 과정 (dynamic process)
소득 차원 (income)	빈곤 (poverty)	빈곤화 (impoverishment)
다차원적 요인 (multi dimension)	박탈 (deprivation)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

자료: Berghman, J.(1995)

즉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차원은 경제, 주거, 건강, 노동, 교육, 사회참여 등 한 차원의 배제가 다른 차원의 배제를 일으키는 원인이자 결과라는 이중적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는 빈곤 개념과 달리 동태적이며 다차원적 개념이다. 즉 사회적 권리의 부정이나 개인이 정치적, 도덕적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와 연결되는 고리가 매우 미약한 상태로 사회적 배제를 이해하기도 하며, 동태적 과정으로써 소득 측면에서 궁핍화를 거쳐 빈곤에 이르는 과정으로 그 결과를 박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Room, 1995). 이처럼 사회적 배제는 일종의 신빈곤, 신균열, 사회적 불평등의 새로운 현상을 조망하기 위한 개념으로 한국회도 외환위기 이후 출현한 신빈곤층, 근로빈곤층, 신용불량자, 자발적 고립자, 북한이탈주민 등 경제적 결핍만으로 포착하기 힘든 다양한 유형의 사회집단의 문제를 포착하기에 유용한 개념이다(Littlewood and Herkommer, 2000; 김안나 외, 2008; 최해지, 2019:11)

노인 빈곤도 사회적 배제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노인의 빈곤 문제가 특정 시점에서의 정태적 특성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현상으로 설명 가능하다(Rowntree, 1941; Leisering & Leibfried, 1999). 이러한 로운트리(Rowntree, 1994)의 견해는 현재의 생애과정 관점의 빈곤과 불평등 연구에서 일반화된다. 그리고 오랜드(O'Rand, 1995)는 코호트 내의 불평등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원인과 노년층 불평등에 대한 정부 개입이 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가를 누적적 계층화(cumulative stratification) 혹은 누적적 이익/불이익(cumulative advantage and disadvantage) 가설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다른 측면에서 노인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 우선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노동현장, 의료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폭력이나 무시, 불친절한 언행을 경험한다(김주현 외, 2020). 차별에 대한 인식은 노인들의 빈곤이나 건강 문제 등과 겹쳐지면 더 강화된다. 즉, 빈곤 노인이나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은 단순히 연령이 높거나 권위주의적이라는 인식을 넘어 복지수급자,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 비용을 지우는 존재로서의 낙인이 부여된다. 연령차별에 기반한 노인 혐오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심각한 경우 노인혐오를 넘어 종종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1인 독거 노인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일수록 범죄나 차별의 가능성이 크다(선한이, 조운오, 2020). 이는 노인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와 차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노인에 대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연령의 증가로 인해 노년기에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노인빈곤을 포함해 노년기에 경험하는 어려움은 노인집단의 생애에서 누적되어온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노년기 빈곤은 노년기 이전의 노동시장경험 혹은 그 이전인 유년기의 다차원적 배제로부터 초래한다(최희경, 2005; 안기덕, 2012). 즉, 노년기 빈곤과 사회적 차별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빈곤노인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유년기부터 원가족의

빈곤을 경험한다. 때로 이들은 부모님에 의해 양육받지 못하고 남의 집에 보내져 일하기도 한다(최경희, 2005: 158). 이러한 월가족의 빈곤은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확보에 어려움으로 작동한다. 즉, 월가족이 빈곤한 노인들은 이들의 생애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과 친인척 자원이 부족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적절한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지 못하여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된다(최경희, 2005).

특히 유년시절 교육에서의 배제경험은 청장년기 저임금 노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안기덕, 2012: 454). 개인의 교육수준이 성장 이후 직업과 소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기회의 부족은 노년기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빈곤노인들이 경험하는 유년기 교육 배제는 성별불평등을 반영한다. 예컨대, 교육에서 배제된 채 유년시절부터 노동에 참여한 남성들은 월가족이 가난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노년 여성들의 월가정이 교육을 포기할만큼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았음에도 아들만 교육에 참여시키고, 여성노인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배제된다. 이는 빈곤한 여성노인들에게 흔치 않게 나타나는 서사이다(안기덕, 2012: 454).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노인의 불안정한 고용지위, 임금수준, 사회적 안전망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가이 스탠딩(Standing, 2017: 7)은 고용형태나 임금 수준 등을 넘어 사회와 공동체, 삶의 안정과 불안 등의 측면에서 폭넓게 노동자 집단을 파악하는 개념으로 '프레카리아트'를 사용한다. 하지만 불안정성, 불확실성, 불충분성은 비단 최근만의 현상이 아니라 19세기 이래 노동자 계급의 공통된 출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Palmer, 2014; Breman, 2013). 본 연구는 불안정성을 계급으로 접근하기보다 복합적인 속성으로서 각 계층에서 불안정성이 어떤 강도로 발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불안정한 집단은 ‘쓰레기가 되는 삶’(바우만)에 놓인 잉여적 존재, 혹은 배제되는 존재 ‘호모사케르’(아감벤)과 다르지 않다(정윤희, 2021). 노인들은 생존을 위해 일하고 생계를 이어가지만, 일자리에서 언제든지 배제되고 더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시스템의 가장자리에 내몰린다. 최해지와 정은수(2017)도 한국에서 중고령자가 노동과 빈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고임금에 대한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자본의 생리에 따라, 핵심부 노동시장으로부터 밀려나 주변부의 노동시장에 갇힌 불안정한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일정한 고정 시점에서의 불안정성을 포착하기보다 노동불안정성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프레카리아트化 되어 가는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2. 노인 인권 관련 주요 쟁점 사항

1) 성별과 빈곤의 중첩성

노인 빈곤을 논의할 때 성별 특성은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 우선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남성 노인의 빈곤율을 상회한다(배성우, 손지아, 박순미, 2008; 백미연, 2019; 성영태, 최인규, 2020). 이러한 ‘빈곤노인의 여성화’는 단순히 남녀 간의 차이라기보다 성불평등을 반영하는 사회구조적 결과라고 설명된다(백미연, 2019; 성영태, 최인규, 2020; 이주미, 김태완, 2020). 남성들의 경우 노년기 이전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즉,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으로 일했는지가 노년기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은 노년기 이전 경제활동상태에 상관없이 빈곤노인이 되는 비율이 높다(이주미, 김태완, 2020). 그리고 여성들의 노동이 남성들의 노동만큼 인정받지 못하며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불평등 역시 빈곤한 여성노인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어

려움이다. 더군다나 빈곤한 여성노인들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가정에서 경제권을 행사한 경험이 부족하다(최희경, 2005: 163). 이처럼 여성에게 불리한 노동시장구조와 임금체계, 남성중심적 법과 문화 및 복지체계, 노년기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비, 산업화과정에서의 분배체계의 실패 등이 체계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여성노인의 빈곤화를 초래한다(백미연, 2019: 488; 성영태·최인규, 2020). 이는 노인빈곤 문제를 사회구조 속에 내재한 성별 불평등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들의 경우 노년기 이전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즉,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으로 일했는지 여부가 노년기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은 노년기 이전 경제활동상태에 상관없이 빈곤노인이 되는 비율이 높다(이주미, 김태완, 2020).

그리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됴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의 부재로 인해 노년기 빈곤을 경험하는 것은 여성 노인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교육의 부재는 단순히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뿐 아니라 문자를 학습할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컨대, 학교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더라도 한글을 아는 것만으로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특히 자격시험을 요하는 직업군의 경우 결정적이다. 문자 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성인이 된 이후 미용기술 등을 섭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을 칠 수 없어 노동불능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안기덕, 2012: 455).

한편 여성노인들은 유년시절의 교육 배제뿐 아니라 성인기 이후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등 가족의 변화에 따라 빈곤층이 되기도 한다. 배우자의 사별과 이혼은 그동안 생계부양자였던 가족 내 주요 소득원의 상실과 이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전이로 이어진다(최경희, 2005). 빈곤한 노인여성들은 노년기 이후에도 여전히 주요 가족돌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빈곤 때문에 가족 돌봄을 외부에 맡길 수 없는 여성노인들은 아픈 남편의 병간호를 맡거나 자

녀들 대신 손자녀 돌봄을 도맡기도 한다. 가족의 빈곤은 여성노인으로 하여금 노년기까지 다양한 가족돌봄이라는 무급노동에 참여하도록 하며,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근로참여를 제한하여 노년기 빈곤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최경희, 2005). 백학영(2006)은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자녀의 사업실패, 배우자와의 관계단절, 불안정한 경제활동, 가족지원체계의 약화 등으로 빈곤한 상태가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모든 빈곤노인이 지속적으로 빈곤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빈곤노인은 빈곤상태를 탈피하기도 한다. 빈곤탈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교육수준이나 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보험 소득 등이 빈곤을 탈피할 확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배성우, 손지아, 박순미, 2008: 309). 이와 더불어 초기노년기에 속하는 노인들은 고연령에 속하는 노인들에 비해 빈곤을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김세진, 남석인, 2020). 이는 초기노년기의 노인들은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이다. 즉, 초기노년기 노인들은 중기나 후기노년기 노인들에 비해 소득획득이 높으며 이것이 실제 빈곤탈피로 이어진다. 이외에 사회적 참여의 증가는 고령자들의 객관적, 주관적 빈곤완화에 영향을 미친다(도수관, 박기묵, 2020). 사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참여를 위한 제약이 약화되어 사회적 참여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소득수준이더라도 사회적 참여를 많이하여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화될수록 수입획득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참여가 높은 노인은 빈곤을 탈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차별과 혐오의 피해

연령에 의한 차별과 혐오는 노인이 아닌 집단에 의해 생성된다. 하지만 노인집단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자신을 판단하고 구성하는 틀로 수용한

다. 노동이 불가능한 신체를 지닌 존재로서 노인을 타자화하는 것은 노인 스스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결국 노인들은 ‘나이가 많아서’ 어떤 것도 잘하지 못하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김주현 외, 2020). 더군다나 빈곤한 상태이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의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아인식은 더 강해진다. 일반적으로 중노년층은 나이가 들수록 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였다(이미진, 2012).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부출입 및 타인과의 접촉자제, 대인관계 축소로 불안, 우울, 불면, 스트레스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호소하는 노인들이 증가. 집단 시설에서의 감염우려로 노인복지시설들의 휴관이 지속되고 마스크 상시착용 등 뒤바뀐 삶과 단절로 인해 외로움 고독을 호소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우울, 치매문제가 악화되고 있다(오혜인, 2020; Brooke and Jackson, 2020). 이는 격리된 노인의 경우보다 비격리된 노인의 경우 신체활동 저하, 좌식생활 정도, 사회활동참여 감소 정도가 덜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전 세계적으로 노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시설폐쇄 등의 영향으로 신체활동 저하, 사회활동참여 저하가 두드러진다.

노인빈곤은 단순히 저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의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 심리적 상태 등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노인 빈곤이나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다룸에 있어 노인들의 소득이나 자산 이외에 다양한 분야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인 빈곤이나 노년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는 노인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노년기 이전의 생애과정을 통해 축적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노인빈곤과 사회적 차별의 완화를 위해서는 노년기뿐 아니라 노년기 이전의 생애 과정에 정책적 개입을 통해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3. 노인의 빈곤, 주변화, 사회적 배제 현황

이상에서 살펴본 노인의 빈곤 상황, 주변화, 사회적 배제 현황이 사회경제 지표에서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관련 행정자료와 국제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1)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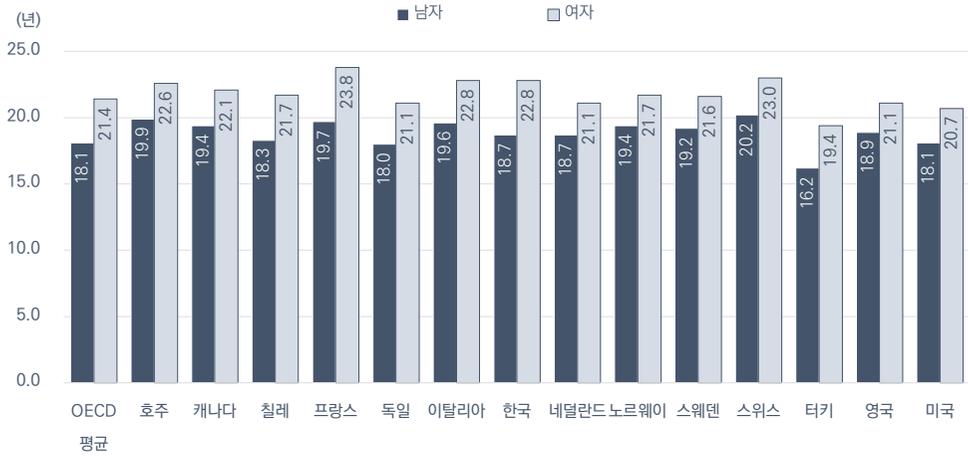
2018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기대여명은 20.8년이다 이는 OECD 평균(남자 18.1년, 여자 21.4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남자의 경우 영국(18.9년)과 비슷하고, 여자는 스위스(23.0년)와 비슷하다.

〈그림 2-1〉 기대여명(65세, 2018)



자료: OECD, 「Health Status」 (2020.8.13. 기준)

〈그림 2-2〉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기대여명(65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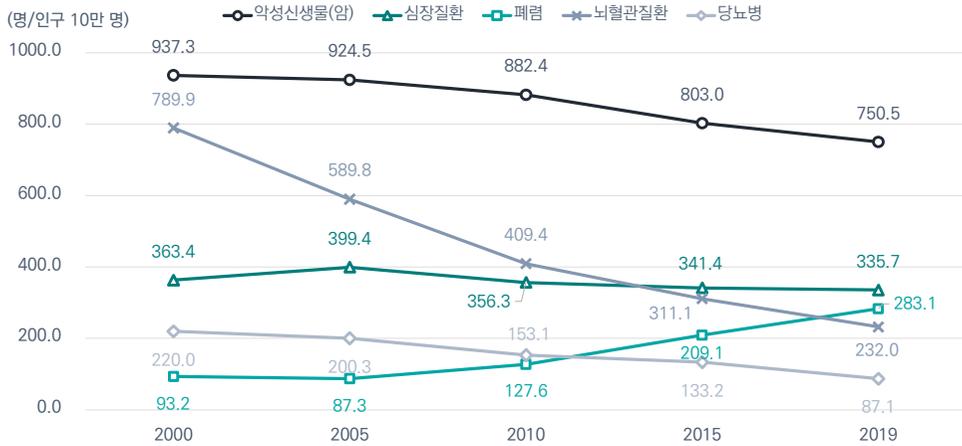


자료: OECD, 「Health Status」 (2020.8.13. 기준)

주: 2018년 자료가 공표된 OECD 34개국의 산술평균임(일본, 멕시코는 자료 미공표로 제외)

그리고 노인 고령자의 사망원인은 암(750.5명), 심장질환(335.7명), 폐렴(283.1명), 뇌혈관질환(232.0명), 당뇨병(87.1명) 순이었다. 암이나 뇌혈관질환 그리고 당뇨병에 의한 사망은 꾸준한 감소 추세이나 폐렴에 의한 사망은 200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기존 질환의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새롭게 등장하는 사망률 질환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림 2-3〉 고령자(65세 이상) 사망률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유병장수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인 의료비가 매년 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20년 노인진료비는 37조 6,135억 원으로 2016년과 비교하면 1.5배 증가하였다.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는 4,870천원으로 전 년(4,910천원) 대비 40천원 감소하였다. 하지만 노인 1인당 진료비는 매년 상승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의 증가는 노인 빈곤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은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은 더 증가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차후 OECD 대비 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비로 인한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2-3〉 65세 이상 인구 증가와 의료비 증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인구(천명)	50,490	50,763	50,941	51,072	51,391	51,345
65세 이상 인구(천명)	6,223	6,445	6,806	7,092	7,463	7,904
65세 이상 진료비(억 원)	222,361	252,692	283,247	318,235	357,925	376,135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천 원)	3,620	3,983	4,255	4,568	4,910	4,870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천원)	1,149	1,275	1,391	1,528	1,681	1,68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건강보험통계연보」

2) 소득 및 노후보장

2019년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전년 보다 증가하였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2016년 이후로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한국 사회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2.9%, 실업률은 3.2%로 전년보다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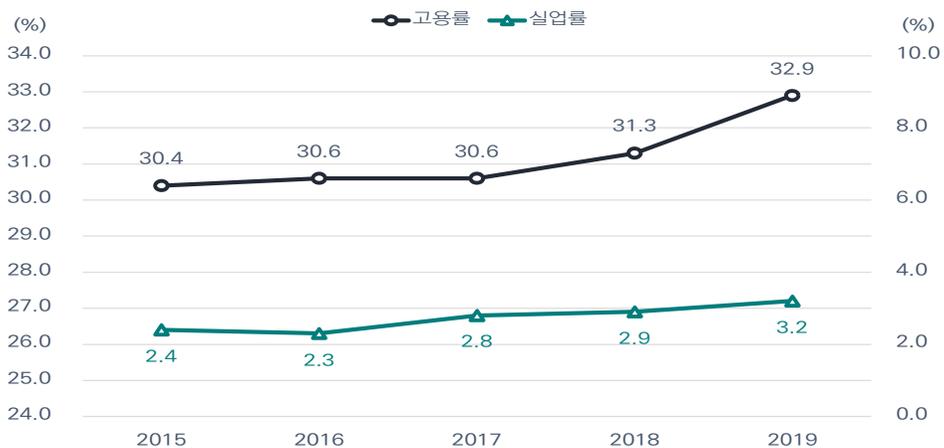
〈그림 2-4〉 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66세 이상, 2017)



자료: OECD, 「SocialandWelfare Statistics」 (2020.8.1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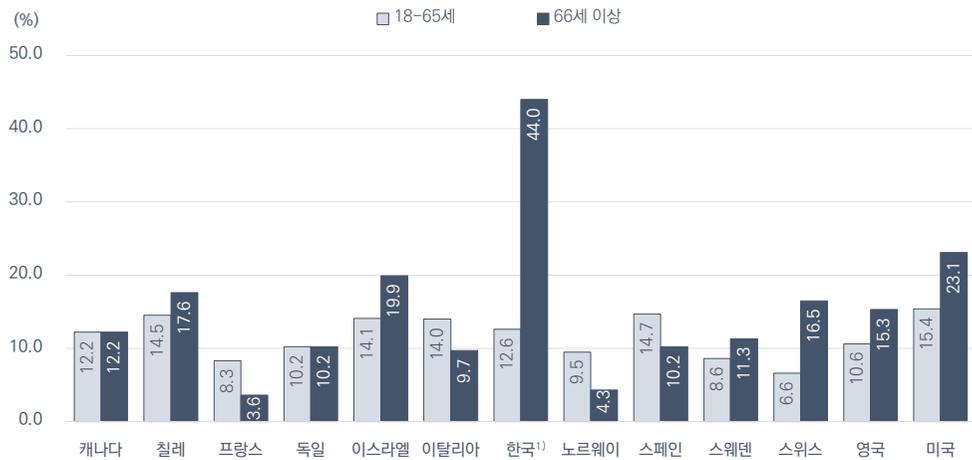
한국의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18세~6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12.6%로 OECD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즉, OECD 국가 중 노인이 가장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라 할 수 있다.

〈그림 2-5〉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용률 및 실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6〉 OECD 주요 국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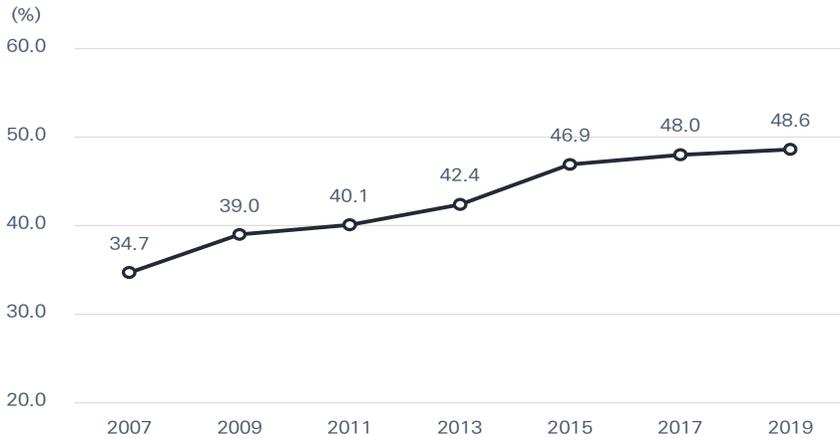
자료: OECD, 「Socialand Welfare Statistics」 (2020.8.19. 기준)

주: 1) OECD Stat의 한국 자료 잠정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 자료로 대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50%는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노후 준비를 하는 비중은 남자가 60.9%이고 여자가 39.3%로 나타나 성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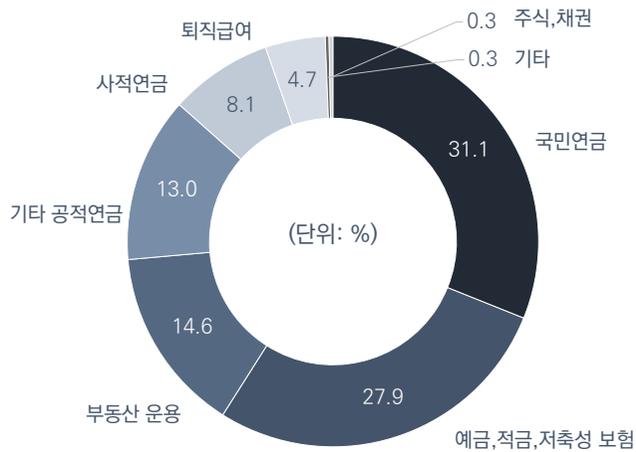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의 비중이 31.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이 27.9%, 부동산 운용이 14.6%, 기타 공적연금(13.0%), 사적연금(8.1%), 퇴직급여(4.7%)의 순이었다. 한국에서 고령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나 저축성 자산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부동산은 약 14%에 불과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연금의 비중이 5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이 가장 선호되는 노후 준비 방법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 고령자(65세 이상) 노후 준비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2-8〉 고령자(65세 이상) 노후 준비방법(주된응답,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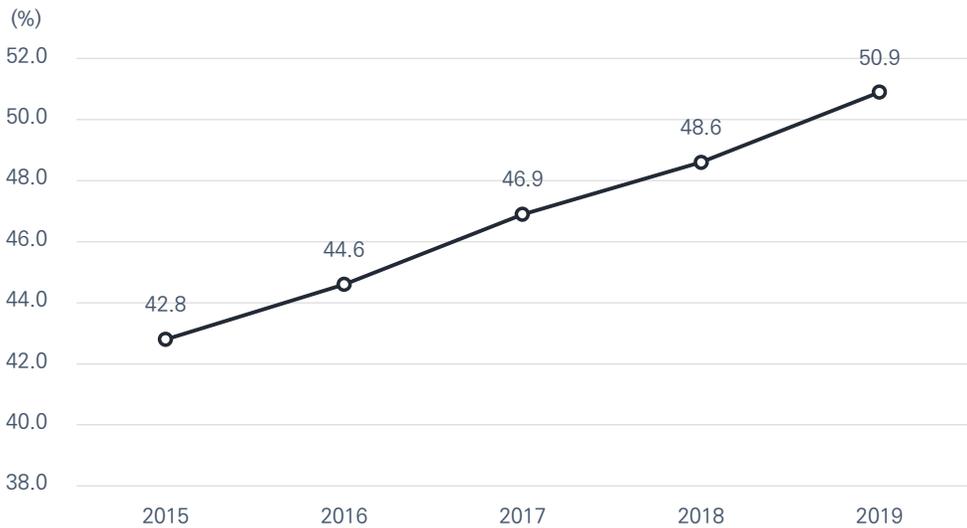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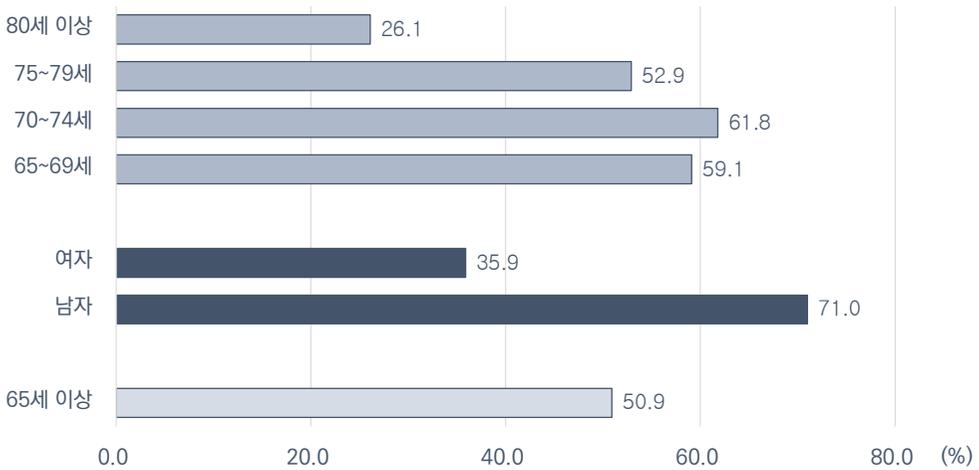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전체 고령자의 50%(50.9) 이상이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자의 공적연

금 지급률은 35.9%로 남자의 약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70~74세의 연금 지급률이 6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65~69세(59.1%), 75~79세(52.9%), 그리고 80세 이상(26.1%)으로 나타났다. 공적 연금 지급률에서의 차이는 남녀 성별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노인 연령층 간의 세대 간 격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9〉 공적연금 지급률(65세 이상)



〈그림 2-10〉 성 및 연령별 공적연금 수급률(65세 이상,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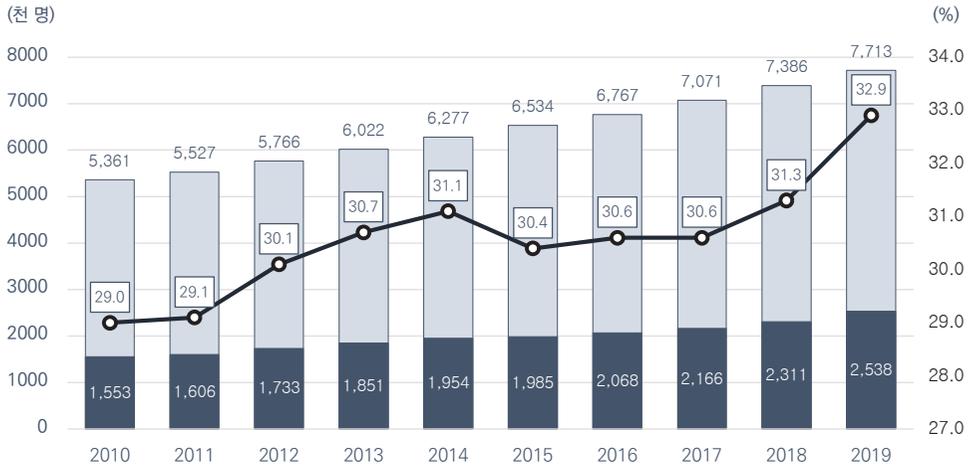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3) 일자리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는 노인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노인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2.9%로 이전보다 높아졌다. 고령자의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의 절반 수준이지만, 2015년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측면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1〉 고령자(65세 이상)의 취업 현황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하지만 고령자의 취업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별 취업자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5.8%이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24.6%,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17.7% 그리고 기능/기계조작 종사자가 13.5%의 순이었다.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고령자는 주로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관리 및 전문 사무 종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증가하고 있는 노인 고용률에서 노인의 직업은 대개가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4〉 고령자(65세 이상)의 직업별¹⁾ 취업자 분포

(단위: 천 명, %)

	취업자							
	소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 기계 조작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2015	1,985	100.0	4.9	2.5	16.0	28.7	12.4	35.5
2016	2,068	100.0	4.5	2.6	16.8	26.8	12.8	36.5
2017	2,166	100.0	4.8	2.5	17.0	25.9	12.7	37.0
2018	2,311	100.0	5.1	3.0	17.0	26.0	13.2	35.7
2019	2,538	100.0	5.5	3.0	17.7	24.6	13.5	35.8
전체 ²⁾ (2019년)	27,123	100.0	22.0	17.5	22.7	4.9	19.9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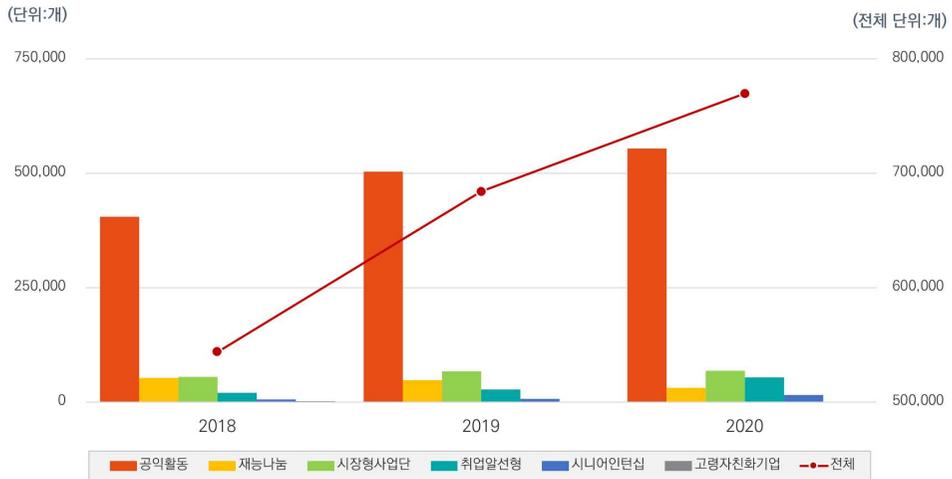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8년) 기준임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대상임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익활동의 경우 2016년 290,625개에서 2020년 554,101개로 263,476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은 2019년 23,548개에서 2020년 45,764개로 전년 대비 94.3% 증가하였다. 반면 재능나눔은 2020년 30,710개로 2018년까지 증가하다 그 이후 감소 추세이다. 민간형 일자리 중 시장형사업단과 시니어인턴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2-12〉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건수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행정자료)

4) 사회참여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참여율은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 연령대(16.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60%는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회단체 참여 유형은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종교단체(43.0%)와 지역사회 모임(20.4%)의 비중이 높았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58.7%는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있었으나, 전 연령대의 참여율(66.1%)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종교단체나 지역사회 모임의 비중이 높았으나, 취미/여가/학술 등의 참여 비중은 낮았다.

〈그림 2-13〉 자원봉사 참여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2-14〉 사회단체 유형별 참여 비중(201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5) 사회적 관계

2019년 19세 이상 성인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집단으로 “노인”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성인의 약 13%였다. 노인 집단은 장애인, 여성, 이주민에 이어 한국 사회에서 4번째로 차별을 많이 당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6.8% 정도 높아졌다.

〈그림 2-15〉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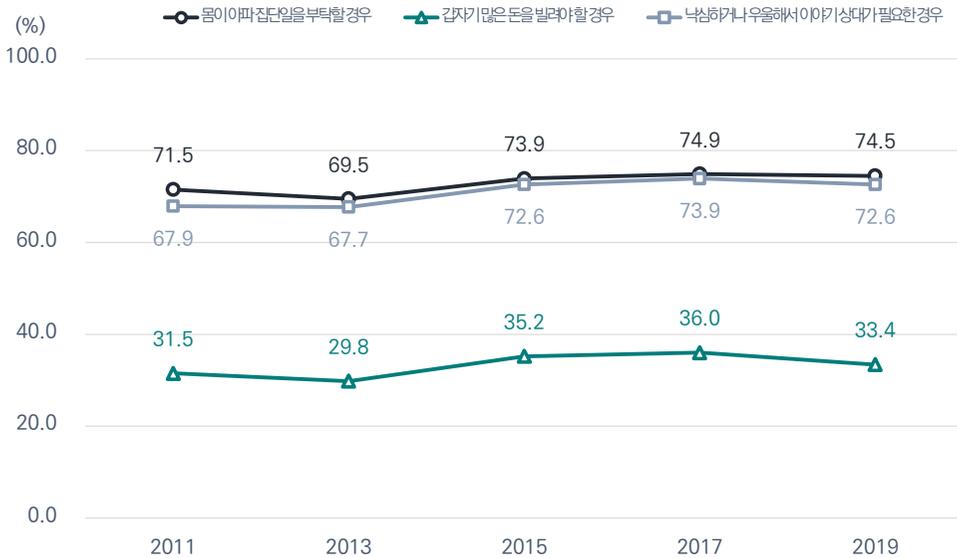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65세 이상 고령자 중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3세 이상 인구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인다. 고령자 3명 중 1명(33.4%)만이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 관계망은 축소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16〉 사회관계망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6) 생활 환경과 삶의 만족도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한 3.9%였고, 2017년 이후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9년 13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는데 반해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약 25%만이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다른 사회지표와도 연동이 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택 및 거주환경 만족도 역시 전체 일반가구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림 2-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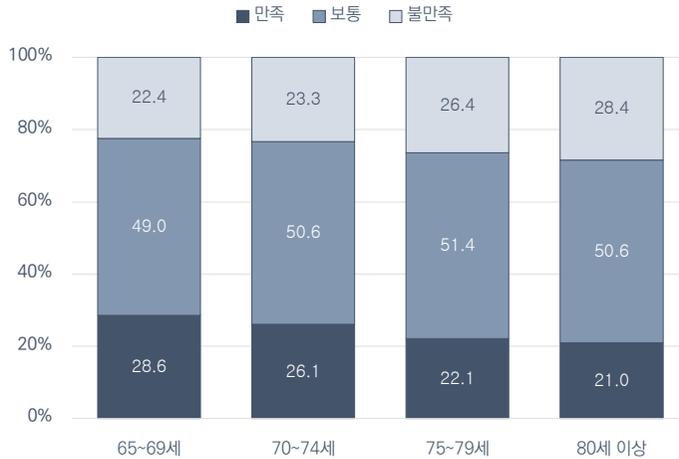
〈그림 2-18〉 삶에 대한 만족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4명 중 1명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고령자는 전 연령대와 비교하여 더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진다.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삶의 만족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 2-19〉 연령대별 삶에 대한 만족도(2019, 65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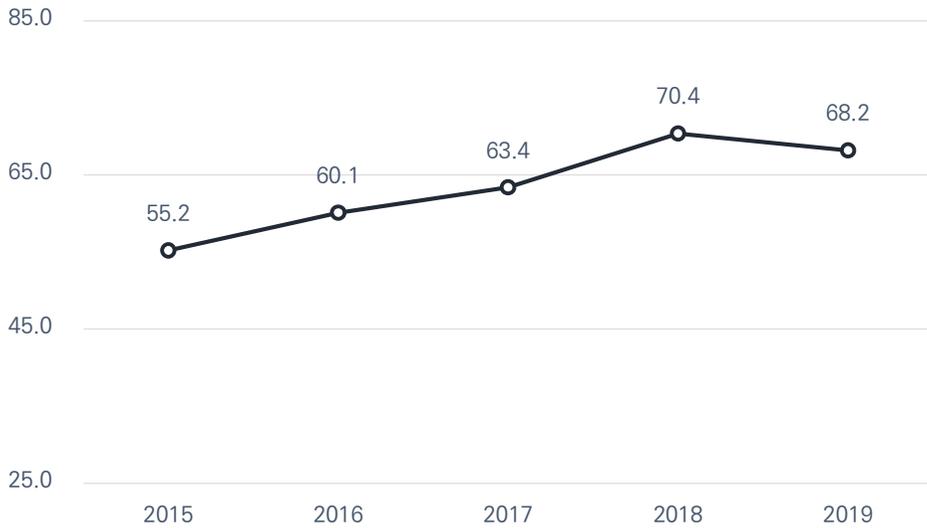
주: 1)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임

7) 노인에 대한 학대

노인의 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10만명 중 68.2명은 학대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여성의 학대피해 경험률(90.6명)이 남성(38.5명)보다 2.4배 높은 수준이다. 여성의 학대 피해가 높다는 것은 학대에서의 성적 차이가 존재하고 대개의 경우 여성이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대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학대피해 간에는 정적인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대의 경험 역시 증가하는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대 피해자가 될 확률 역시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학대의 대상은 노인일 확률이 높고,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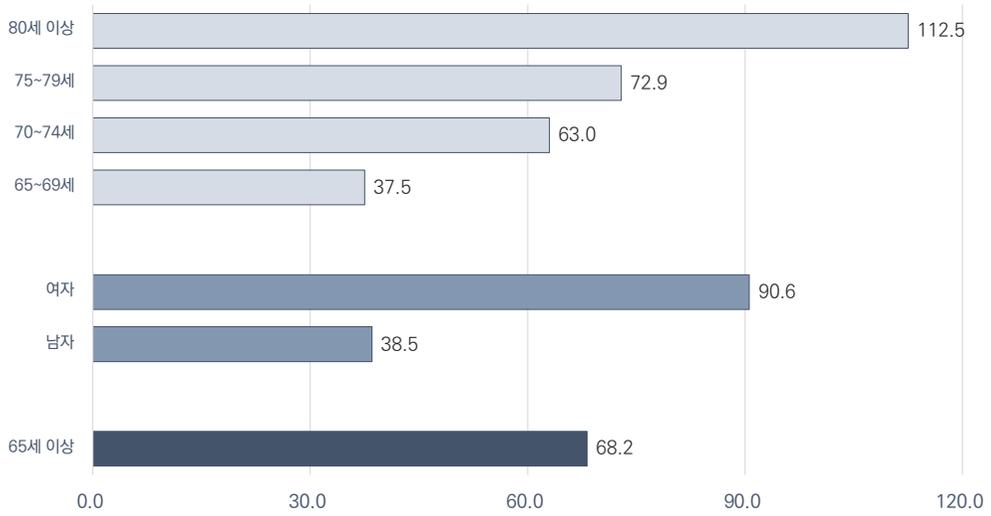
될 확률이 높고, 같은 노인이라도 더 젊은 노인일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그림 2-20〉 학대피해 경험률(65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그림 2-21〉 성 및 연령대별 학대피해 경험률(2019, 65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제3장

국내외 대응체계와 노인인권 보장정책

1. 국내 노인 관련 법령 및 정책
2. 인권 관련 프로그램 해외 사례

제3장 국내외 대응체계와 노인인권 보장정책

1. 국내 노인 관련 법령 및 정책

1) 노인 인권 관련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

(1) 법령상 노인 인권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대한민국헌법에 기초한다. 헌법은 인권을 지닌 당사자 즉 인권의 소재를 모든 국민으로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인 또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명확히 한다. 인간으로서 노인이 갖는 권리는 자유에 관한 권리, 정치 및 법과 관련된 권리, 사회적 권리로 유형화 할 수 있다. 헌법에 열거된 자유에 관한 권리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보장의 권리 등이다, 정치적으로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문서 청원권, 재판 받을 권리, 보상 청구권, 배상 청구권, 법률 구조권 등을 갖는다. 또한 헌법은 사회적 주체로서 국민이 교육권,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이 갖는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는 국가이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

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더불어 안전, 사회참여 확대와 일할 기회 제공, 공공시설 운영 및 일상생활용품의 판매 위탁 시 우선권 부여를 통한 생업지원, 건강진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및 조기발견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노인학대의 예방과 사후조치 등에 관한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은 노인이 경제적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노동, 건강, 돌봄, 사회참여,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한다.

(2) 노인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① 노후소득보장

노년기는 은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가는 노후소득보장정책을 통해 소득활동의 중단에도 빈곤에 빠지지 않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그림 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0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1층의 기초연금, 2층의 공적연금을 주요 축으로 하며, 공적연금은 연금 가입시기의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⁵⁾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표적인 빈곤 정책이다. 가구주의 연령에 관계없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나 빈곤가구 중 노인가구의 구성비가 높아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중요성이 높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빈곤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가장 많은 노인 인구를 포괄한다는 점에

5)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서 중요성이 크다.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⁶⁾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게 보험료 등의 기여가 요구되지 않는 무기여연금이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대표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노년기 소득감소의 위험을 분산하고 집합적으로 대처한다.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소득감소의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노동생애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연금수급이 시작되는 시기는 현재 63세이나 국민연금개혁에 따라 65세까지 늦춰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공적연금의 넓은 사각지대이다. 기초연금은 보편 수당의 성격이 강함에도 급여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중추적 노후소득보장 제도임에도 수급률은 65세 이상 노인의 53.1%에 불과하다. 둘째, 공적연금의 급여 충분성이 낮다. 기초연금의 월 급여액은 1인 최대 30만원으로 최저생계비의 55%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2021년 처음으로 55만원을 넘어섰다. 셋째, 국민연금 수급율에서 성별 격차가 크다. 남성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율은 72%, 여성 노인은 38%로 성별 수급율이 약 2배가량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였거나 무급 종사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성을 위한 연금 크레딧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출산 크레딧인데, 이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이외에도 돌봄 등으로 연금 크레딧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제 퇴직연령과 연금수급 개시연령 사이의 차이가 커서 장기간의 소득 공

6) 2018년을 기준으로 노인 1인 131만원 이하, 부부 합산 209만원 이하인 가구

백기가 존재한다.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 퇴직연령은 대기업의 경우에도 57세에 불과하다. 반면 연금수급은 63세부터 시작되어 퇴직 후 평균 6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다섯째, 정책 빈곤선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노년층의 절대빈곤 문제가 잘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빈곤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설정하고 있는데, OECD 국가의 빈곤 수준을 비교할 때에는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를 빈곤선 기준으로 사용한다. 국내 빈곤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설정한 것은 전물량방식으로 측정하던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추어 2015년 상대적 빈곤선 수준을 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게 설정된 정책 빈곤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최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연금을 전액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다.

〈그림 3-1〉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출처: 최혜지 외, 2020. p. 243

② 건강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은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정책은 국민의 97%가 적용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3%의 국민이 대상자인 의료급여제도가 중심을 이룬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보건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이 가입의 대상이며, 가입이 강제된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을 유지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정

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재민, 행려환자 등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자가 된다.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장 관련 제도는 1983년 무료 노인건강진단제도부터 시작되었다(정경희 외, 2016). <그림 II-2>에 정리된 바와 같이 노인을 위한 건강보장사업은 건강검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사업, 질병관리 및 치료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있다(선우덕 외, 2016).

이와 같은 건강보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이 노인의 재정상태에 비해 비교적 높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강화되어 왔으나 여전히 비급여 항목이 많아 의료비 부담이 높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비급여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거나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악화이다. 국민 한 사람이 평생 사용하는 의료비인 생애의료비 중 50%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년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재정건정성의 악화는 건강보험의 수가제가 포괄수가제가 아닌 행위별 수가제인 점, 의료서비스 이용을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맡김으로써 과도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2〉 노인건강보장사업의 구조



출처: 선우덕 외, 2016

③ 노동보장정책

노동은 생계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며, 자아실현의 도구이다.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노동할 기회를 잃는 것은 생계에 대한 위협과 사회적 고립으로 연결되기 쉽다(최혜지, 2018). 이와 같이 노동이 개인의 삶에 갖는 중요성에 따라 노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인에게 보장된 권리의 하나로 존중되어 왔다.

노인을 위한 노동보장정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취업알선사업을 주축으로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60세 이상의 노인이 주요 대상이며, 노인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를 촉진함

을 목적으로 한다. 노후소득보장의 주요 기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대상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소득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노인노동정책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주로 65세 이상의 노년기에 집중해 분절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노동은 청년기 이후 지속되는 생의 과업이므로 노년기 이전의 노동경력과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노동정책은 65세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이 이루어진다. 노동정책이 이와 같이 분리됨에 따라 노동지원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분절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은 법정 정년 연장,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급이 핵심적인 정책이다.⁷⁾

노인일자리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지만(강은나, 김영선, 2018)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 비해 노인일자리의 수는 50% 미만에 그친다. 노인일자리의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수에 비해서는 부족해 일할 의욕과 역량이 있는 노인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 더불어 노인일자리의 질적 한계에 대한 문제 또한 지속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지 못하고, 보수 또한 낮다.

④ 돌봄정책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도

7)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이 대상이며, 정년이 설정된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 근로자를 정년 이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2년간 지원) 지급되는 제도이다(이병희, 2021).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움을 필요로 한다. 노인에 대한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 내에서 여성 가족원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사회구조적 변화는 노인 돌봄의 주체로서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역할을 확대해왔다(최혜지, 2020).

노인의 돌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체계는 <그림 3-3>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기능상태, 경제적 수준, 가구형태 등에 따라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또는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노인에게 자가를 방문하거나 시설에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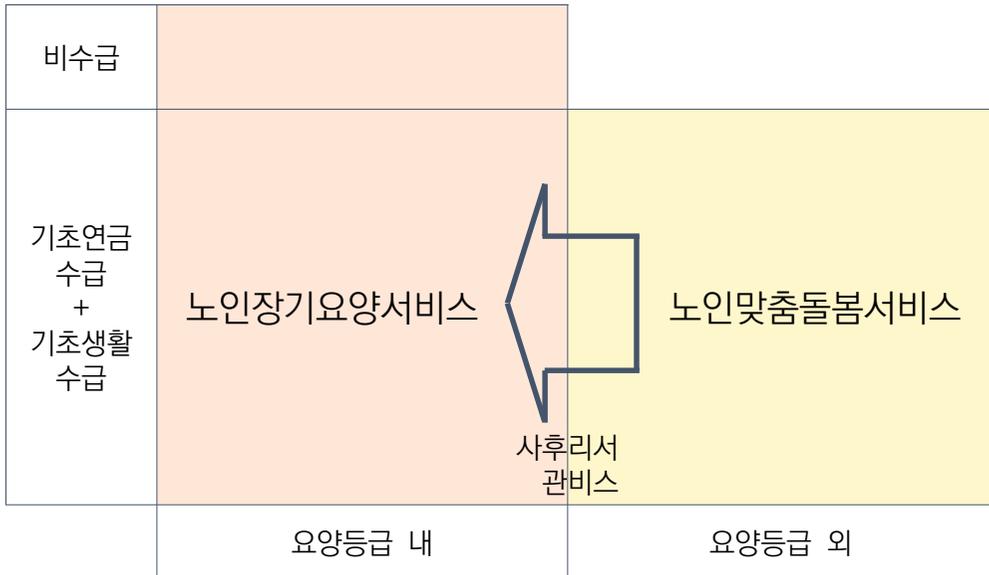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정등급이 5등급 이내에 해당할 정도로 중등도는 아니나 경등도 수준의 가벼운 기능장애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우울하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거나,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0).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주요 문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공급의 시장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비율이 높아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욕구에 비해 부족한 급여 불충분 문제 또한 한계로 남아 있다(최혜지 외,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산의 한계로 저소득 노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 모두 민간

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한계를 갖는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저임금, 노동시간의 가변성 등 노동불안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돌봄종사자 처우의 문제는 돌봄의 질과 연동되어 노인돌봄의 주요 과제로 남겨져있다.

병원내 간병은 중환자실 입원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가족이 사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다. 가족이 환자를 직접 간병하거나 개인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는데, 요양보호사와 달리 개인간병인에게는 어떤 자격요건도 요구되지 않는다. 2021년 국내 간병시장의 규모는 약 7.6조원이며, 연평균 8.1%의 성장을 하여 2030년에는 약 11.6조원의 대규모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보험연구원, 2019).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큰 경우가 상당하며, ‘간병파산’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정형준, 2021). 7년 전에 시작된 시범사업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문제를 건강보험의 일부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지만 서비스의 확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퇴원 후 공적인 간병지원 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3〉 노인건강보장사업의 구조



출처: 최혜지 외, 2020. p.315

⑤ 주거보장정책

노인주거보장은 주택이라는 생활공간을 보장하고, 주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 곳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최혜지 외, 2020).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부부 및 노인 1인가구 중 주거상태가 최저주거기준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약 14%에 이르고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9.8%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와 주거비 과부담 여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주거빈곤가구는 노인부부 및 노인 1인가구의 22.1%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박은주, 권혁수,

2020). 또한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노인가구는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6.4%로, 비노인가구의 23.5%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45%이며, 1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액은 4급지(기타) 163,000원 ~ 1급지(서울) 310,000원이다. 주거비 지원이 주거빈곤이 아니라 소득빈곤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점, 주거비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보장정책은 아직까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던 공급방식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주거를 삶의 기본적인 인프라이자 권리로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주거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는 주거에 대한 공공 지원과 복지적인 접근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한 기능상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마련하는 것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다.

〈표 3-1〉 노인의 주거유형별 특징

주거유형	세부 주거유형	주요특징
공공주택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을 2005-2007년 기간 동안 실시
	공공실버주택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형태
	원룸형 안심공동주택	서울시가 SH와 협업으로 지역 내 소규모 주거단지 형태
서비스 연계 노인 전용 주거	노인의 집	3~7명의 소수 노인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을 마련하여 같은 주거공간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생활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한 무료 노인복지주택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농촌 고령 독거노인의 돌봄 대안으로 마을 내 공간(예: 마을회관, 경로당, 빈집 등)을 활용
재가서비스 주거	주거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
	주거환경개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개량지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진행되는 주택개량지원과 민간부문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 주택개조비용 지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중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가정을 대신하여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출처: 최혜지 외, 2020. p.343

2. 노인 인권 관련 해외사례

1) 빈곤 경감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정책

(1) 캐나다 기초연금(OAS)와 최저보장연금(GIS)

캐나다는 최저보장연금(GIS), 기초연금(OAS), 캐나다연금보험(CPP)의 다층적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다층적 연금구조의 0층을 이루는 GIS와 1층을 구성하는 OAS는 노령보장법에 근거하며, 빈곤한 노인을 위한 탈빈곤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국민연금연구원, 2012).

OAS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캐나다 공적연금 중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모든 시민에게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보편적 성격의 연금이다.

GIS는 OAS 급여를 받지만 여전히 소득이 낮은 빈곤 노인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이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등을 포함한 연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저소득 노인이 대상이다. 급여액은 연간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월평균 급여액은 약 \$500.00, 최대 약 \$750.00이다.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2당 \$1정도 급여가 감소된다(여유진 외, 2012).

(2) 뉴질랜드 기초연금(NZS), 퇴직연금(Kiwisaver)

뉴질랜드 기초연금인 NZS는 보편적 성격의 정액연금이다. 노후의 빈곤 예방을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며 노인빈곤 예방 및 완화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국민연금연구원, 2012). 2030년까지 기초연금의 지급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GDP의 특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아 조성된 노령연금기금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0세 이후 뉴질랜드에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뉴질랜드 65세 이상 인구의 95%가 NZS를 받고 있다. 보편적 연금의 특성상 소득수준, 자산, 고용상태에 관계 없이 받는다(국민연금연구원, 2012).

NZS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배우자 유무, 타인과의 동거여부, 자녀 동거 여부, 주택 공유 여부, 배우자의 NZS 수급 여부, 타 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평균 NZS 급여수준은 세후 순소득의 66%, 평균임금의 39%에 이를 정도로 높다.

키위세이버는 저출산고령화에 다른 노후소득보장과 기초연금의 보완을 목적으로 뉴질랜드가 도입한 자발적 퇴직연금이다. 확정기여형 연금인 키위세이버는 가입자가 결정한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월천 징수하여 민간사업자가 운용하는 금융 자산 투자프로그램이다. 65세 이후 투자수익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한다. 민간사업자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등록된 사업자로 가입자나 고용주가 사업자를 선택한다(여유진 외, 2012).

2) 중고령자 일자리 정책

(1) 독일

① 채용지원금과 추가고용지원

채용지원금은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직장 알선에 장애 요인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임금보조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채용지원금 제도를 단순화 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에 따른 이유로 직장알선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다.

중고령자를 위한 채용지원금은 2007년부터 독립적인 정책 수단으로 도입

되었으며, 지원의 내용은 임금과 사회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취업 경쟁력을 약하게 하는 특별한 개인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 사유로 인한 취업 중단, 건강상의 문제, 직업경험 부족 등이 직장알선을 어렵게 하는 개인적 사유에 해당한다. 채용지원금은 근로자의 취업 장애요인에 따라 수급액과 수급기간에 차이가 있으나 근로자 임금의 50%를 넘을 수 없고 최대 12개월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시장 진입이 특히 어려운 중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51세 이상의 중고령자는 지급 기간을 12월에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우대조항을 두고 있다.

채용지원금의 목적은 실업상태를 벗어나 사회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이 되는 직장에 고용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 일자리는 주 15시간 근로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직장에 채용되기 이전에 채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채용지원금 제도는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최소한 지원을 받은 기간 이상 근로자를 추가고용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추가고용을 의무로 준수해야 하는 기간은 채용지원금 지원기간과 동일하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등 추가고용을 강력하게 유도한다(지은정 외, 2013).

② 점진적 퇴직제도

점진적 퇴직제도는 고령자가 현재의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식으로 퇴직을 유도하고, 축소된 노동시간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공적으로 보완해 주는 제도이다. 197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하였고 현재 11개의 EU 회원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조기퇴직 유인제’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연금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여 폐지되면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6년 도입 되었다.

적용 대상자는 55세에 이른 근로자로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을 종래의 주당 근로시간의 50%로 단축하고, 5년 이내에 최소한 1,080일의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고용관계에 있어야 한다. 점진적 퇴직제도에 합의한 사용자는 첫째, 고령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소한 20% 이상의 임금을 추가하여 지급해야 한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금 수급액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통상임금의 80%-90%를 기준으로 연금보험액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사용자는 고령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일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실업자나 직업훈련 수련생을 채용해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방노동사회청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추가분과 연금보험액을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권혁 외, 2020).

③ 이니셔티브 50+사업

이니셔티브 50+사업은 실업상태인 50~64세의 중장년을 다시 일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즉 중장년 실업자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기회를 얻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나영선 외, 2010; 민상기 외 2015; 조선주 외, 2013; 최흥기, 2011). 첫째, 10만 명의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하여 2010년까지 5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률을 50%까지 증가시키고, 2012년까지 유럽의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둘째, 55세 이상 고령자의 조기은퇴를 감소시킨다. 셋째, 고령자에 대한 임금보조금 제도의 도입과 고용보조금(Eingliederungszuschuss). 지원을 통해 고령실업자를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킨다. 넷째, 근로자의 능력향상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 참여 비율을 확대시킨다.

이니셔티브 50+ 사업은 연방정부 차원의 고용촉진대책이지만 기존 사회 안전망유지와 고령인력의 장기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하에 연방정부, 지자체고용촉진전담 공공 및 민간지원기관, 기업체 등이 통합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니셔티브 50플러스 사업(Initiative 50plus)은 2011년까지 106,000명이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성과를 나타내는 등 정책 시행 후 5년 만에 목적을 달성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업의 성공요인은 아래와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민상기 외 2015; 조선주 외, 2013). 첫째, 지역인력개발 단체에 위탁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 모델이 가능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실행의 중심에 개인별 진로 상담과 지도를 제공하였고, 셋째,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새로운 근로 활동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특히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기업체와의 협력을 추구하는 방안으로 고용주들이 갖고 있는 중장년 근로자 채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중장년의 지식과 재능, 경험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중장년 근로자들이 젊은 세대와 비교하여 능력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설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공회의소, 직능대표 단체 등 기타 협력단체들도 중장년 고용알선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고용알선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고 중장년 실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였다.

④ Perspektive 50Plus

Perspektive 50Plus는 지역별 특성과 창의력을 활용하여 중고령 장기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은 중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방정부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실업급여 II를 수급하는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기실업자이다. 중고령 장기실업자가 경쟁적 노동시장에 생계보장형 일자리로 재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지역기업의 욕구와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기초하여 중고령 실업자의 채용전략을 담은 지역채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지역채용지원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Job Center, 사회복지단체, 기업, 상공회의소, 지역단체와 훈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지역의 기업들이 Job center에 채용계획을 알리는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 요소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핵심 조건으로 강조된다(지은정 외, 2013).

사업초기부터 근로향상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단체(Initiative Neue Qualität der Arbeit, 이하 INQA)와 퍼스펙티브 50플러스(Perspektive 50 Plus)⁸⁾, 지역 단위의 고령자 고용협약(Beschäftigungspakte für Ältere in den Regionen)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김기홍 외, 2010). 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이하 BMAS)가 진행하는 퍼스펙티브 50플러스 프로그램은 이니셔티브 50플러스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유럽 차원에서 고령자 고용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목받았다. 퍼스펙티브 50플러스는 이니셔티브 50플러스 사업의 세부적 수단으로 지역의 고령 근로자를 위한 고용협약 체결을 통해 중장년 장기실업자의 취업기회 확대와 직업재활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노동사회부가 실시하는 고용촉진 프로그램이다. 연방노동사회부는 50세 이상의 실업자들에게 지역 단위의 협력체들을 구성하여 취업 알선의 도움을 주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퍼스펙티브 50플러스의 주요사업은 장년고용

8) 'Perspective 50plus' of the German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는 특히 이 프로그램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장기 실업자를 위한 기초취업자의 수단인 소위 '실업급여 II'(하츠 IV라고도 함)의 고령 수급자(50세 이상)를 대상으로 해왔음. (Gerhard Bosch et al, 2019),

관련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이에 따른 협력관계를 맺는 데 있다. 중장년 근로자는 취업 후 6개월까지 퍼스펙티브 50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내용은 건강관리,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자조모임 등을 포함한다(조선주 외, 2013).

(2) 미국

①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이하 SCSEP)은 196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미국 전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유일한 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이지연, 2015; 지은정, 2016). SCSEP는 연방정부의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2019년 기준 보조금 총액은 38,444,997달러로 이 중 90%인 34,600,497달러가 연방정부보조금(federal grant)이며, 나머지 10%는 연방정부 이외 기금으로 충당된다. SCSEP은 만성 실업상태에 놓인 저소득 고령 근로자에게 파트타임의 직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보충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에 근거한 빈곤정책 혹은 노인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였다(지은정, 2016). 이후 1998년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이하 WIA)의 제정과 노인복지법의 개정의 영향으로 2000년부터는 SCSEP은 WIA원스탑센터 프로그램의 하나가 되었다. WIA는 여러 법에 나누어져 있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기술, 고용,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 복지의존도를 감소하

고 국민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이지연, 2015). 더불어 2006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참여기간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프로그램 참여기간을 생애 최대 48개월(프로그램 당 평균 참여기간은 27개월, 연간 1,300시간)로 제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민간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자립을 강조하게 되었다(지은정, 2016). 이에 따라 SCSEP은 저소득 고령자들에 일-훈련 기회, 경력개발, 현장직업훈련(On-the Job-Training, OJT) 제공을 통해 참여자의 시장성을 높여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게 되었다. 즉 SCSEP는 전통적으로 소득보충에 초점을 두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훈련과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의 이행, 즉 민간고용을 강조하게 되었다(지은정, 2016). 이에 따른 SCSEP의 구체적인 목적은 (1)고령 노동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그 직무가 요구하는 직업기술 수준으로의 향상, (2) 직업훈련기간 동안 부가적 수입 제공, (3) 고령 노동자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 (4)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인력 제공, (5)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고용의 창출이다(이지연, 2015). 그러나 2010년 이후 SCSEP는 프로그램 참여 종료 후 SCSEP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 이외에 사회적 성과도 함께 추구하게 되었다(지은정, 2016).

SCSEP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정부, 그리고 노인기관, 국가지원기관과 같은 수행기관 간의 유기적·체계적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 먼저 연방정부의 노동부 산하고용훈련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은 SCSEP를 주관하며, 운영지침 작성, 예산배정, 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 노동자의 가치 및 중요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정부 내의 노동국(State Workforce Investment Boards)은 매년 SCSEP의 시행지침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프로그램 지역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며, 주정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수행기준을 적용한

다. 지방정부(Local Workforce Investment Boards)는 고령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력의 효과적인 배치와 활용을 위해 직업고용, 교육, 경제개발과 관련된 지역사업체를 파악하고 협력한다. 지방정부는 원스톱서비스센터(One-Stop Career Service Center) 운영을 통해 성인 및 실직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 노동시장 정보제공, 취업알선, 취업훈련, 직업재활훈련 등 지역사회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총괄한다. 원스톱 서비스센터는 실업상태에 있는 미국의 모든 연령의 대상자들이 고용, 구직정보,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의 핵심이자 고용과 노동력정보서비스의 전달체로서 모든 연령과 기업, 구직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데, SCSEP 프로그램도 원스톱 서비스센터 내에서 전달되고 있다. 사업수행기관(Host agency)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SCSEP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주정부 차원의 노인기관은 총 56개 전국협의체가 있고, 연방정부 차원의 노인기관은 총 65개로 전국협의체가 있다(이지연, 2015).

〈표 3-2〉 노인 빈곤 경감 해외 사례

유형	국가·기관	주요 내용
빈곤 경감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 정책	캐나다 기초연금(OAS)와 최저보장연금(GIS)	노령보장법에 근거하며, 빈곤한 노인을 위한 탈빈곤 프로그램 OAS는 65세 모든 시민에게 정액급여를 지급 GIS는 여전히 소득이 낮은 빈곤 노인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뉴질랜드 기초연금(NZS), 퇴직연금(Kiwisaver)	NZS는 뉴질랜드에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대상 보편적 성격의 정액연금 키위세이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과 기초연금의 보완을 목적으로 뉴질랜드가 도입한 자발적 퇴직연금
중고령자 일자리 정책	독일	채용지원금과 추가고용지원 점진적 퇴직제도 이니셔티브 50+사업 Perspektive 50Plus
	미국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

제4장

생애구술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2. 생애구술사 사례별 분석 결과

제4장 생애구술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펴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2021. 1. 21)을 준수하면서 대면 면접을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총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례 20명을 선별하여 생애구술사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1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구술자와 연구자의 라포를 형성하고 구술자 생애의 전반을 들어보고자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생애과정, 일 경험,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여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면접하였다. 이후 진행된 구술생애사에서는 1~2회 추가 인터뷰(구술사)를 통해 유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생애 빈곤 경험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술사 수집을 위한 면접은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면접자는 남성 17명, 여성 36명으로 여성이 두 배 정도 많았다. 거주지역도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이 37명, 그 외 지역 16명이었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 선정은 연구진의 네트워크와 조사 접근성이 수월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주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구술자를 찾기가 수월하지 않아서 전국 권역의 조사와 성별에 따른 할당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심층면접은 구술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록을 작성, 분석하였다. 피면접자에게 면접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비밀보장 및 익명성에 관해 확인해 주고 면접을 시작하였다. 면접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 대면 면접과 온라

인, 전화를 활용한 방법을 혼용하였다. 구술자의 자택 또는 경로당, 카페에서 만나거나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인터뷰, 전화를 통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와 구술생애사는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특히 구술생애사 면접 시 인터뷰는 가능한 한 구술자를 중심으로 그의 서사 구조를 따라가는 방법을 취했다. 먼저 개략적인 생애과정을 청취하고, 유년기(원가족과 가족관계, 학교 교육), 청년기(취업, 결혼, 일 경험), 중년기(가족관계, 일 경험), 노년기를 거치면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 주변화 경험을 중심으로 구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술자와 면접자가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구술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자는 구술자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입장(from the native's point of view)에서 인터뷰와 분석을 수행했으며, 인터뷰 진행 시 면접자의 개입은 구술자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최소로 이루어졌다.

면접지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표 4-1〉 참조)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상적 삶(가족, 경제활동, 건강, 돌봄, 사회참여)과 노인 인권, 정책욕구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4-1〉 심층면접 질문지

영역		주요 내용
일상적 삶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일과가 어떠신가요? • 현재 가족과 함께 사시나요? • 근처에 가족이 있으신가요? 자주 왕래가 있나요? 얼마나 자주 왕래 하시나요? • 자녀나 배우자 등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받고 계신가요? • 어떤 가족과 함께 사시나요? •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가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들과 관계는 어떠신가요? 함께 지내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경제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연금 및 근로소득 등을 다 합쳐서 한달 생활하시는 데 충분하신가요? • 그 이외의 소득이 있으신가요? (손자녀 돌봄,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 등) • 남은 생애동안 경제적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돌봄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하십니까? 1주일 기준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나요? •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십니까? • 평생 음주와 흡연을 얼마나 하셨나요? 음주와 흡연에 대해 특별히 조언을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 평소에 하고 계신 건강관리는 있으신가요? • 건강검진은 받고 계시는가요? 병원에는 얼마나 자주 정기적으로 가시나요? • 평소 건강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할 사람이 있나요? • 몸이 불편한데 치료받지 못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셨나요? • 우울감을 경험할 때, 특별히 하신 조치는 무엇인가요?
일상적 삶	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분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 평소 노인회관이나 문화센터 등에 다니시나요? • 하루에 텔레비전 등 유튜브 시청은 얼마나 하시나요? • 노인회 등의 활동에 참여하시나요? 참여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평소에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으신가요? • 여가시간 등에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노인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주변의 시선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노인들이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 언론이나 미디어/텔레비전에서 노인을 우습게 묘사해서 불편함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 한국 사회가 노인 인권에 대해 얼마나 존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역	주요 내용
정책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가장 어려운 점과 고민은 무엇인가요? • 한국에서 사는 노인들의 삶은 어떤 것 같나요? •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노년의 삶은 무엇인가요? • 한국 정부 차원에서 노인 인권과 삶 부분에 있어 지원이 가장 시급한 영역은 어떤 부분인가요?

심층 면접에 참여한 55명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2〉 심층면접(생애구술사) 참여자

번호	성별	연령	거주지	가구 소득	가족	동거가족	기타	구술사
1	여성	78	서울	50만원	자녀(딸1)	딸		
2	여성	78	서울	50만원	자녀(딸1)	딸		구술자S
3	여성	74	서울	50만원	자녀(딸1)	없음		
4	여성	78	서울	-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장애)	구술자T
5	여성	82	서울	50만원	자녀(아들1)	없음		
6	여성	83	서울	50만원+@	자녀(아들2)	없음		
7	여성	84	서울	50만원	자녀(딸1)	없음		
8	여성	81	서울	50만원	자녀(딸2)	없음		
9	여성	82	서울	47만원	자녀(딸1)	없음	딸 (해외거주)	구술자R
10	남성	82	서울	85만원	자녀2	없음		
11	남성	83	서울	60만원	배우자, 자녀3	없음		구술자Q
12	여성	86	충남	50만원	자녀(딸1)	없음	재혼	

번호	성별	연령	거주지	가구소득	가족	동거가족	기타	구술사
13	여성	69	경기	50만원	자녀(딸1)	남자친구		
14	여성	88	경기	50만원	자녀(딸)1	없음		
15	여성	77	경기	90만원	자녀(딸4, 아들1)	손주	손주(장애)	구술자B
16	여성	89	경기	50만원	자녀1	아들, 며느리	아들2 사망	
17	여성	76	경기	150만원	자녀(아들2)	여자친구		
18	여성	68	경기	근로소득 (90만원)	남편, 자녀3	없음	요양보호사 남편별거	
19	남성	76	대구	기초수급	아내, 자녀(아들1)	아내, 아들	월남전	
20	남성	77	대구	기초수급	아들2, 딸2	아들	아내 사망 장애5급	
21	남성	76	대구	기초수급	아내, 아들2	아내, 아들		구술자O
22	남성	84	대구	80만원	아내, 자녀3(아들1, 딸3)	아내		
23	남성	86	전북		아내, 자녀(3남1녀)	아내		
24	여성	75	경기	기초수급	남편, 자녀2	남편		구술자M
25	여성	65	경기	기초수급	남편, 자녀2	남편	청소	구술자 N
26	남성	74	경기	100만원	자녀(아들1)	아들	장애연금	구술자 D
27	여성	75	경기	47만원	자녀(아들2)	아들2		
28	여성	78	경기	-	자녀(딸2)	딸2		구술자C
29	여성	82	경기	-	자녀(2)	딸2		
30	남성	85	경기	-	배우자, 자녀(2)	배우자		

번호	성별	연령	거주지	가구소득	가족	동거가족	기타	구술사
31	남성	86	전북	-	배우자, 자녀(4)	배우자		
32	남성	70	전북	150만원	배우자, 자녀(2)	배우자		구술자P
33	남성	74	전북	200만원	배우자, 자녀(2)	배우자		
34	남성	79	전북	150만원	배우자, 자녀(3)	배우자		
35	남성	78	대구	50만원	자녀(2)	없음		구술자A
36	여성	72	인천	64만원	자녀(아들1)	없음		
37	여성	70	인천	70만원	자녀 (아들1, 딸1)	배우자		구술자L
38	여성	74	경기	55만원	자녀(아들1, 딸1)	없음		구술자K
39	여성	83	경기	50만원	없음	없음		구술자I
40	남성	80	충북	80만원	자녀(아들3, 딸1)	배우자		구술자J
41	여성	74	경기	55만원	자녀(아들1)	없음		
42	남성	77	충남	100만원	자녀(아들2)	배우자		
43	여성	85	충남	57만원	자녀(딸5, 아들1)	없음		
44	여성	80	충남	20만원	자녀(8남매)	없음		
45	여성	95	충남	30만원	자녀(아들1)	아들, 며느리, 증손자		
46	여성	72	서울	수급비	자녀 (아들1, 딸1)	없음		구술자 F
47	여성	69	서울	수급비	자녀(아들1, 딸1)	없음	딸 해외거주	구술자 H

번호	성별	연령	거주지	가구소득	가족	동거가족	기타	구술사
48	남성	71	충북	기초연금	자녀(아들2)	없음	장애 (다리절단)	구술자 E
49	남성	77	충북	100만원	자녀(아들2)	없음		구술자 G
50	남성	61	충남	70만원	없음	없음		
51	여성	80	충남	40만원	자녀(5남매)	남편	남편 아픔	
52	남성	63	충남	100만원	자녀(아들3, 딸1)	아내		
53	여성	74	경기	70만원	자녀(아들2, 딸1)	혼자		
54	여성	83	경기	밝히지 않음	자녀(딸2, 아들1)	혼자		
55	여성	67	인천	360만원	자녀(딸3, 아들1)	남편, 딸	딸 우울증	

이후 분석은 생애구술사를 완료한 20명을 중심으로 하였다. 생애사에 참여한 남성은 8명, 여성은 12명이었으며, 거주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이 14명, 비수도권이 6명이었다.

개별 사례별로 유소년기-청년기-중년기-노년기의 흐름에 따라 생애사의 주요 사건과 생애 주요 과정으로 전이와 전환에서 경험하는 박탈과 빈곤 경험을 포착하고 구술자에게 부여되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특히 빈곤으로 인한 주변화된 일상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일 경험, 주거, 가족/사회적 관계 등에서 불안정한 일상의 맥락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 구술생애사 사례별 분석 결과

1) 사례1-구술자M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M은 1948년 충청남도 유석면에서 1남2녀 중 첫째 딸로 태어났다. 논산훈련소에 가까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늘 총소리를 들으면서 살았고, 아주 어렸을 때지만 기억은 생생하다. 한국전쟁 때 전라북도 진안군으로 이사했다. 4살 때 친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는 재혼하게 되고, 그때부터 새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루 세끼 죽만 먹었다. 구술자M은 9살 때 우연히 동네 언니를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된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게 되고, 더는 아버지의 폭력을 견딜 수 없어 20살이 되던 해 가출하게 된다. 그때부터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식모’일을 하게 되었다. 구술자M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은 절대적이다. 신앙으로 연결된 사람들로부터 ‘식모’일을 소개받게 되고, 현재 남편과 결혼하는 데도 조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었다. 1남1녀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 제대로 일을 한 적 없는 남편으로 인해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현재는 복지관에서 청소 일을 해서 27만원을 받는다. 앞으로 남은 노후가 걱정이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

- 1947년 충청남도 유석면 출생
- 1966년 가출
- 1966년-1970년 방직공장 취업
- 1970년 결혼
- 2021년 복지관 노인일자리 청소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밥도 안 주고 밭일도 다 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얼음 깨고 빨래하고....

구술자M은 4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되고, 아버지는 바로 재혼하게 되었다. 당시 너무 가난해서 하루 두 끼 죽만 먹고 살았는데, 새어머니는 구술자M에게만 집안일을 시켰다. 새어머니가 집으로 오신 후 낳은 딸과의 차별 대우도 심했고, 집안일 대부분은 어린 구술자M의 몫이었다고 했다. 집에 거의 계시지 않았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새어머니 딸인 동생은 집안일을 전혀 안 시키고 키웠는데, 구술자M은 학교 가기 전부터 계속 일을 했고, 심지어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학교에 가지 못한 적도 많았지만 부당한 노동이라는 인식은 없었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알리지조차 않았다.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하다.

Q. 어렸을 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A. 저희가 엄청 가난했어요. 4살에 엄마가 병 걸려서 죽어서 엄마 얼굴도 몰라요. 이후에 새엄마를 아버지가 데려오긴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멀건 죽을 아침, 저녁으로 한 그릇만 먹었어요.....남매랑 새엄마랑 살 때 나를 일을 너무 많이 시켰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줄 알고 계속 그러고 힘들 게 엄청 집안일이랑 다 하고 살았어요. 산에 가서 나무 해오면 밥을 줘야 하는데 밥도 안주고 밭일도 다 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얼음 깨고 빨래하고 옛날에 정말 계모였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② 예수 믿는다고 시골에 장작으로 등을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구술자M은 9살 때 우연히 동네 언니를 따라간 교회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아버지의 핍박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유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였다. 그렇지만 구술자M은 유일하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교회에 가는 일이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폭력이 계속되었지만 어린 나이에 가출을 감행하면서까지 교회에 갔다. 반복되는 아버지의 매질이 무서워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Q. 어릴 때 혼나면 교회를 안 가는 걸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A. 예수 믿는다고 시골에 장작으로 등을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하고 문밖에 엄마가 있어도 말려주지도 않아서 죽게 생겨서 집 나가서 며칠 동안 집 안 들어가고 그랬어요. 저는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기 업고도 몰래 교회 가고 그렇게 교회에 갔어요. 그때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했던 찬양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는데 못 가게하고

③ 근데 돈은 하나도 안 주고 시집갈 때 가져가라고요.

구술자M은 초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서울로 상경하게 된다. 옆집 언니의 도움으로 서울 가정집의 집안일을 해주는 일이었다고 한다. 총 9식구의 심부름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1년 정도 그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서울에 다른 연고가 없었던 구술자M은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일단 숙식이 해결된다는 것은 큰 장점이었다. 있으면서 다소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자신과 같은 또래 은행장 딸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추운 날 찬물에 양말을 빠는 자신의 처지와 비교가 되기도 했고,

서러움에 혼자 온 적도 많았다. 그 집 일을 1년 정도 해주면서 결정적으로 나오게 된 계기는 은행장 딸의 폐결핵 때문이었다. 구술자M은 스스로 정직하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본인의 성격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이런 그에게 있어 폐결핵이라는 전염병을 속였다는 것은 큰 상처가 되었다. 폐결핵에 걸린 딸이 죽고 난 후, 구술자M은 일을 그만두었다. 일을 시작하면서 월급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두면서 받은 것은 옷감과 한복이 전부였다.

Q. 그럼 집에서 나오신 이후로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A.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보기만 하면 때려서 무서워 가지고 조합장이라고 옆집에 사는 분이 자기 언니네 집이라고 을지로인가 서울에 가라고 해서 그 집에 1년 있는데 거기 식구가 9이였어요. 딸이 4명이고 아들이 2명인데, 그 집에서 심부름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시장도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는 제가 빨리하고 교회 다녀왔는데 그 집 주인이 은행장이었는데 국에 발을 데었대요. 근데 저 때문이라고 저한테 뒤집어씌우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이 좁잖아요. 밤에 첫째 딸은 시집가고 둘째 딸이 대학을 다녔을 텐데. 추운데 찬물로 양말 빨라고 그래서 서러워서 울었어요. 제가 거기서도 1년 있었는데 거기 있기 싫어서 그만 있겠다고 한 게 셋째 딸이 예뻐는데 폐가 결핵에 걸렸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같이 살고 딸이 먹던 것도 먹고 그랬는데 괜찮았어요. 항상 다 따로 하는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추석에 집에 갔다 왔더니 그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 있겠다고 했죠. 근데 돈은 하나도 안 주고 시집갈 때 가져가라고 요 껌데기랑 나일론으로 된 한복 한 벌이랑 무슨 옷감 두 벌 그렇게 주고 보내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 없고 밥만 먹여줬어요.

(2) 청년기

① 집 가면 교회 다닌다고 때리고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은행장 집에서 나온 이후로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전주에 가서 다른 가정집 일을 맡게 되었는데,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다. 이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버지의 폭력을 피할 수 없었고, 가출을 반복하게 되었다.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다시 작은집 일을 도와주라는 아버지의 제안에 작은집으로 가게 되지만,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고된 노동과 구박으로 인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의 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었고, 다시 집을 나가게 되었다.

Q. 그 집에서 나오신 이후로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A. 친구 집 다니면서 살고 전주에도 가서 6개월인가 1년 밖에 못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집 갔다가 매 맞고 또 도망 나오고 그랬어요. 작은 집에서 일해 주라고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거길 갔는데 작은엄마가 날 엄청 구박했어요. 지금 이야 가끔 용돈도 드리고 잘 해드리는데, 밭에서 일 하는데 호미질에 손이 다 물집 터져서 피나고 그랬는데 일 못한다고 작은엄마가 구박해요. 그렇게 또 집 가면 교회 다닌다고 때리고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구술자M은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전주, 부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살았다. 당숙모의 소개로 일하게 된 곳은 방직공장이었다. 중간중간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는데, 결정적으로 집을 나오게 된 계기는 아버지가 “뽑추한테 시집보내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당시 구술자M 대신 뽑추에게 시집간 친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매를 너무 맞아서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한다. “너 여기 있으면 뽑추한테 시집간다고” 알려준 사

람을 은인이라고 생각한다. 구술자M은 당시 여성으로서는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해서 살아갔다. 부모의 반복되는 폭력과 부당한 노동을 견디다가 어린 나이에 가출을 감행하고, 꼽추에게 시집갈 뻔했던 상황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 물론 구술자M의 판단의 중심은 예수를 믿는 것이었다.

Q.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오셨을 때 가족과 연락은 어떻게 하셨어요?

A. 연락 안하고 1년인가 있다가 집을 갔어요. 그리고 22살 때 집에 갔더니 저 몰래 저를 꼽추한테 시집보낸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하얀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그런 치마에 저고리 입은 분이 앉아있는 저한테 오다니, 너 여기 있으면 꼽추한테 시집간다고 알려줘서 급하게 보따리 싸서 금산가는 버스 타려고 했는데 버스가 출발해버려서 그때 그냥 그 발로 뛰어서 그렇게 대전까지 갔어요. 발이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숙모네 대전 집으로 가가지고 방직공장 다녔어요. 내 친구가 그래서 그 집으로 시집갔는데 남자는 꼽추인데 시어머니랑 시누한테 하도 매 맞고 살아서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골 밭을 파가지고 먹고 사는데 맨날 그렇게 매 맞고 시누랑 시어머니가 때려서 그렇게 울면서 살았대요. 꼽추 남편은 죽었는데 지금 하도 맞고 살아서 몸에 병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거기로 시집갔으면 저도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② 거기서 남편 만나서 여기서 살게 됐죠.

집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잠시 있다 또 나오게 된다. 이번에도 구술자M의 목적지는 서울이었는데, 교회 장로의 딸과 같이 있게 되었고, 조건은 은행장 집에서 받은 옷감이었다. 그때 받은 옷감이 일종의 '집세'인 것이다. 그 집에 있으면서 취직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가 많아(당시 24살) 취직이 쉽지 않았다. 어렵게 찾은 취직자리는 고무 공장이었는데, 냄새가 너무 나

서 견디기가 어려웠다. 고무공장 일은 일주일 만에 그만두었는데, 노동환경 때문이 아니었다. 구슬자M은 다른 환경은 모두 감내할 수 있었는데, 일요일에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것으로 일을 그만두었다. 일주일 일한 주급도 받지 못하고, 그 길로 그냥 나와 버리는 것을 선택했다. 구슬자M에게 있어 신앙은 어린 시절부터 절대적이었고, 삶의 기준이 되었다. 이후 코르크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Q. 그 집에서 나오신 이후로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A. 그냥 갔는데 집에 못 있겠어서 또 나왔어요. 서울 영등포에 딸 둘이 자취하고 해태제과 다니는 장로님 딸이 있었거든요. 그 집으로 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옷감을 달라고 해서 주고 좀 같이 있었는데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취직은 못하고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고무공장이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24살인가 그랬거든요. 거기를 찾아가니까 신발 만드는 공장인데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기름에 장화 닦아서 놓고 운동화도 만들어요. 거기에서 일주일 있다가 나왔어요. 힘들어도 그냥 다 일해요 저는. 근데 일요일에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못 받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친구집에 있다가 그 동생이 안양에 작은 회사를 소개시켜줬어요. 병마개 코르크 만드는 공장 알려줘서 아줌마들이랑 파치 고르는 것 하다가 거기서 남편 만나서 여기서 살게 됐죠.

(3) 중년기

① 일주일에 3만원주고 5만원 주고 그렇게 20년 살았어요.

구술자M은 공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일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평생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남편으로부터 평생 생활비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구술자M은 교회에서 근근이 일하는 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오히려 노인 일자리로 현재 복지관에서 청소 일을 하는 지금이 젊을 때와 비교하면 더 안정적이다.

Q. 결혼하고 나서, 생활은 어떠셨어요?

A. 생활비 안주고 어디 20년 사업한다고 돈도 안 되는데 일주일에 3만원주고 5만원 주고 그렇게 20년 살았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내 몸이 부서지게 생겼는데 요즘 조금 나아져서 복지관에서 그거라도 버니까 좀 먹고 사는 거죠.

② 애 낳을 때도 둘 다 죽다 살았어요. 병원에도 안 보내주고

결혼 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산부인과를 제대로 가지 못했고, 조산소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첫째 아이를 잃게 되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계속되는 가슴 통증으로 몸도 좋지 않았다. 몸이 좋지 않으면, 구술자M은 병원에 가기보다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방법으로 버텼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병이 싹 낮게 되는 경험도 여러 번 하게 되었다. 조산소의 잘못된 처방이 있었지만, 열심히 기도한 덕에 살아났다. 그러나 그때의 후유증은 몸에 남게 되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Q. 결혼하고 나서, 생활은 어떠셨어요?

A. 결혼하고 나니까 가슴 속이 다 썩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눈만 뜨면 가슴 속이 아파서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집안일 청소 다 하고 누우면 겨우 저녁밥 할 때만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새벽기도 안빠지고 다니겠다고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병이 싹 낫더라고요. 그 외에도 애 낳을 때도 둘 다 죽다 살았어요. 병원에도 안 보내주고 그래서 하루 전날 애가 너무 안 나오니까 무서워서 혼자 병원에 갔는데 조산소에서 아래에 약을 넣어주더라고요. 조산소에서 애를 떨어지는 약을 넣어준 것 같아요.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죽은 애기를 낳았어요. 자궁에서 시커먼 게 계속 나오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냥 나왔어요. 첫째도 죽고 두 번째 애도 죽다 살아서 낳았어요. 나중에 서른 살에 또 하나 낳으려고 했는데 낳다가 죽다 살았어요. 지금도 자궁 꼬맨 곳이 가끔 아파요.

③ 저는 음악이 너무 좋고 피아노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40살에 기를 쓰고 배웠어요.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았던 구술자M은 당시 어린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중학교에 가지 못했다.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음악이 좋아 악기가 배우고 싶어서 40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성경이 좋아, 성경을 그대로 베끼는 일은 지금도 하고 있다. 비록 피아노는 계속 배우지 못했지만, 교회 성가대 활동도 하고, 찬양도 배우면서 생활하고 있다. 구술자M에게 교회는 학교이자, 친구이자, 선생님이기도 하다. 예능에 재능이 있었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딸은 없는 살림에 대학까지 보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많았다.

Q.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하셨어요?

A. 공부하고 싶었어요. 말도 못해요. 동네 할아버지가 천자문 알려준다고 그래서 한 달 다녔는데 저만 남아서 못 가고 중학교도 가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A, b, c 몇 번 배우고 다른 애들이 다 관둬서 또 못가고. 전 그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써요. 저는 음악이 너무 좋고 피아노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40살에 기를 쓰고 배웠어요. 끝까지는 못했지만. 찬양이 너무 좋아서 성가대를 했었어요. 딸도 손녀도 다 미술해요.

④ 사랑의 매를 때려야 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구술자M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절대 매를 들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구술자M은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 자녀들은 구술자M보다 아버지와 훨씬 가깝고, 평소에 연락도 어머니 대신 아버지와 나눈다. 자녀들이 그렇다 보니 손자녀들도 마찬가지이다. 자녀들을 키울 때 남편과 의견 차이가 많았고, 아이들 편을 많이 남편은 전적으로 아이들 편을 많이 들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아이들을 때리지 않아 후회된다.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같다.

Q.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A.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때리고 구박했을 때요. 그리고 남편이랑 살면서 자녀 교육 시킬 땐 나는 기도하고 애들 때리지는 않았는데 그게 후

회되죠. 딸이 학교 다닐 때 맨날 사리판단 좋고 머리 좋다고 칭찬받고 다녔고 애들은 마음이 착했거든요. 근데 부모를 안 섬겨요. 때리지를 않아서 그런가봐요. 지금 사람은 때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랑의 매를 때려야 해요. 그리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다 자식편만 들고 남편도. 그래요.

(4) 노년기

① 나는 외톨이에요

구술자M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 이유는 자신의 신앙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강요해서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럴수록 구술자M은 자신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녀와의 관계도 서먹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 더욱더 하나님에게 의지한다. 신앙으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핍박받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

Q. 자녀들과의 현재 관계는 어떠세요?

A. 말도 잘 안 듣고 지금도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나는 외톨이에요. 친척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안 좋아하고 자녀들도 내가 너무 신앙을 강요해서 그런지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외로워서 내 친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도 잘 안 듣고 지금도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나는 외톨이에요. 친척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안 좋아하고 자녀들도 내가 너무 신앙을 강요해서 그런지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외로워서 내 친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② 너무싼 곳에 가서 잇몸이랑 앞니를 다 갈아서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평생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남편에게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받은 적이 거의 없었고, 현재도 그렇다. 치과 진료를 계속 미뤘고, 제대로 된 치과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얼굴이 이상해져 버렸다. 속상한 마음에 복지관에서 일한 돈과 기초연금을 꾸준히 모아서 임플란트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임플란트를 하기에 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틀니로 생활하고 있다.

Q. 건강은 어떠세요?

A. 네 근데 남편이 먹을 것만 사주지 돈 한 푼도 안줘요. 돈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제가 이가 약해요. 돈 없다는 핑계로 이 망가지고 다 빠지고 앞니밖에 안 남아서 틀니를 하게 됐는데, 너무싼 곳에 가서 잇몸이랑 앞니를 다 갈아가고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돈을 700만원 모아서 임플란트를 아래만 하고 위에는 다 틀니예요. 근데 지금 병원싼 곳으로 잘못 가서 다 틀니죠. 남편은 죽어도 돈을 안 써요. 자기 옷도 다 내 돈으로 사고 그랬어요.

③ 빚이 1500만원이 있어요. 딸이 결혼할 때 생긴 빚인데 사위가 이자만 갚고 있어요.

딸의 결혼으로 인해 생긴 빚 1,500만원은 현재 사위가 이자만 갚고 있다. 빚이가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빚이 있는 것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딸과 사위도 생활이 어려워서 갚으라는 독촉을 하지는 못한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지만,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이다. 경제적으로

로는 늘 어렵지만, 특별히 어려웠던 적은 딸이 하는 사업을 도와주었을 때였다. 한번 일을 시작하면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므로 몸이 성하지 않다.

Q. 현재 생활은 어떠세요?

A. 빚이 1500만원이 있어요. 딸이 결혼할 때 생긴 빚인데 사위가 이자만 갚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아니면 한시도 못 살아요. 저는 그나마 병원 입원한 적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죠. 딸이 무슨 아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괜찮다고 그래서 그렇게 뭘 돌이 했는데, 차라리 나가서 돈을 좀 벌어서 보태주는 게 낫지 남편은 거기 종일 있고 그 때 어려운 건 말도 못해요. 그때 20만원씩 받고 수원까지 16만원 받고 다니고 그렇게 일했더니 팔 마디가 힘줄이 늘어나서 팔이 아파서 뭘 하지를 못해요. 초등학교 가서 애들 배식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왜 그런지 열심히 일을 자꾸 해요. 그래서 몸이 다 망가졌어요. 제가 바보죠 뭐,,,

2) 사례2-구술자N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N은 충남예산에서 2녀 1남 중 장녀로 태어났다. 여동생과 남동생은 모두 대학을 갔지만 대학을 가지 못했다. 여동생은 몸이 약했고, 남동생은 남자였기 때문에 집안일은 늘 구술자N 차지였다. 가정형편은 어렵지는 않았는데, 어린 시절 기억은 부모에게 맞은 기억이 전부이다. 부모의 폭언과 폭행은 계속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남동생이 서울로 유학을 하게 되어 동생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서울로 올라온 후, 현재 남편을 만났는데 부모의 반대가 심해 먼저 임신하게 되었다. 30대부터 강박증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게 되지만 쉽지 않다. 어린 시절 부모의 폭행이 현재 강박증이 되었다는 심리치료사의 진단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나아지지는 않았다. 일 년 넘게 정신과 약도 먹었지만, 부작용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고 끊게 되었다. 현재 고민은 손녀와 자신의 건강 문제이다. 다니는 교회 집사의 소개로 롯데 몰에서 하루 3시간씩 6일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육체적으로 매우 고단하다.

- 1953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 1972년 서울 상경, 취업, 남동생 뒷바라지
- 1979년 결혼
- 1983년-1986년 강박증 증세, 정신과 및 심리치료 병행
- 1990년-1995년 식당 주방일
- 2021년 쇼핑몰 청소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 ① 우리 집은 나만 일을 시키니까, 왜 나만 시키냐고 대꾸했다고 그렇게 때렸어.

구술자N은 장녀이다. 다른 집에 비해 부유한 편이었지만 불행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남동생은 남자라고, 여동생은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집안일은 유독 구술자N의 몫이었다. 다른 가정은 구술자N의 집보다 훨씬 가난했어도 행복해 보였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거의 매일 맞았다. 반복되었던 욕설과 매질. 그렇게 구술자N의 어린 시절은 얼룩졌다. 나무에 묶여 보기도 했고, 묶인 채로 맞기도 했다. 주변에서 말려도 부모님은 소용없었다. 부모 중 한 명만 말렸어도 덜 맞았을 텐데. 단순한 체벌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는 멈추지 않았다.

Q. 어린 시절 이야기 들려주세요.

A. 근데 우리 집은 나만 일을 시키니까, 왜 나만 시키냐고 대꾸했다고 그렇게 때렸어. 우리 엄마가 너무 무식했어. 때릴 때 무서우니까 도망가잖아요. 잡히면 반 죽게 맞아. 하도 맞아 버릇 하나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2때까지 맞았어. 그때 성격이 형성되는데 도망간다고 이놈의 지지배, 하면서 욕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안 때린다고 해서 들어가면 물어 뜯고 끌고 다니고 아주 그렇게 때려. 내가 겁도 많았거든. 매일 맞아. 미친년 똥년 주둥이를 찢어놓을 년 그렇게 욕해. 그리고 아침에 추운데 일어나서 엄마랑 밥을 차릴 때 수저를 놓든지 마루라도 쓸던지 해야 해요. 일 안하고 밥만 먹으면 미친년이 가만히 앉아서 밥

만 먹는다고 욱이란 욱을 다 하고 그래서 맨날 울었어. 매일 때리고 욱하고 그랬어. 아버지도 하도 나만 시켜대니까 왜 나만 시키냐고, 그래서 주둥아리 찢어야 된다고 저를 묶어서 거꾸로 매달았어요. 그래서 정자 아세요? 거실에 나무에 나를 묶었어. 그래서 매달려서 죽도록 맞았어요. 옆에 세사는 할머니가 아저씨, 애 죽는다고 뭐가 잘못됐다고 애를 그렇게 죽이냐고 하는데 신나서 때려. 근데 옆에서 엄마가 저년 더 죽이라고, 더 죽이라고 그래. 보통 엄마는 말리잖아. 근데 더 때리래. 경운기 매는 줄 엄청 두꺼운 고무줄 가져와서 나를 내려쳐, 그래서 내가 아주 반 죽었지.

② 그래서 죽도록 걱정하니까 안 때리네? 싫은 거예요.

구술자N은 늘 맞을까 봐 걱정했다. 그때부터 걱정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 날도 마찬가지로 맞을까 봐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부모는 때리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고 한다. 강박증이 생겼고, 사소한 일도 걱정하는 버릇이 생겼다. 왜냐하면, 걱정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술자N의 강박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Q. 어르신이 막내이신거네요?

A. 아버지 앞에서 문 세계 닫았다고 핵대로 때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때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때리고 그렇게 하도 맞아서 한 번은 무슨 일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맞게 생겨서 벌벌 떨고 걱정을 했는데 그날 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걱정하니까 안 때리네? 싫은 거예요.

③ 저만 고등학교 나오고 다 대학 나왔거든요.

늘 일만 했던 어린 시절, 남동생은 남자라고, 여동생은 막내라고 대학을

보냈다. 비교적 부유한 편이었지만 구술자N은 대학을 가지 못했다. 부모가 대학을 못 가게 하지는 않았지만, 고3 때 갑자기 몸이 자궁 위가 아픈 증상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지나치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죽을병 걸린 것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공부하는 시간에도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느라 성적이 떨어졌다. 원래는 교사가 꿈이었다. 가까운 공주 사대를 가려고 했지만, 성적이 떨어져 갈 수 없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전문대 시험을 봐서 합격했지만 진학하지 않았다.

Q. 장녀여서 다른 대우를 받으셨나요?

A.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게 제가 큰 딸이고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어릴 때 백일해다 뭐다 엄청 아팠대요. 맨날 기침하고 콜록거리다 살아나서 개는 산 것만으로도 감사했겠죠. 나랑 두 살 차인데 개는 동안초 영양사예요. 저만 고등학교 나오고 다 대학 나왔거든요. 성인 될 때부터야. 제가 공부를 잘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궁 위가 아픈 거예요. 계속 아파서 막 고민을 했어요. 이게 죽는 거 아닌가? 싶고 공부도 하나도 안 되더라고. 야자할 때도 그 생각 하느라 공부를 못 하니까 성적이 푹 푹 떨어지더라고. 시골에서 우리 때는 공주교대 사대 나오면 임용고시도 없을 때가 다 선생님 됐거든. 근데 다른 곳은 내가 취직을 해야 하니까. 근데 공주교대 떨어지고 전문대 붙었는데 나와서 뭐해요. 교대나 사대 아니면 취직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학 안 가고 서울 올라와서 동생 뒷바라지한 거지.

(2) 청년기

① 남편을 하도 반대하니까 임신해서 결혼해야겠다 싶어서 임신했어요.

당시 현재의 남편과 연애를 했던 구술자N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결심했다. 반대가 너무 심해져서 혼전임신을 결심하게 되었다. 임신하고 나서, 한동안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고, 2년 동안 부모와 왕래하지 않고 살았다. 부모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지만 2년간 어머니를 보지 않으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당시 구술자N의 친정과 시댁은 가까운 지역이라 모두 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친정에 비해 가난했던 시댁의 경제적 상황과 남편의 학력으로 인해 부모의 반대가 심한 결혼이었다.

Q.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A. 떨어져 사는데 남편을 하도 반대하니까 임신해서 결혼해야겠다 싶어서 임신했어요. 엄마가 너 그 새끼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끌고 내려왔어요. 시골로. 그래서 개랑 헤어졌다고 해놓고 서울에서 다시 만나서 임신해서 한동안 못 갔지. 근데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 2년 동안 못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배운 놈하고 해야 한다고, 친정이랑 시댁이랑 가깝거든요. 차로 한 20분이라 정보 들으면 다 아는데 시댁이 정말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다 못 마치고 그래서 반대했지!

근데 심리학자가 나보고 왜 가출을 안 했냐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시골에만 살고 서울 한 번 안 와봤는데 해만 떨어져도 못 나가게 했거든요. 아버지가 미친 년 남자 만난다고. 근데 어떻게 가출을 해요. 그렇게 힘들게 컸어요. 근데 가난하게 살았던 시골 친구들 보면 XX가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고 그래요. 명희가 원래 활발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② 서울대 정신과를 갔어. 30대 초반에 그랬어요.

강박증의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결혼 후, 30대 초반부터였다. 어느 날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응급실에 실려 갔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

었다. 강박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우연히 10년 정도 정신과를 다닌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10년 동안 병원에 다녀서 바보가 되었다는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듣고 정신이 바짝 차려졌다. 정신과 약을 끊기로 했지만 쉽지 않았다. 길을 가다가도 약이 너무 먹고 싶었고, 약을 참는 일이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차츰차츰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약을 끊게 되었고, 죽기 전까지 정신과 약을 절대 먹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다.

Q. 본격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건 언제부터였어요?

A. 원래는 정신착란 있고 이런 사람이 가는 건데 제가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병원 가니까 안정제를 놔주고 신경성이라고 신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가게 된 거지. 그게 내 병의 강박증으로 온 거지. 그 일이 무의식에 박혀서 내가 계속 걱정을 해야만 나는 또 사는 거야. 내가 걱정하면 또 집착을 하거든. 숨이 안 쉬어져서 죽는다고 응급실 실려 가고 눈만 뜨면 그런 생각이 자꾸나. 그래서 서울대 정신과를 갔어. 30대 초반에 그랬어요. 우리 큰 딸이 한 5, 6살일 때 그랬어. 그래서 병원 갔더니 거기서 아줌마는 걱정하는 게 병이래. 정신만 있으면 걱정을 한다고 2년을 약을 먹었어. 강박증은 스스로 마음을 돌려야 고쳐지는데 못 돌리니까. 내가 떨쳐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약 주면 먹고 맥없이 잠만 자고 그랬어. 근데 서울대 의사 갔는데 내 또래 60대 같은데 신랑 팔짱 끼고 걸어오더라고. 그 분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10년 정신과 다녀서 바보가 됐다. 그거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그래서 끊어야겠다 싶어서 약을 끊으려고 했는데 끊을 수가 없어. 약을 안 먹으니까 죽겠더라고. 그래서 친정식구 오라고 해가지고 혼자 못 끊으니까. 정신과 약이 독하고 힘든걸 아니까 길거리 가다가 약이 너무 먹고 싶어서 고꾸라지게 생겼어. 그래서 시장 살 때 길거리 가다가도 그 약이 생각나 시간만 쳐다봐. 30분 지났구나. 2시 됐

구나. 이렇게. 그렇게 약이 생각나면 그거 참는 게 너무 힘들었지. 그게 며칠 지나니까 좀 점점 나아져서 그렇게 끊었어.

(3) 중년기

① 심리치료사한테 1년 받고 정신과 의사한테도 1년 받는데.

구술자N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한다. 심리치료사에 따르면 어릴 적 부모의 학대가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달리 방법은 없다. 부모와의 화해를 시도해 보기도 했지만,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아직도 구술자N의 귀에는 부모가 했던 욕이 생생하다.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더욱더 나의 부모가 이해되지 않는다.

Q. 이후에는 정신과 치료 또 받으신 적 없으세요?

A. 심리치료사한테 1년 받고 정신과 의사한테도 1년 받는데, 그냥 얘기만 들어 주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간 건데, 그냥 얘기만 들어줘. 지금 유명해진 사람도 있어. 내가 정신과 가면 녹음을 해가지고 나만 말시켜. 자기가 스스로 터득해서 돌려야 된대. 그래서 내가 왜 그래서 그렇다는 대답만 해줘요. 한 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걸 왜 그래서 그렇다 알면 뭐하냐고 고쳐줘야지. 걱정하면 안 맞네, 그게 무의식에 생기고 걱정해야 나한테 불안한 게 안 나타나고 불안한 것이 덜 불안하게 나한테 안 덕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걱정을 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슬퍼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무슨 년을 육식 렐년 염병할년 이게 귀에 쟁쟁해. 거기에 한이 맞았어. 네가 일 안해서 뭐해서 그런 거 내 새끼한테 한 번도 안했었지. 근데 내가 다정하게 또 사랑한다고 그렇게도 안 했거든. 내가 자식은 너무너무 생각하는데 그걸 표현 못 한 게 아쉽

지. 어디 아프다 하면 몸져눕고 교회가서 기도하고 하니까 어디 아프면 엄마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그래. 아빠하고만 얘기해.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나는 조직검사 하면 일주일동안 밥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나가떨어지거든, 다른 사람은 그렇게 걱정 안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더 괜찮아. 결과도 더 좋아 다 괜찮아. 근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야지 나도, 하면서도 나도 똑같이 계속 내 무의식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거야.

(4) 노년기

① 결론은 죽을까봐 무서운거야

구술자N은 심리치료사의 치료를 병행한 후 자신의 병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원인은 알지만 결과적으로 과거의 일을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왜 내가 계속 이런 생각을 할까?”를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었다. 구술자N에게 죽음은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어지는 병 또한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구술자N은 강박증으로 인해 공포가 더 심하다.

Q.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A. 근데 진짜 다 괜찮아. 걱정이 다 사라졌어. 그러면 그게 일주일을 못가. 그게 허전해서 그런 거래. 별거 아닌 걸 또 가지고 와서 걱정해. 별거 아니면 또 괜찮아 지는 듯 했다가 또 걱정 하고 뭐 좀 그런게 다 있어. 병 강박증도 결론은 죽을까봐 무서운거야. 저는 병이 무서운 게 희귀병, 암 이런 게 무섭거든. 그게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 거래.

② 좀 쉬고 싶어서 다닐까 말까 지금 고민중이에요

구술자N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강박증에 대한 생각을 떨치기 위해 몸을 바빠 움직이려고 노력한다. 집 근처 쇼핑몰에서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다. 잠시 어려울 때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한 것이 결혼 후 시장노동의 전부였던 구술자N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일 주일에 5번 정도 나가는 것이 좋은데 6번 아침 7시부터 일하는 것이 힘들다.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 또한 구술자N에게는 고통이다. 현재는 일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이다.

Q. 지금 하시는 일은 있으세요?

A. 살림만 하다가 롯데 몰에서 오전 7~10시까지 청소 한 서너 시간 하면 돈 준다고 해서 다니고 있어요. 롯데몰이 10시 30분 오픈이라 그 전에 청소하는 거죠. 한 달정도 됐어요. 힘들죠. 근데 이전에도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 거 4, 5년 다녀봤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일 한다고 했는데 일 하니까 일이 또 힘들어요. 5일만 하면 좋은데 청소일은 6일을 해야 해서 좀 쉬고 싶어서 다닐까 말까 지금 고민중이에요. 저 사는 곳도 백운밸리라고 산 쪽이라서 사람도 별로 없고 애들도 다 크고 그래서 관찮을 줄 알았는데 일이 힘들더라고요. 먼저 사람도 일 하다가 금방 나갔더라고요. 돈 버는 게 힘드네요. 아침 청소하러 가는 거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었어요. 맨날 놀다가 집에 생기면 잡념이 생겨서 갔더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맥을 못 추지. 밀대 밀고 다니고 기름걸레 밀고 다니고 아침부터

③ 막내 손녀가 아파가지고. 지금 학교도 못가요

구술자N의 현재 고민은 손녀의 건강이다. 손녀로 인해 자신의 강박증은

더 심해졌다.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근처에 살아 도와주고 싶지만 딸이 자주 오지 못하게 한다. 구술자N이 안쓰러워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자주 오지 말라고 하는데, 서운하다. 구술자N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강박증이 현재는 손녀에게로 집중되어 있다. 하루하루가 두렵다. 걱정에 대한 보상으로 손녀가 다시 건강해질 것 같으므로 구술자N은 손녀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다.

Q.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에요?

A. 지금도 힘들어요. 막내 손녀가 아파가지고. 지금 학교도 못가요. 폐가 많이 안 좋아요. 폐가 한 번 나빠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호흡기 끼고 맨날 치료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작은 딸이 시집을 일찍 갔는데 작은 애까지 아파가지고 많이 안스럽지 가서 예뻐만 해주지 저도 그렇게 도와주진 못해요. 우리 딸이 자주 오는 것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애를 안쓰러워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저보고 자주 오지 말라고 해요. 서운하죠. 더 자주 보고 싶은데.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해요. 지금도 그래요. “애가 죽으면 어찌지”. 강박증이 손녀에게로 온통 쏠린 거 같아요, 하루하루. 사실 계속해서 걱정하면 우리 손녀가 건강해질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손녀 걱정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죠.

3) 사례3-구술자O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O는 경남마산에서 2남3녀로 태어났다. 평범한 어린 시절이었다. 이후 아내를 만나기 위해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처가가 있는 대구로 갔고, 그곳에서 결혼하게 된다.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 것이다. 결혼하고 나서, 산 닭 도매업을 시작했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일을 했다. 돈도 꽤 잘 벌어서 대구에 집도 장만했다. 그러나 구술자O는 50대가 되기 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구술자O의 삶은 크게 바뀐다.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보상도 받지 못했다. 산닭 도매업도 그만두게 되었다. 겨우 구한 아파트 경비 일을 하다가 그만둔 지 10년 정도 되었다. 현재는 주간보호시설에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지원금으로 살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꾸준히 저축하고 있는 돈을 작은아들이 주식한다고 가져가서 여윌돈이 한 푼도 없다. 작은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아 그게 걱정이며, 모아 둔 돈도 지금은 없다. 매일매일 주간보호시설에 혼자 와서 이것저것 하고 있다.

- 1947년 마산에서 출생
- 1957년 대구로 이사, 결혼
- 1958년 산닭도매업 시작
- 1980년 오토바이 사고
- 1981년 아파트 경비
- 2021년 주간보호시설 활동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상주에서 2남3녀로 태어난 구술자O는 어린시절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이후 상주를 떠나 상주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지만, 유년기를 보낸 곳이라 설명했는데, 청년, 중년기보다 어떤 의무감도 없이 보냈던 시기라 행복했다.

Q. 어린시절은 어떠셨어요?

A. 생각해 보면 그때가 행복했어요. 아무 의무가 없잖아요. 해야 할 일도 없었고, 그때 이후로 결혼하면서부터는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별로 웃었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2) 청년기

① 연애를 했죠. 상주 살면서 대구까지 자주 왔어요.

구술자 O는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고향인 상주를 떠나 대구로 오게 된다. 연애해서 현재의 아내를 만났고, 제대 후, 대구에 와서 아내를 다시 만나 21살에 결혼하게 된다. 처가가 식구들이 모두 대구에 살아 삶의 터전을 대구로 옮기게 된다.

Q. 대구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A. 연애를 했죠. 상주 살면서 대구까지 자주 왔어요. 여기 온지 40년 됐어요. 처가가 여기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왔죠. 그렇게 결혼했어요. 우리 아내는 참 복 없어도 잘 살아요. 참 착해요. 후회되는 건 없어요. 내가 대구 이사 와서 마누라랑 막내랑 집에 있었는데 내가 군대 생활 몇 달 하고 제대해서 처갓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집을 찾아갔죠. 예비군복 입고 집 찾아가고 그랬죠. 21살에 결혼했지.

(3) 중년기

① 닭장사로 성공해서 집도 사고 그랬어요.

대구에 오자마자 산닭 도매업을 시작한 구술자O는 산닭 도매업으로 전국을 돌아다닌다. 중간 상인에게 넘겨주는 도매업을 했던 구술자O는 15년간 활발하게 일을 해서 대구에 집도 마련하게 된다. 산닭 도매를 하면서 살았던 때가 구술자O는 전성기라고 표현한다. 큰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계속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Q. 처음에 어떤 일 하셨어요? 대구에 오셔서??

A. 몸 성할 때는 산닭 도매를 했어요. 안 키우고 양계장이라는 곳 서울이나 전라도나 부산, 울산 다 가서 사서 중간 상인들에게 넘겨주는 도매를 했죠. 한 15년 했어요. 내가 대구 와가지고 닭장사로 성공해서 집도 사고 그랬어요. 가장 전성기였죠. 근데 다치는 바람에 집을 팔았죠. 근데 잘 팔았어요. 지금 시장에 아무도 없거든요.

② 80년 1월 20일에 사고가 났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구술자O에게 생애사적 사건은 오토바이 사고이다. 이로 인해 잘하고 있던 산닭도매도 못하게 된다. 혼자 넘어진 사고라서 보상도 못 받고, 치료비도 받지 못했다. 이후로 경비원으로 취직을 해서 15년간 경비로 일을 하게 되지만, 별이가 이전만큼 시원치 않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리가 불편해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었다.

Q. 사고가 언제 났어요?

A. 그때 80년 1월 20일에 사고가 났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오토바이 사고 났어요. 집에 차를 두고 짐차가 있었거든요. 그걸 두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오는 길에 나 혼자 넘어져서 누구한테 치료비도 못 받고 그랬지. 그 이후로는 경비생활 했어요. 경비생활도 한지 15년 됐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요. 힘든 거는 우리 식구도 애 먹고 나도 경비 생활 하느라고 한 15년 애먹었지. 그 생각 하면 식구가 애 많이 먹었어요. 내가 죄가 많아요.

③ 큰 아들은 초등학교까지 가르쳤어요.

오토바이 사고 이후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버거웠고, 자녀들의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자신의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워졌다. 별이가 시원치 않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그 후로 가질 수 없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지금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다 교육시키지 못한 탓인 것 같다.

Q. 그 후로는 어떻게 사셨어요?

A. 큰 아들은 국민학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치고 대구로 중학교 2년 다니다가 제가 다쳐서 집 팔고 전라도로 이사를 갔어요. 다.. 내 잘못이지 뭐. 거기에서 바람이 났는지 학교도 안 나가고 집 나가서 한두 달 있다가 와가지고 다시 집 들어와서 그때 다시 대구로 이사 와서 중학교 다니다가 안다녔어요. 애들 공부 못 시킨게 한이예요.

④ 처형이 돈을 안줬거든요.

대구에서 다시 전라도로 가게 된 것은 처형의 권유 때문이었다. 사고 나기 전, 처형이 돈 200만원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 옆에 살면 돈을 줄 것 같아서 처형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으나 계속해서 받지 못했다. 그 돈을 받은 지 3,4년밖에 되지 않는다. 20년 전의 200만원을 20년 후에 똑같이 200만원으로 돌려받는 것도 어려웠다.

Q. 전라도로는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A. 처형이 거기 살아요. 처형이 교회를 잘 다녀요. 지금 집사인데, 처형이 거기 오라고 해서 거기로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 받을 게 200만원 되거든요. 옆에 살면 돈 줄줄 알았죠. 사고 나기 전에 집 얻을 돈이 없어서 내가 200만원 주고 집을 얻어줬는데 처형이 돈을 안줬거든요. 그 돈 받은지 한 3, 4년 됐어요. 난 그럴 줄 모르고 돈 거래 했는데 골치 아프더라고요. 돈 거래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느 친척이든 절대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남들은 이자까지 받는다는데 나는 이자도 안 받고 한 20년 만에 겨우 받은 거니까.

(4) 노년기

① 지금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쌀이랑 집세랑 다 줘요.

경비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도 다 크고나니 특별히 들어가는 돈 없이 괜찮다.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쌀도 주고, 집세도 주고 다 주니까. 그래서 생활은 더 좋아졌다. 꾸준히 건강관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주간보호시설에서 지내는 것도 그럭저럭 괜찮다.

Q. 요즘은 어떠세요?

A. 힘든 건 없고 건강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등허리 운동도 하고 시간 보내죠. 사는 건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죠. 그나마 지금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쌀이랑 집세랑 다 줘요. 지금은 밥 사먹고 이런 건 아내가 돈 주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다 주니까

② 집에 있으면서 주식을 해서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어렵게 모은 천만 원을 막내아들이 다 가져가서 주식을 해버렸다. 통장관리를 주로 막내아들이 하니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 막내가 나이가 50이지만 직장도 없고, 집에서 주식을 한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던 탓인 것 같아 뭐라고 할 수도 없다. 지금도 또 주식을 하는 것 같지만 물어보지 못한다. 사는데 별다른 걱정은 없지만 직장 없는 막내아들이 걱정이다.

Q. 요즘은 어떠세요?

A. 왜냐하면 내가 통장을 갖고 있다가 정부에서 주는 것 먹으니까 작은 아들이 통장은 운용을 하잖아요.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내가 조금 예금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돈 천만 원 되는데 그걸 전부 막내아들 앞으로 통장을 뒀어요. 직장 다니다가 지금 막내가 내년엔 50인데 나이 많아서 직장 못 다니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주식을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뭐라고 못하죠. 다 못한 애비 탓이니까. 애들이 제대로 학교만 다녔어도. 근데 또 주식으로 아파트도 사고 돈도 벌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능력이 더 있으면... 더 주지 못하는게... 한이죠..

4) 사례4-구술자P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P는 전라남도에서 1952년 둘째로 태어났다. 형편이 좋지 않아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양화점 심부름꾼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숙식을 제공받고 지낸다. 동생과 함께 서울로 가서 노동을 전전하지만 별이가 시원치 않았고, 다시 전주로 돌아왔다. 양화점 사모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고, 이후 공장운영, 완구점 운영, 옷장사 등을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고 빚만 떠안았다. 마지막 옷장사는 괜찮게 되었지만 IMF가 와서 접게 되었다. 이후 투자금이 들어가는 일은 하지 못했고, 도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도 도배 일을 한 달에 7번 정도 하면서 그럭저럭 먹고 산다. 노령연금과 합치면 전주에서 먹고 사는 일이 어렵지는 않다. 어린 시절 배우고 싶었던 기타도 배우고, 건강관리 하면서 좋은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다.

- 1952년 전라남도 출생
- 1959년 초등학교 졸업
- 1960년 양화점 심부름꾼으로 취직, 결혼
- 1961년-1999년 구두공장, 완구점, 옷장사 등 자영업
- 2000년 도배일 시작
- 2020년 기타 동호회 활동 시작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9남매 중 둘째, 겨우 졸업한 초등학교

구술자P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데 식구가 14명이나 되었다. 어머니께서 집안을 도우라고 어렸을 때부터 식당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식당 일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벅찬 일이어서 얼마 못 가서 집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 후 마을 근처에 못 배운 사람을 가르쳐준다는 곳이 생겼지만 1년이 지난 후, 사라졌다. 구술자P는 스스로 배울 복이 없다고 표현했다. 더 이상 공부하지 못하고, 집에서 나오게 된다.

Q.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A. 전라남도에서 태어났어. 52년도에 9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소농이라 밥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그래서 국민학교는 겨우 졸업하고 형편이 안 좋으니까 학교를 못 보내지. 입에 풀칠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도 있어서 식구만 14명이야. 그러니까 힘들지. 그래서 누가 식당을 가라고 해서 식당에 일하러 갔어. 그래서 엄마 보고 싶다고 집으로 와버렸어. 그때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집 생각나니까 온 거지.

Q. 학교는 안다니셨어요?

A. 근데 근처에 못 배운 사람 가르친다고 학교 선생님 두 분이 봉사하는 곳이 생겼어.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배웠지. 근데 배울 복이 없는지 1년 되니까 가르치는 분들이 없어져버렸어. 국가에서 보조해주다가 말았나봐.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집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왔어.

② 양화점 심부름꾼으로 들어갔어.

구술자P는 양화점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곳에서 구두수선을 배우게 되고, 숙식도 해결되어 그럭저럭 지냈다. 그러나 나이가 들다 보니, 다른 기술을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양화점 주인아주머니 오빠가 하는 공장에 기술을 배우러 다녔다. 1년이 지나고 나니, 돈을 받게 되었다. 그곳에서 받은 돈을 모두 아버지에게 드렸고, 아버지는 보태서 자취방을 얻어 주었다. 한곳에서 오래 머무르지는 못했다. 기술을 배우고 나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공장에서 교육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음). 기술을 배운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임금은 받지 못했고, 일도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는 않았다. 이후 친동생이 서울의 방을 내놓는 바람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전주와 광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다.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 않았다. 숙소 없는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고, 불규칙한 노동으로 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않았다. 일자리가 없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 ‘무’를 사다 국을 끓여 먹었다.

Q.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A. 그래서 양화점 심부름꾼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주인아주머니가 좋게 봤는지 나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그래서 구두 수선도 하고 먹이고 재워주는 곳에서 그렇게 지냈지. 근데 나이 먹으니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분 오빠가 공장을 하고 있어서 기술을 배워보라고 해가지고 기술 배우러 다녔어. 그렇게 구두 기술을 한 1년 배우니까 돈도 좀 주고 하더라고. 가게 있으면서 받은 걸 집에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어. 그 놈으로 보태서 아버지가 자취 집을 얻어주신 거지.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자취방으로 오라고 해서 양장점으로 동생은 보내고 그렇게 했었지. 근데 거기에서 기술 배우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해. 한 공장에서 여러 사람을 키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왔다 갔

다 하면서 일 배우고 일도 없으면 고생도 하고 그렇게 지냈지. 그러다가 내가 전주로 오게 됐어. 다른 구두 공장에서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선수금 받고 동생 자취방에 있으라고 하고 전주 왔는데 내가 전주 온 사이에 동생이 사고를 쳤어. 서울 방을 팔아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주에 1년 있다가 광주로 가고 그렇게 왔다갔다했지. 전주, 서울, 광주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어. 그때만 해도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 그래서 숙소 없는데 공장에서 먹고 자고 했어. 언제는 일 하러 가면 일이 없어. 일주기로 한 곳이 일을 안주는 거야. 그러면 별이 없잖아. 그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무를 사다가 칼로 썰어서 소금에 절여서 국 끓여서 몇 달 살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고생을 많이 했어.

③ 인수를 하라고 해서 집에 가서 얘기했지.

안정적으로 일을 하지 못했지만, 전주에서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막연히 서울에 가자고 해서 다시 서울로 가게 된다. 그러나 서울에서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다시 내려오게 된다. 전주로 내려와서 마침 양화점 인수를 제안 받게 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동생이 키우던 송아지 한 마리를 팔고, 이모와 고모에게 돈을 빌려 겨우 가게를 인수하게 된다.

Q. 계속 전주에 계셨나요?

A. 전주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일도 없으니까 서울을 가자고 그래. 그래서 돈 벌자고 같이 조 짜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거야. 거기서 그 고생을 하고 다시 내려왔어. 그래서 다시 내려왔는데 양화점을 하던 사람이 군산에 간다고 인수를 하라고 해서 집에 가서 얘기했지. 동생은 송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한 마리를 팔고 이모랑 고모한테 돈을 빌려서 겨우 가게를 인수했어. 그렇게 가게 하다가 영장 나와서 고생을 했지.

(2) 청년기

- ① 양화점에서 있을 때 아주머니네 식모의 고모 되는 쪽을 소개시켜준 거야.

양화점에 있을 때 아주머니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현재의 아내가 거부했지만 친구로 지내다가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후 아내의 도움으로 구두 만드는 공장을 차리게 되었고, 공장은 생각보다 잘 운영되어 빛도 깊게 되었다. 그러나 직원의 실수로 공장 내 화재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손해가 엄청났다. 공장은 다시 복구해서 운영했지만 이후로는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1988년 손해를 보고, 공장운영을 마무리하게 된다.

Q.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A. 양화점에서 있을 때 아주머니네 식모의 고모 되는 쪽을 소개시켜준 거야. 그래서 몇 번 만났어. 처음에는 부인 안 한다고 하다가 친구가 다시 만나보라고 해서 다시 만났어. 내가 처음에 차를 사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자기도 차를 사 주려고 만났대. 근데 우리가 돈도 없고 집사람이 하도 답답해서 처녀 때 벌었던 돈을 가지고 와서 빛을 갚고 구두 만드는 공장을 차려서 빛 다 갚았어. 근데 풀 칠한 천을 팔락하고 꼬맹이가 일하다가 바람에 불이 붙어가지고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어치를 다 태워버렸어. 다행히 그 꼬맹이가 죽을 판인데 화장실 창문에 매달려있는 걸 지나가는 사람이 구해줘서 사람은 안 죽었어. 그래서 손해를 또 엄청 봤지. 불난 뒤에 수리해서 다시 했는데 공장이 잘 안됐어. 그리고 88년도에 내 가게를 뜯겼어. 길바닥에 그래서 싸게 물건 파느라 손해를 많이 봤어.

(3) 중년기

① 구두, 완구점, 옷장사 거둬드는 자영업 실패

이후 구두를 마대에 놓고 싸게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판매한 구두가 장물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상습범으로 경찰서에 1-2달 있게 된다. 겨우겨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었지만 구두라면 지긋지긋하다. 이후 완구점을 운영하게 되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오히려 길거리 리어카에서 팔았던 천 원짜리 티셔츠 장사가 호황이었고, 완구점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옷장사를 시작하게 된다. 옷장사 7년 만에 빚을 갚게 되었지만, IMF로 옷장사도 접게 된다.

Q. 젊으셨을 때,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이고 일 활발하셨을 땐 좀 어떠셨어요?

A. 그리고 우리가 싸게 나온 구두를 마대로 받아다가 길바닥에서 팔았는데 그 물건이 무슨 장물인가 그랬대. 나는 알고 산 것도 아닌데 그게 죄가 된다고 하더라고 몇 번을 그랬다고 상습범이라고 해서 경찰서에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있었어. 집사람이 면회 왔다가 자기는 애가 3명이나 되잖아. 그래서 변호사 사서 재판을 했어. 그래서 풀려났지. 그러다 보니까 구두에 정이 떨어졌어. 옆집 아저씨가 완구점을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보자고 했는데 보니까 또 잘 될 것 같아서 계약하고 왔어. 근데 10원, 20원은 돈이 안 되더라고 1년 하고 나니까 돈 30만원이 남더라고. 장사 안 되니까 길거리 리어카에서 천 원짜리 티를 팔았어. 그게 오히려 더 잘됐어 옷 장사가. 그래서 완구점 정리하고 옷 장사를 시작했어. 아동복을 하니까 7년 만에 빚을 이제 다 갚았어. 근데 그리고 나니까 또 IMF터져서 안됐어 장사가.

(4) 노년기

① 그 뒤로 가게 정리하고 계속 도배 일을 하게 됐지 지금까지.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 더 이상 투자하는 것이 겁이 났던 구술자P는 투자금이 들지 않는 도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운영했던 가게를 다 정리하고 도배 일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다. 한 달에 7-10일 정도 일을 하는데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나니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다. 큰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서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하다. 노령연금 20만원까지 합쳐서 생활하면 크게 지장은 없다.

Q. 도배 일을 언제 시작하셨어요?

A. 그래서 도배 일을 아는 형님한테 배웠지. 그래서 그 뒤로 가게 정리하고 계속 도배일을 하게 됐지 지금까지. 요즘은 7~10일 정도 나가지 많이 안 나가. 큰 돈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일을 많이 못 해도 큰돈 나갈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지. 작은 거 들어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와. 그거하고 노령연금이라고 그거 한 20만원 나오고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은 없더라고.

② 기타를 배우고 문화생활 하고 있어.

구술자P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문화생활도 적당히 하고 산다. 돈벌이는 시원치 않지만 크게 쓸 일이 없다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었다.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아등바등하면서 부담을 갖고 살지 않아도 된다. 어렸을 때 기타 치는 것이 막연히 좋아서 배운 적 있었던 기타를 다시 잡게 되었

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배우기도 하고,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도 한다.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스스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타에 흥미를 붙이기는 했지만 나이 들어 배우기가 쉽지는 않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배우다보니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한다. 기타를 치다보니, 성악도 배우고 싶어 일주일에 한 시간씩 시간을 낸다.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Q. 시간은 주로 어떻게 보내세요?

A. 외롭지.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기타도 배우고 문화생활 하고 있어 계속. 동네 분이 문화센터에서 가르쳐준대. 어렸을 때 기타치는게 좋아서 어깨너머로 배운 적은 있어서 한 번 배워봤지. 다니기 전에는 일만 하고 집에 있고 그랬는데 다니니까 대인관계도 넓어지고. 시간이 답답하지 않아. 외로울 때 기타도 만지고 사람도 만나니까 좋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하면 배려를 많이 해주고 하니까 편하고 젊은 사람들이랑 하는 건 내가 배울 때 못 따라가고 그런 것도 좀 있어 어떨 때는. 그래서 좀 그렇지. 그리고 내가 자꾸 잊어먹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한 번 들으면 아는데 나는 자꾸 여러 번 반복을 해야 해. 그런 건 내가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설명 해줘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있는데 문화센터는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 그런 게 도움이 되지. 맞아. 좋은 것 같아. 일하고 집에 있으면 티비나 보지 뭘 해. 근데 기타나 다른 악기 배우면 그런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게 되거든. 연습도 하고. 성악을 조금씩 배우려고 일주일에 한 시간씩 내고 있어. 어렸을 때 안 배워서 모르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조금씩 배워보려고

③ 참 좋은 세상이야. 나라에서 연금도 주고.

평생 육체를 쓰는 일을 했더니, 몸은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다. 게다가

가 청력에도 문제가 있다. 좋은 세상인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나라에서 연금도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으며,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한다. 한 달에 7번 정도 나가는 도배일도 이제 건강 생각해서 그만두려고 한다.

Q. 건강은 어떠세요?

A. 무릎도 아프고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아프지만 않고 건강하면 되지 좋은 세상이니까. 참 좋은 세상이야. 나라에서 연금도 주고.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건강만 생각하려고 일도 이제 그만 뉘야지.

5) 사례5-구술자A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A는 일본에서 태어났다. 6살에 한국 의성으로 다시 왔다. 일본에서는 아버지가 공장에 다녔기 때문에 고정수입이 있었고, 어렵지 않았다. 일본에서 모은 돈으로 의성에 와서 논을 사 농사를 지었지만 7식구가 살기는 어려웠다. 가뭄이 심해서 농사를 못 짓는 해도 있었다. 6학년 때 아버지는 농사를 정리했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장사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원금을 다 날려 살기는 더욱 어려웠다.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다 대구시청 10급 공무원으로 취직했다. 1981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을 했고, 그 후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았다. 청약으로 산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인데, 이제 막 대출금을 다 갚았다. 퇴직후, 공무원 연금을 받기는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했기 때문에 연금은 백만원 남짓이다. 생활하기 어려운데 노령연금을 못받는 것이 어렵다. 혼자 사는 남자로서 밥하는 일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 누구를 만나고 싶지만 여유가 없고, 3천만원 빌려간 아들은 돈을 갚지 않는다. 연금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

- 1943년 일본 출생
- 1973년 결혼, 대구시청 취업
- 1981년 이혼
- 1993년 내집 마련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쌀밥도 못 먹었어요.

구술자A는 일본에서 태어났다. 6살에 한국 의성으로 다시 왔다. 일본에서는 아버지가 공장에 다녔기 때문에 고정수입이 있었고, 어렵지 않았다. 일본에서 모은 돈으로 의성에 와서 논을 사 농사를 지었지만 7식구가 살기는 어려웠다. 가뭄이 심해서 농사를 못 짓는 해도 있었다. 6학년 때 아버지는 농사를 정리했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장사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원금을 다 날려 살기는 더욱 어려웠다.

Q.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A. 아버지가 일본에 사셨어서 태어나서부터 일본에서 살다가 해방 후에 6살에 한국 의성으로 와서 아버지가 한국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가뭄이 심해가지고 농사 못 짓는 해도 있었어요. 여러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6학년인가 그때 쯤 농사를 정리했어요. 일곱 식구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논 팔고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 경험이 없으니까 수입이 별로 없어서 원금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살기 많이 어려웠어요. 쌀밥도 못 먹고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공장에 다니셨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당시는 잘 살았잖아요. 공장에서 월급 타서 지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의성이 고향이셨어요. 아버지는 고향으로 오신 거죠. 당시에 할아버지는 의성에 집배원으로 계셨다가 열병이 유행해서 그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번 돈으로 한국에서 논을 사서 농사를 지으셨던 거예요.

구술자A의 아버지는 장남이었고, 아버지 식구들과 함께 지내야 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결국에는 분가를 해서 따로 살았다. 계속 의성에 살다가 아버지와 5남매가 모두 대구로 이사하게 된다.

Q. 식구들이 많았어요?

A. 아버지가 장남이라 아버지 동생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재혼해서 낳은 자식이 7남매라 식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버지랑 우리 형제도 그렇고 아버지랑 같이 지내고 그러느라 생활하기도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분가해서 따로 살았어요. 그렇게 의성에서 살다가 아버지하고 5남매가 대구로 갔어요.

(2) 청년기

① 시청에 취직해서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구술자A는 공부를 다 하지 못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일단 시청에 취직을 먼저 했다.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당시 월급으로 쌀 한가마니 정도를 받았는데, 이 돈으로 고등학교 공납금을 충당하고, 남는 돈은 생활비로 썼다. 공납금을 내지 않는 달에는 아버지에게 주었다.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공부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주경야독은 너무 힘들었다. 대학은 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형편이 되지 않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

Q. 대구에서는 어떻게 지냈어요?

A. 아버지께서 못 살면 자식들이 공장을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월급타서 먹고 살았어요. 저는 대구 시청에 취직해서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월급으로 쌀 한가마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 받으면 석 달에 한번 공납금 내고 나머지는 생활에 보태 쓰고 공납금 안내는 날에는 아버지 갖다 주고 학교 갖다 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영남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 함부로 저에게 못 하겠다 싶더라고요. 야간고등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게 학교 가서 5시간 수업하면 밤 11시에 집에 와요. 그리고 집에도 자가 용도 없어서 걸어왔어야 했어요. 당시에는 주경야독하는 사람이 많았죠. 3년 공부하고 졸업했어요. 의성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18살 먹었을 때 대구 와가지고 아버지가 농사 끝내고 장사한다고 했다가 다 망해버리고 상당히 곤란이 많았습니다. 여동생은 공장 다니고 저는 시청 다니고 그렇게 살았죠. 가정도 어렵고 도저히 대학은 못 가겠고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살만할 것 같아서 대학은 안 갔습니다.

② 중매로 만난 아내와의 결혼

구술자A는 당시 나이 30살에 결혼을 하게 된다. 상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당시 나이로는 늦은 나이 결혼이었다. 가정을 이끌 자신이 없어서 다시 말해 경제력 때문에 쉽게 결혼 결심이 서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압력으로 결혼을 결심한다.

Q. 몇 살에 결혼하셨나요?

A. 30세였어요. 그때는 늦게 한 거죠. 하기 쉽지 않았어요. 경제력이죠. 내가 사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이는 자꾸 먹는데 직업이 없어도 결혼을 해야지 된다고 먹고 살 수 없다고 결혼을 안 하면 금방 40살 된다고 해서 결혼 했죠. 중매로 만났습니다. 상사가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③ 서울시청 급사, 일용직 전전

서울시청의 급사로 일을 하다 군대에 다녀와서 아버지의 아는 사람의 소개로 공장에 취업을 한다. 원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공장 사정이 어려워져서 4일만에 그만두게 된다. 이런저런 일자리를 전전하다 37살이 되었다.

Q. 일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A. 처음에 서울시청에서 급사로 일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아버지 아는 분이 동향사람이라 소개시켜줘서 공장을 들어갔는데 4일 만에 나왔어요. 공장이 사정이 안 좋아져서 나왔고 그렇게 일자리 전전하다가 37살이 됐어요.

(3) 중년기

① 결혼 후 시작한 하숙

결혼 후, 아내는 집을 얻어 하숙하게 되었다. 구술자A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아내도 돈을 벌어야 했다. 월세를 얻어, 하숙을 하다 보니, 자꾸 빈방이 생기고, 결국 남는게 없어졌다. 집주인은 점점 월세를 올리고, 더이상 이익이 되지 않아서, 그만두었다. 아내는 미용기술을 배워 미용사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웠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내집도 없어 막막하기만 했다. 내 집이 없어 이사를 10번 넘게 해야만 했다. 그러다 대구시청의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구술자A는 공무원 시험으로 공직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기능직공무원으로 들어갔다. 처음에 일용직으로 시작을 해, 기능직으로 전환되었지만 10급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Q. 몇 살에 결혼하셨나요?

A. 결혼한 후에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숙을 했었어요. 아내가 집을 여러 칸 얻어서 독채를 얻어 가지고 사글세를 줬어요. 집주인이 또 전세로 안 받고 월세로 받으려고 했어요... 방학 되면 집에 가고 그러니까 하숙비도 안 주고. 집주인이 자꾸 월세를 올렸어요. 그래서 얼마 못했어요. 월세를 올려야 이익이 되니까. 10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으로 하고 그걸 맞추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 집 아니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대구는 공장자리가 많아서 저는 공장을 다녔어요. 아내도 하숙 정리하고 미용기술 배워서 미용사로 가게 얻어서 먹고살았죠. 나아졌기보다는 당시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고 해서 부인이랑 네 식구가 됐는데 내 집도 없고 유산 받은 것도 없으니까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1년 계약 끝나면 집세를 자꾸 올려서 계속 이사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10번 넘게 이사를 했어요.

그랬다가 일용직으로 관공서 말단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37살에 들어가서 57세에 나왔죠. 저는 시험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기능직공무원 말단직으로 들어가서 퇴직한 거예요. 원래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일용직으로 들어갔다가 고용직으로 승진해주고 그랬다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주고 기능직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10등급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9등급으로 승진시켜줘서 9등급으로 퇴직을 했죠.

② 아내와의 이혼, 계속되는 생활고

1981년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막막했다. 아이 둘을 엄마 없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이혼하지 않으려고 6개월을 버텼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이들도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구술자A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Q. 아내 분과는 언제 이혼하셨어요?

A. 1981년도에 아내가 이혼해달라고 그러가지고 큰 애는 중학교 다니고 둘째는 국민학교 4학년이라서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6개월 버티다가 그냥 이혼하게 됐죠. 애들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이 맡기고 그랬는데 큰애는 엄마가 없으니까 빗나가서 공부도 안하고 그랬는데, 둘째는 착실해서 학교 잘 졸업해서 대학까지 잘 가서 1학년 이후로 군대에 잘 갔죠.

③ 청약으로 마련한 집, 대학 다녀도 취직 안 되는 세대

월세를 전전하며 살았던 구술자A는 1993년 청약저축으로 아파트를 사게 된다. 대출을 20년 가까이 갚아서 이제 다 갚아서 드디어 내 집이 되었다. 방 한 칸이라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 마음 편하게 내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다. 막내는 공부를 잘해 대학까지 공부시켰지만 첫째는 대학을 가지 못했다. 막내는 대학에 갔지만 취직이 어려운건 마찬가지다. 형편이 괜찮으면 원하는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하고 싶지만 학원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

Q. 집은 마련하셨어요?

A. 청약저축을 해가지고 1993년도에 이 집을 샀죠. 초가삼간이여도 내 집이 좋다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작아도 너무 좋아요. 네 대출 끼고 이자 주면서 살았는데 이제 다 갚았어요. 이 나이에 남의 집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몸담을 자기 집이 있어야 해요 사람은. 방 한 칸이더라도 마음이 편하게 살 곳이 있어야 해요. 저도 이전에는 빌라에 35만원씩 주고 살고 그랬었어요. 둘째는 공부를 잘해서 계명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동생만 좀 하고 형은 공부를 못 했어요. 둘째는 공부를 시켰는데 4년제 나와도 공

무원 시험은 계속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돈을 잘 벌면 모르겠는데 형편이 어려워 공부시키는 것도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학원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원 보내주려고 하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뭐 알아서 잘 커서 결혼하고 잘살고 있죠.

(4) 노년기

① 혼자 사는 남성 노인으로서의 삶

구술자A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지만 말단 공무원으로 퇴직했기 때문에 한 달에 백만 원 남짓이다. 여기서 각종 세금과 관리비 이것저것 제하면 50만원이 남는다. 결국 50만원으로 생활하게 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노령연금을 못 받는 것이 억울하다. 남성 노인으로서 밥해 먹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간단한 일이나 공공근로도 가끔씩 하지만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다. 주변을 봐도 혼자 사는 남성 노인들의 삶이 어렵다. 평생 집안일을 하지 않은 세대라서 밥, 청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어렵다.

Q. 공무원 연금 받으시나요? 생활은 어떠세요?

A. 연금 나오는 걸로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 말단직이라서 공무원 연금 받고 있어요.

어디 들어갈 곳도 없고 그래서 나이 많으면 안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놀았죠. 직장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간단한 일이나 공공근로 같은 거는 혼자 생활하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누라가 해주는 밥도 없고 내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니까. 정년퇴직하고 구내식당도 없고 하니까 혼자 집에서 밥을 다 해먹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밥을 해먹는 게. 반찬 하는 것도 어렵고 김치도 담을 수 없거든요. 내가 공직에 있다가 정년퇴직 했잖아요. 우리 세

대가 많이 가난했거든요. 공부를 오래 못해서 말단으로 있다가 정년까지 버틴거
 라 연금은 백 얼마 정도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노령연금을 줘야죠. 재난 지원금
 도 소득이 80%이하 되는 사람 주장아요. 노령연금도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
 겠어. 공무원도 높은 사람은 많이 받죠. 근데 말단직 사람은 세금도 한 달에 삼
 십얼마 나와요. 보험도 아들 밑으로 되어있다가 회사가 문 닫으면서 다 나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노령연금도 재난지원금처럼 소득이
 적은 사람을 퍼센티지로 해서 줘야될 것 같아요. 가족들도 만나기 힘들고 다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런 생각이니까. 겨울에는 난방비 10만원 나오고
 건강보험으로 10만 팔천 얼마 나오면 20만원이고 전기세, 관리비 하면 37만원
 나와요. 겨울에는 난방비까지 해서 47만원이고

Q. 요새 생활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세요? 힘든 점은 없으세요?

A. 빨래랑 청소는 내 손으로 다 합니다. 빨래는 여름에 냄새나잖아요. 그래서
 하이타이에 해서 삶아요.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뽀스나 이런
 건 삶아야해요. 안 그러면 냄새나거든요. 그런 노인이 얼마나 많아요. 부인이 죽
 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드냐고요. 쪽방 사는 사람들도 다 그렇
 잮아. 노인들이 그런 실정인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하철 타도 냄새나는 사람은
 전부 흠애비죠. 냄새나는 이유가 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흠애비 생활 오래
 했죠. 생활도 어렵고 여자의 일을 제가 다해야해서 어렵죠. 식당 가면 둘 이상
 간 사람은 좋은 반찬 많이 내주는데 우리는 혼자 가서 먹으니까 우리는 그런
 좋은 반찬 안줘요. 안 겪어 보면 몰라요. 밥 사먹을 때 그런 차별 받는데 싸울
 수도 없죠. 먹기 싫으면 가라고 하는데 다른데 가면 더 힘드니까. 식당도 별로
 없는데. 혼자 가서 먹으면 그런 차별을 받아요.

② 단절된 네트워크

주변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돈이 없이는 할 수 없다. 친구를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 '만남' 자체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구술자A의 생활비로는 이러한 여유를 누릴 수 없다. 하루에 9천 원짜리 밥을 한끼만 사 먹고, 아침과 저녁은 과일 정도로 대충 때운다.

Q. 친구는 만나시나요?

A. 친구 만나면 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안 만나요. 돼지갈비라도 먹으려면 만 이천 원이에요. 둘이 만나서 먹으면 5만 원 이상 나와 버려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기 거북해요. 사람은 못 만나요. 저는 아침에 빵 하나 먹고 밥은 굶어요. 그리고 과일 사과 한 개 정도. 사과 열 개 사 오면 만원에 사오고 그걸 일주일 동안 먹죠. 그렇게 아침식사를 하고 점심은 밥 사 먹으러 20분 거리를 나가요. 이 더운데 나가서 밥 사먹고 9천 원 짜리 먹어요. 그거 먹고 집 오면 3시 되거든요. 그러면 씻죠.

③ 작은 놈은 내가 3천만원 정도 줬는데 안 갚아.

없는 돈에 대학 공부까지 시킨 막내는 구술자A로서는 뭇돈인 3천만원을 빌려갔다. 릴 수 없다. 독촉했지만 천만원만 갚고, 나머지 돈은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 돈 필요할때만 부모를 찾고, 평소에는 연락도 하지 않는 자식들이 께쌌하다.

Q. 자녀들은 자주 방문하나요?

A. 큰 놈은 어렵고 작은 놈은 내가 3천만원 정도 줬는데 안 갚아. 그걸로 아파

트 작은 집 하나 샀나봐 그 뒤로 내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 돈 만 빌리고 갚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돈 필요하다 그래서 천만원 받고 나머진 안줘. 께쌌하지. 한 달에 10만원 주는 것도 9년째 못 받고 께쌌해요. 본인 돈 필요할 때만 나 이용해먹고. 전화해도 안 받고 당연히 오지도 않아요. 께쌌하지요?

6) 사례6-구술자B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B는 강원도에서 태어났다. 8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유년시절 일했던 기억밖에 없다.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다. 아직도 받침 있는 글자는 어렵다. 아버지가 정해주는 남자와 결혼해서 강원도에서 살았지만, 남편의 이른 죽음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했고, 동생이 사는 경기도로 이사했다. 동생의 제안으로 경기도로 올라오게 되는데, 당시 남편의 보상금 800만원이 전부였다. 구술자B는 5남매를 홀로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다. 주로 청소 일을 했고, 일하면 성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아직도 연락 오는 곳은 많다. 유방암이 걸려 더는 일할 수 없어 그 후로는 경로당 일을 하면서 지낸다. 장애가 있는 손주와 함께 산다.

- 1947년 강원도 평창
- 1994년 남편 사망, 경기도 이주
- 2000년 유방암 진단
- 2021년 장애가 있는 손자와 함께 거주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거기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지긋지긋해요.

강원도 평창 근처에서 태어난 구술자B는 유년기를 떠올리기 싫다. 안 해 본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지긋지긋하다. 경기도로 올라온 이후로 가끔 생각이 나기는 하지만 가고 싶지는 않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두었다.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담배농사를 하는 곳에 가서 일을 돕기도 했고, 14살, 15살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식모'일을 했고, 그때부터 안해 본 집안일이 없다. 주인집에서 남은 누룽밥을 먹기 싫어 하수구에 쏟아 버리기도 했고 고생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유소년기를 보냈다.

Q.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A. 강원도 평창 밀이야. 거기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지긋지긋해요. 안 가고 싶어요. 뭐 안해본게 없어 흠뻑고 돌뻑고 하는게 너무 싫어. 난 여기에서 계속 살고 싶어. 가끔 놀러가는 건 좋지. 근데 짐 풀고 살기 싫어 너무 지겨워 거기는.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그냥 가끔씩만 가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그렇게 가끔 학교 온다고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강원도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8남매인데 제가 둘째예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담배잎을 어릴 때 뜯어가지고 아버지 쉬실 때 피시라고 그렇게 뜯어 놓고. 그렇게 똑똑했는데 학교를 다녔어야 했는데 그게 아쉽죠.

② 호적은 45년생 영숙이로 되어있고 나는 47년생 영순이거든요

구술자B는 호적상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르다. 바로 위의 언니가 있었는데,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 사망하고, 구술자 B가 태어났다. 부모님은 사망 신고도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구술자B는 47년생 영순이지만 45년생 영숙으로 살게 되었다.

A. 제가 75살인데 호적은 45년생 영숙이로 되어있고 나는 47년생 영순이거든요. 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언니가 죽었는데 그거를 신고를 안하고 그냥 그 이름으로 나를 낳아서 새로 신고를 안하고 언니 이름으로 살게 한 거예요.

③ 아버지가 동네에 시집 자리를 줬다고 데려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남의 집 식모살이 일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지만 16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시집 자리를 줬다고 데려오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강원도로 돌아왔다.

Q. 고향으로 다시 언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먹는 건 참 잘 먹었는데 정신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집이 뭐라고 집이 그리고. 그렇게 16살이 됐는데 사장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동네에 시집 자리를 줬다고 데려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혔죠.

(2) 청년기

① 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뭐 마음이 착했다고 결혼시키고 싶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가 각각 자신들의 딸과 아들을 결혼시키기로 결정했고, 구술자B는 그 결정에 따라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하자마자 시작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로 마음고생을 했다. 바로 아들, 딸 5남매를 낳고 살았는데, 남편과 일찍 사별했다. 남편과 사별 후, 큰딸은 부산 신발공장에 보내고 자식들을 너무 고생시킨 것이 미안하다.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Q.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뭐 마음이 착했다고 결혼시키고 싶다고 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소장사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14살에 아무것도 모를 때 첩으로 왔대요. 그래서 남편을 낳았는데 저를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시아버지 아니었으면 저는 못 살았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게 시집가서 아들 딸을 5남매나 낳았어요. 그래놓고 남편이 47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딸 하나는 부산 신발 공장에 보내고 그랬어요.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지금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남편이랑 동갑인데 일찍 사별을 했죠.

(3) 중년기

① 남편과의 사별, 경기도로 상경

구술자B는 남편과 사별 후, 동생의 제안으로 경기도로 오게 된다. 산으로 나물 캐러 다니는 것이 힘드니 경기도로 오라는 제안이었다. 사고사 한 남편의 죽음으로 받게 된 보상금 800만원을 전부 들고, 5남매를 안고 올라왔다. 아무 준비도 못하고 올라온 경기도에서 이일 저일 안 해본 일 없이 하면서 5남매를 키웠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너무 달랐고, 나물 캐는 일 맡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낯설게만 느껴졌다.

Q. 언제 올라오셨어요?

A. 여기에 집을 옮긴 건 셋째 동생이 여기에 집이 있어요. 강원도는 살기 힘들어요. 맨날 배추작업하고 힘들니까 동생이 여기 와서 공장을 들어가라고 그래서 47살에 남편 잃고 48살 11월 19일에 막내 중3일 때 here를 왔어요. 저희 있던 시댁 돈도 그나마 남편이 신부전증을 4년을 앓아서 그 돈으로 다 들어가고 돈 800만원 남아서 그거 가지고 here를 왔어요.

② 미화쪽으로, 아파트 청소

경기도로 이주한 후,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아파트 문짝 만드는 곳 식당에서 2년 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로 청소일을 했던 구술자B는 일을 잘해서 어딜 가나 인정을 받았다. 월급도 계속해서 올려 받았고, 불만은 없었다. 식당일, 아파트 청소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지금도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연락이 오기도 한다. 이후에 유방암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주로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 유방암은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까지 다 받아서 현재는 괜찮다. 당시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완치가 되었다.

Q. 주로 어떤 일 하셨어요?

A. 근데 오니까 일이 별로 없어서 교차로 신문도 보고 그러다가 아파트 옛날 문짝 만드는 곳 식당에 가서 2년인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일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밥을 잘 한다고 한 달 만에 월급을 올려줬어요. 원래 70만원 받았는데 80만원으로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일을 했죠. 그리고 아파트 청소일도 12년을 해가지고 아들이랑 딸이랑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아이들이 돈 준 것도 다 안쓰고 모았어요. 미화 쪽으로 아파트 청소. 그때 괜찮았어. 일 한 두달 하

면 잘 한다고 10만원씩 월급 올려주고 그랬어. 그래서 아직도 거기서 연락 가끔와. 해줄 수 없겠냐고. 난 어딜 가서 하든 칭찬 많이 받았어 일 잘한다고. 지금은 여기 동대표 하다가 노인정 와서 총무하고 그랬지. 코로나라 그렇지 그 전에는 입주민들 많이 아니까 놀러도 가고 그 집에서 차도 얻어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친한 사람들 있어요. 같이 식당도 가고 시켜도 먹고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받고 베풀고 하는 거지. 유방암 걸려가지고 그만 둔 거지. 난 사실 지금도 가서 일 할 수 있어 아직도 일 해주러 와달라는 곳 있어. 근데 애들이 못 가게 하지. 유방암 있어서 수술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그때 임파선까지 떼고 항암치료, 방사선 다 받았는데 괜찮아 이제는. 강남병원도 가고 그렇게 병원도 많이 다니고 고생도 많이 했지 그때는.

(4) 노년기

① 장애 손주 양육으로 인한 고단한 삶

자폐 증세를 보이는 손녀와 함께 산다. 부모와 갈등이 많은 손녀가 유일하게 따르는 사람이 구술자B이다. 잘 씻지도 않고, 종일 게임만 하지만 마음 붙일 곳이 한 군데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불만은 많지만 내버려 둔다. 노령연금과 아파트 경로당에서 일하고 받은 돈은 대부분 손주 양육에 들어간다.

Q. 지금 혼자 사세요?

A. 막내딸 큰 애가 여기 와서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둘째는 막내 딸네에서 다니고. 엄마랑은 안 좋은데 나랑은 괜찮아. 작년 5월에 아빠가 때렸다고 그래서 아빠를 엄청 싫어해. 그래도 자식이라고 용돈 주고 아빠는 그렇게 챙기는데 엄청 싫어해. 나하고는 뭐 그나마 낫지. 그래서 더 뭐라고를 못 하겠

어. 잘 씻지도 않아 다 큰놈을 내가 씻자고 그렇게까지 해야해. 가면 자살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안고 있지. 가서 죽겠다는데 어떡해, 개도 나 하나만 의지가 되는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할머니가 씻자고 하면 그래도 좀 씻어라도 주고 전에는 머리도 안감았어. 나랑 살면서 그나마 머리도 감고 진짜 많이 밝아졌어. 얘기도 많아지고. 원래 진짜 네 괜찮아요. 그럴 정도는 아니야. 그냥 컴퓨터를 많이 해서 그렇지. 거기에 좀 불만이 많아 건드리면 개도 괴롭잖아. 한 번 뭐라고 했더니 집 나가버려 가지고 그냥 기분 맞춰주면서 살아. 입맛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돼지고기도 먹지도 않고 소고기 그런 것만 먹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쓸 수가 있나. 나는 생활도 힘들고 하니까 노인정에서도 우미 같은거 하면서 돈 조금씩 받고 그렇게 지내는 거지. 관리비도 나가고 뭐 나가게 많아. 아껴쓰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애들 셋은 용돈 10만원씩 줘요. 거기에 27만원 연금이라 해서 한 달에 57만원 받는 거예요 애 셋을 내가 다 키운거지 뭐. 내가 밥 다 해먹이는데 손주는 혼자 한 35만원 용돈 받는 걸로 혼자 배달도 시켜먹고 그러더라고. 아빠가 그렇게 매달 주니까. 뭐 먹을 땐 혼자 먹어도 나 아플까봐 걱정은 많아해. 저는 돈이 들어오면 우선 쌀부터 사요. 쌀만 있으면 뭐라도 먹으면 되니까. 김치 좀 담으면 되고 하니까.

② 끈끈한 가족애

강원도에서 올라온 원가족들도 구술자B의 근처에서 산다. 친동생이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걱정은 없다. 특히나 아플 때 서로 약을 사다 주면서 말동무하면서 지낸다.

Q. 가족들은 다 어디 사세요?

A. 네, 여기 여동생네 3형제 살아요. 요 근처에 나 불렀던 동생이 여기 살고 자식들도 용인에 아파트 큰 것 받아서 가고 거기 동생은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자주 봐요 그 집이랑도. 넷째 여동생도 이 근처에 살고. 그렇지 아프다고 하면

어디 아프냐, 약사올까 하지. 진통제도 사다주고. 그래도 그렇게 있어서 말동무도 있고 얼마나 좋나 싶어. 근데 또 미울 때도 있고 그렇지

운동은 톨게이트 있는 곳 까지 걸어서 갔다오고 산 좀 다니고 그렇지. 하루는 톨게이트 정도만 가고 하루는 산에 가고 그렇게 걷기운동하지. 혈압은 있지만 당뇨는 없거든. 혈압약은 먹는데 괜찮아 지금은 혈압도. 127에 98인가 그래.

③ 정부에서 이렇게 잘 챙겨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

구술자B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는 싫다. 지금까지는 큰 도움 없이 살기는 했지만 다 정부 덕이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혜택도 많고,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는다. 우울증에 대비해 다이소에서 산 퍼즐도 꼬박꼬박한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텔레비전만 보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퍼즐 맞추는 것에 재미를 들였다. 퍼즐을 맞춰서 딸에게도 준다. 작년부터 퍼즐하는 재미로 살고 있다. 재미로 시작하긴 했는데, 퍼즐을 사는 돈도 만만치는 않다.

Q. 건강검진은 잘 받고 계세요?

A. 네 그렇죠. 자식에게 짐 되기 싫어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잘 챙겨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 건강을. 그래서 좋은 나라야. 의료보험 덕분에 내가 혜택을 많이 보지. 왜 검사를 안받아요 다 해준다는데, 그러니까 다 가지. 안 가면 손해지. 다행히 아직 아프지도 않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게 있잖아. 그래서 나는 퍼즐같은거 500개짜리 사가지고 시작했다가 작년부터 1000개를 그렇게 사서 집에서 맞추고 그래. 맨날 손 놓고 가만히 집에만 있으니까 안되겠더라고. 텔레비전만 계속 볼 수도 없고. 그렇게 퍼즐 하고 있어. 그것도 되게 비싸더라고 근데, 그래도 그걸 취미로 하고 있지. 예전에 손주들 것 재미있게 같이 하다가 다이소에서 좀 500개짜리 사서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 포기 안하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완성하니까 자랑스럽고 내 손에도 좋고 그

래서 작년 5월부터 시작했지. 작년에 해바라기 퍼즐이 집에 있으면 운이 좋대. 그래서 다 맞춰서 우리 집에도 두고 딸 집에도 갖다주고 그러지. 내가 지금 천 개짜리 이 만큼 많이 했어. 이거 봐봐. 작년부터 이거 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 그만 사야지 싶어 돈이 자꾸 들어가지고

④ 1년 무이자로 카드로 임플란트 했어요.

구술자B는 이가 아파 치과에 갔고, 임플란트를 세 개 했다. 목돈이 없었지만, 카드 무이자가 된다고 해서 1년 무이자로 임플란트를 했다.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고생을 해가며 키웠는데 내가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카드 무이자로 임플란트를 했지만, 이후에 5남매가 모여서 150만원을 주었고, 큰 도움이 되었다.

Q. 치아는 어떠세요?

A. 이는 괜찮은데 돈 좀 들어갔지. 한 세 개 정도 임플란트 들어갔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했지. 1년 무이자로 카드로 해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를 했어요. 그럴 때는 자식도 힘들지만 자식들에게 그냥 얘기해요. 내가 써 빠지게 키웠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빨도 했다니까 5남매가 돈 모여서 150만원 주더라고 그게 큰 도움이 됐지.

7) 사례7-구술자E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E는 1950년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났다. 횡성에서 태어나 화천으로 이주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70년대 탄광 산업이 융성했던 태백으로 이주했다. 탄광에서 일하면서, 29세에 결혼해 아들 둘을 두었으나 31세에 탄광에서 탄차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얻게 된 장애로 인해 부인과는 이혼하고 가족과는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강원도 태백에는 형제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 혼자 생활하였으나, 13년 전 태백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어 두 아들이 있는 청주 근처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주 후에는 큰아들 내외와 잠깐 살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기간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장애와 질병으로 인한 이동의 제약과 생활의 제약으로 인해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무기력하게 생각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 1950년 강원도 횡성 출생
- 1960년대 강원도 화천에서 유년기를 보냄
- 1970년대 강원도 태백으로 이주 탄광에서 일함
- 1979년 탄광에서 탄차 사고로 다리 절단
- 1980년대 탄광 사고 이후 이혼과 가족 분리 경험
- 2014년 뇌졸중 후 아들이 있는 청주 근처로 이주
- 2020년 고관절 골절 이후 이동성 크게 제약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그땐 다 그랬지 ...”

구술자E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기회를 받지 못했지만, 교육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회한이 없다. 강원도를 고향이라 하지만, 고향은 강원도 횡성이라 말하고 자란 곳은 강원도 화천 그리고 살아온 곳은 태백이라 말한다.

Q. 공부는, 학교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A. 국민학교 졸업. 횡성에서 태어났는데, 화천에서 다녔어. 그리고 태백으로 일하러 갔지 ... 그냥 그러고 살았어. ... 아... 그런거 없어... 하고 싶은거... 그런거 없어...

(2) 청년기·중년기

① 돈 벌이를 위해서 태백으로 : 사고로 인해 인생의 변화

어린 시절을 화천에서 보낸 E는 태백으로 이주하였고, 탄광에 취업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태백에서 일을 시작하고, 다른 가족들도 태백에 정착하였다. 탄광에서 일하면서 29세에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게 된다.

Q.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A. 태백으로 와서 탄광에서 일했지. ... 결혼은 29살에 했어, 31살에 사고가 났

어.. 탄차 사고...탄광에서 탄 싣고 가는 기관차에 다리가 깔렸어 ...

② 사고로 인한 변화: 혼자 사는 & 혼자 살아야 하는 인생

비교적 어린 나이인 32세에 사고를 당한 구술자E는 부인과 별거/이혼을 겪게 되고, 태백에 남아 혼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태백에는 여동생 등을 비롯한 몇몇 가족이 있었고, 많은 친구가 있었다고 회고한다. 태백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 만나 술자릴 가지거나, 나름의 운동을 하면서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회고한다. 40대가 될 때까지 스스로 담배는 줄담배였고, 술은 소주, 막걸리, 맥주를 가리지 않고 마셨다고 이야기한다. 구술자E는 혼자 살게 된 빈자리를 주변의 가족(여동생)과 친구들로 자리를 채우고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 채움이 적극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라는 말처럼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Q. 그럼 사고 이후 태백에서는 혼자 사신거예요? 외롭진 않으셨어요?

A. 주로 혼자 있어서, ... 외롭지 ... 왜 없겠어... 일상생활에서 제일 힘든거는 ... 그냥 그러고 사는거지...(가족 관계는 좋으셨어요?) ... 가족 관계 좋다고 해야지 ... 젊을 때 술은 많이 먹었지...소주 3병? 자주 먹었지 소주, 막걸리, 맥주 그냥 막 먹었지 ... 태백에는 친구들이 있으니, 31살에 다치고 계속 운동은 했지....

(4) 노년기

① 장애와 질병으로 급격하게 제약된 이동성·건강

구술자E는 13년 전 태백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두 아들이 있는 청주로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큰아들 집에서 6~7년 정도 같이 살았다. 현재는 청주 근처의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가끔 두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음식을 해주거나 사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막 같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31살부터 의족생활을 해온 구술자E는 청주에 오기 전까지는 주변 친구들과 운동도 하고 지냈지만, 청주에 와서는 고관절 골절을 겪게 되었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나빠졌다. 가끔 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출입을 제외하곤 현재 사는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술자E는 큰 불편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로 적응하고자 한다.

Q. 청주로는 어떻게 오신거예요?

A. 태백에서 쓰러져서 청주로 왔지 ... 청주에서는 13년 됐지... 병원에 오래 있다 나왔어...7개월 정도 ... 지금은 재활 겸한 치료 중 ... 고관절 쪽이 안 좋는데...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 결국 ○○병원 갔더니 부러졌데 ... 그 후로 못 걸어 ...

Q. 혼자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A. 억지로 억지로 사는거지 ... 큰 며느리와 6~7년 살다가 지금 있는 아파트로 왔어 ...태백에는 여동생도 있고, 전화도 자주 하고 ... 집에 불편한 건 없다고 해야지 ... 어려운게 뭐 있어 ... 말하면 뭐해 ... 참고 사는거지 ... 뭐 ...

② 억지로 억지로 살아야 하는 경제 상황

구술자E는 사고로 인해 혹은 장애에 대한 연금⁹⁾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현재 수급하고 있는 노령연금 15만원이 본인의 총소득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추어서 생활하려고 한다. 정확하게 본인이 수급받는 현금성 혹은 현물성의 수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본인의 총소득이 20만원이 안 되니 그에 맞춰서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평소에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티비보다는 라디오를 들으며 생활하고 있다. 정확하게 본인이 수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현재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역시 명의를 다른 이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자신은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Q. 연금 받는거 있으세요?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A. 억지로 억지로 사는거지 ... 연금 받는거 없고 ... 지원금 ... 으로 생활해야 해 ... 어려운게 뭐 있어 .. 다른 노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 뭐 .. 모르지 ... 영세민이라고 80만원 받는 사람도 있더라 .. 왜 나한테는 안줘? 한 50만원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 ...

A. 나라에서 나오는 것(주거비 지원 16만 8천원)가지고 그냥 생활해 ... 계절에 맞는 옷 다 있지 ... 참고 사는 거지 .. 더운데 ... 참고 사는 거지 ... 전기 아끼려고 에어컨 안 틀고 살아 ... 과일이나 채소 먹을 일 없어 ... 안 먹어 ... 강원도에서 옥수수, 감자 많이 먹어서 ... 이제 안 먹어 ... 둘째 아들이 가끔 와서 밥 사줘 ...

9) 구술자E가 장애로 인한 연금을 받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답하지 못하고, 15만원의 노령연금과 자식들이 보조해주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한다.

③ 섬이 되어 버린 임대아파트 : 관계 단절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청주로 오게 된 구술자E는 두 아들과 가까이서 살게 되었지만, 기존 태백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었다. 불편하지만 의족을 착용하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았던 태백 시절보다, 청주 생활은 아파트에 갇혀 버린 듯하다. 월, 수, 금에는 장기요양 관리사가 집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혼자 있을 때 힘이 들면 며느리에게 부탁한다. 구술자E는 아쉬움이 있지만, 가족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려고 노력한다. “가족 관계 좋다고 해야지 ...” 그 외에 지역사회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긴다. 말로 표현하진 못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노인 사회(노인정)에 참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 단절은 고관절 골절이라는 장애·질병으로 인해 더 강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 이 동네에 아는 분이나 친한 분은 있나요?

A. 이 아파트에 노인정은 있는데, 한 번도 간적은 없어 ... 아파트에 왕래 있는 사람들은 없어 ... (주민센터나 지역에서) 개코나 한 번도 안 와 ... 청주에는 친구가 없지 ... 가끔 밖에 나가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

A. 우울하진 않고 ... 휠체어 타고 이동하는데, 장애인 택시 잡기가 힘들어서 ... 주로 혼자 있어서, ... 외롭지 ... 왜 없겠어 ... 그냥 티브이 보거나 라디오 듣거나 하는 거지 ... 외로움에 대한 지원이 있나? 들어보지도 못 했고 ...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

8) 사례8-구술자F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F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에서 출생했고, 줄곧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울에서 풍요로운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대학교를 중퇴했다고 함)하고 자유로운 젊은 시절을 보냈다. 결혼 전에는 방송국 등에서 방송 관련 일을 하며 여기저기 자유롭게 즐겁게 다니면서 일했다고 기억한다. 길 가다가 만난 남자와 운명처럼 연애하였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운명처럼 찾아 온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지가지 다 해”라는 표현처럼, 바람, 음주, 도박, 폭행 등으로 점철된 결혼 생활 속에서 온갖 시련에 시달리며 살았다. “때린 사람도 무서울 정도로 나를 때리고, 때리면서 죽일까봐 두려운지 나가라”고 하던 남편의 말처럼,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자식들의 도움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혼해야 기초수급자가 되고 혼자 살 수 있는 형편이 마련된다는 말에 이혼했노라고 말한다. 기초수급자격을 얻어 임대주택을 얻고 생활하지만, 기초수급자격 유지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외국에 있는 딸이 아파도 갈 수 없는 상황을 힘들어하며 살고 있다.

- 1950년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출생
- 1970년대 결혼 후 은평구에 터를 잡고, 은평구 내에서 거주
- 2010년 이후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생활하기 시작
- 2021년 수급자로서의 일상이 제한된 삶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유롭게 자람

구술자F는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 아무런 세상 걱정 없이 살았노라고 말한다. 당시 음악을 들으러 음악다방에 다닌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자유롭게 세상을 즐겼다고 표현한다.

Q. 어디서 사셨어요? 여기가 고향이세요?

A. 저는 종로구 사직동 ... (어릴 때 형편은) ... 전 괜찮았어요. ... 풍요로웠어. ...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지 ... 정말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

(2) 청년기·중년기

① 운명 같은 사랑과 결혼 그러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구술자F는 대학시절(본인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함)부터 자유로운 청춘기를 보낸다. 어려서부터 동년배들이 겪었던 생활고라든지 궁핍함 등을 겪지 않고 자랐다고 말한다. 그 당시에도 일자리가 많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에 있던 연줄로 소위 “뺨”이 좋아서 방송국도 다니고 아는 분의 회사에서도 근무했었노라고 말한다. 지금의 시대 같으면 ‘성희롱’으로 들릴 수 있는 길거리 데이트 신청도 많이 받아봤다고 말하는 구술자F에게 전 남편은 길거리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운명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운명처럼 만난 남

편은 기자 생활을 했는데, 집에 돈을 가져오지 않는 가장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가정폭력의 문제로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매 맞는 생활이 반복되었다고 말한다.

Q. 남편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A. 연애 했어요. ... 길에서 만났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커피 한잔 하자고 ... 길 가다가 말 시키는 사람 많았어. ... 지금은 성희롱이라고 하는데 옛 날에는 그런게 많았지 ... 근데 끝이 안 좋았어...

A. 가지가지 다 해 ... 때린 사람도 무서울 정도로 나를 때리고 ...

②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결혼생활

가정폭력으로 점철된 결혼 생활은 힘들고 고생스러웠다고 회고한다.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으로 인해 구술자F는 생계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해야만 했다. 가내수공업이라 불리는 수많은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나갔으나, 불성실한 남편과의 관계는 끝내 회복될 수 없었고 자식들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게 되고 말았다.

Q. 생활비는 잘 갖다 주시고?

A. 안 갖다 줘서 내가 알바했지. ... 그 때는 부업이 많았잖아. .. 뭐 붙이고 이런게 많았어. .. 그런 거 하고 하회탈도 닦고 ... 신나로 닦고 ... 그런 거 많이 했어 ... 많이 해가지고 병도 많이 앓았었어. ... 너무 오래 해가지고 ... (신나 때문에) 머리가 계속 아프고 냄새나고 그랬지 ... 그래서 병원 다니고 그러다 보니 .. 그게 신나중독이래 ... 근데 그게 수입이 괜찮았어.

A. 아들은 지금도 아버지 제사 안 지내.

(3) 노년기

① 이혼 그리고 기초수급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결혼 생활은 성인이 된 자녀들의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별거와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구술자F는 혼자 모아 둔 얼마간의 돈으로 생활을 이어나갔다. 또한, 소일거리로 일감을 찾아가며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차에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란 믿음으로 5년 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대상자를 신청하고 수급받게 된다.

Q. 수급자 정보는 어떻게 아시고? 수급은 얼마나 오래 받으셨나요?

A. 저도 이혼하고 신청한거야 혼자 모아 놓은 돈도 있고 그랬어요. .. 그때는 소일거리도 조금씩 하고 수급자 안 되도 좀 하고 그랬어요 ...

A. 저는 음식 좀 하니까 ... 반찬 만들고 도우미 일도 하고 그랬죠 ...

A. 저는 몰랐는데 동네 할머니가 혼자 사니까 ... 월세 살고 .. 그래서 이런거 수급자 받을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 날 잡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그걸 신청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줄 알았지 ...

A. 오래됐죠 .. 한 5년 됐나..

Q. 신청하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A. 그치 근데 임대주택 안하는게 나을뻔했어 ... 지금 8천인데 우리 돈이 4백 들어갔는데 ... 지금은 1억천까지 하는데 집이 없어요 ... 집 값이 다 올라 가지고 ...

② 사회적 관계·지지망은 수급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재 F의 사회적 관계망은 수급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찾아서 참여하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생활을 한다. 수급자가 된 이후로 구술자F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새로운 수급 정보를 듣고 확인하고 수급받는 것이다.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지라도 다른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기초 수급자라고 하면 다 무시해요”라는 말처럼, 기초수급자는 일종의 낙인처럼 작동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는 비슷한 수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Q. (코로나로 인해) 작년 봄부터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진 거죠?

A. 주민센터에서 저녁 9시까지 더위 피하는 쉼터 연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 쉼터가 내려져 있더라고 ... (그 전에는 활발하게 사람들 만나셨나봐요?) 그쵸 운동도 하고 ... 여기 같이 텃밭하는 사람들이랑 복지관 사람들이랑 ... 원래 여기 같이 몇 년씩 텃밭하고 그러는거 같이 하는 사람 있는데 ...

Q. 텃밭 정보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A. 누가 인터넷 들어가서 구청 홈페이지에 신청하라고 그러더라고 ...

Q. 혼자 계시면 세끼는 잘 챙겨 드세요?

A. 코로나 전에는 매일 여기서(복지관)에서 점심 한끼를 줬는데 지금은 대체식으로 일주일치를 주는데 ... 금요일에 받아 가서 먹는데 ... 매일 와서 먹는 것보다 반찬을 그렇게 주는게 낫더라고 ... 반찬을 주는게.

A. 여기가 반찬을 잘 줘요 ... 수급자들은 공짜로 먹고 일반인은 3500원인데 ... 여기 다른 동네에서도 와서 먹어요 그리고 관장님이 성품이 너무 좋으셔

서 .. 여기 인덕원이라는 절에서 하는 곳이 있어요 .. 국가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공무원이 아니고 재단에서 하는 거야 .. 인덕원 재단에서 하는 ...

A.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교회도 아는 사람 많죠 ... 젊은 때는 등산도 많이 했는데 결혼 하고 나니까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 니가 뭘 그런 걸 해 ...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 ... 그리고 교회 가서 이거 저거 활동하는 것 외에는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해 .. 교회만 가게 하니까 .. 근데 헤어지고 자유부인이 된 거지 ...

③ “수입이 들어오면 깎여”: 수급에 묶여 버린 생활

1950년생인 구술자F는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보였다. 실제로, 젊을 때는 음식이나 반찬을 만들어 팔거나, 도우미 일 등을 해왔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된 5년 전부터는 생계급여와 노령연금에 의지해 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생활 버팀목은 되었지만, 지금은 “손발이 묶여 버렸다”고 표현하듯이 추가 소득의 발생이 생계급여의 차감으로 연결되어 일거리를 찾는데 소극적으로 되었고 수급 자격에 묶여 버렸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건강도 괜찮은데 멀쩡한 사람 팔다리 묶어 놓았다고 불평하며, 가계에 도움이 되는 소일거리를 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 없음에 매우 아쉬워한다.

Q. 자녀분이 어디에 계신지?

A. 어느 날 손주 또래 애들 보면 막 눈물이 나고 그래 ... 보고 싶어 가지고 ... 지금도 눈물이 그렇게 나. ... (기초수급자는 근데 외국을 못 나간다고 ... ?) 우리 딸은 유방암 수술해서 그걸 나한테 보내줬어. 병원에서 떼준 진단서를 보내 줘서 ... 내 자식도 미국에 있는데 거기 심사할 때 그거 보여주고 들어갔지. 근데 저도 진짜 필요하게 나라에서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 사실 우리가 기본적

인 생활 하는게 빠듯하잖아요 ... 근데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 복지관에서 보면 아르바이트 하는 일자리가 있잖아 .. 노인일자리라고 학교 앞에서 깃발 들고 하고 따릉이 관리 몇 가지 있는데 .. 한 달에 27만원인가 그래 ... 그거 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더라고 ... 넉넉하진 않더라도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 그래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 수급자는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야 ... 그러면 손발을 묶어 놓은 거잖아요 ...

(수입이 들어오면 깎여~ 코로나로 30만원씩 주는거 그거 때문에 5만원 깎였어 ...)

A. 맞아. ... 그래서 나보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 그래서 내가 진짜 대통령한테도 건의하고 싶은 게 ... 수급자들도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적 금액으로 일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인터넷도 그런 얘기 많아요. ... 멀쩡한 사람 팔 다리 묶어 놓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하면 어떡해. ... 조금 움직여서 수입 창출하면 좋지.

9) 사례9-구술자G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G는 충북 흥덕에서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방탕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가세가 기우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자랐다고 회고한다. 아버지의 낭비와 방탕으로 가세가 더욱 기울어, 8남매가 공부하기에 벅차게 되었다. 하지만, 구술자G는 집안의 장남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되었다. 어려운 형편에 대학을 꿈꾸진 못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하여 공부하지 못한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다.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어려워진 가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20대를 보내고, 그 당시에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31세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IMF 사태 이후에 30년간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다. 퇴직 후 알게 된 자산 탕진으로 배우자와 불화를 겪게 되었으나, 뇌출혈로 쓰러진 배우자를 약 10여 년 간호하고 홀로 남게 되었다.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노후 자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음에 매우 실망하였으나, 현재는 두 아들의 생활비 보조로 유령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 1944년 충북 흥덕에서 출생
- 1960년대 국내 유수의 보험회사 입사 (30년 근속)
- 1997년 IMF 구조 조정 퇴사
- 2009년 사별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장남으로서 무게감

구술자G의 가정은 가문의 가장 큰집이었고, 그는 그런 집의 8남매 중 장남이었다. 아버지의 낭비와 방탕함으로 살만했던 집안은 나날이 기울어져 갔다. 그래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구술자G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곧장 돈벌이를 위해 직장을 구해야 했다.

Q. 어릴 때는 어떠셨나요?

A. 올 집이 큰집이여 내가 8남매의 장남이고 ... 아버지가 술 마시고 놀음 하고 그런 걸 좋아하셔서 ... 가산을 탕진했지 ... 못 산건 아닌데 ... 먹고 살기 힘들어서 ... 나만 고등학교까지 다녔지 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못 했지 ...

(2) 청년기·중년기

① 장남으로서의 책임감과 늦은 결혼

어려서부터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구술자G는 동생들의 생활과 기울어진 가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회고한다. 당시에는 상당히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 31세에 결혼하게 된다.

Q.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A. 고등학교까지 공부한게 나밖에 없어서.... 집은 계속 어렵고 ... 그래서 결혼 생각은 못하고 계속 일해야 생각했지 그러다 31살에 중매로 좋은 사람 있다고 그쪽도 어려운 집에 만이라고 해서 ... 맘이 맞아서 결혼했지 ...

② IMF의 충격과 사라진 재산

늦게 결혼한 구술자G는 회사 다니면서 버는 모든 것을 아내에게 일임하였다. 아내 역시 어려운 집안의 만이로 열심히 이것저것 사업을 하였는데, 식당부터 건설 중장비 사업까지 꽤나 큰 사업을 일구었다고 회고한다. 하지만, IMF 구조조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하고, 그 동안 아내에게 맡겨 두었던 경제 상황을 확인한 구술자G는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아내가 관리하던 재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가정에서는 잦은 싸움과 다툼이 발생하였다.

Q.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인가요?

A. IMF지 구조조정... 그 때 한 삼십년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 났지 정년까지 할 줄 알았는데 ...

A. IMF 후에 중소 보험회사에서 상무나 전무 등으로 잠깐 일했는데 ... 별로 일할 생각이 없었어.... 그냥 그 동안 모아둔 돈으로 노후나 준비하고 살려고 했지 애엄마한테 그간 모아둔 돈이 어디 있냐니까 ... 아무 말도 못해 예전에 갓돈 떼이고 했던 건 알았는데 ... 이건 뭐 어떻게 됐다 안됐다 말이 없으니 ... 그것 땀에 참 많이 싸웠어 ... 근데 지금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 몇 천도 아니고 수 억이 .

(3) 노년기

① 배우자 병간호와 사별

늦게 결혼한 구술자G는 모든 경제권을 아내에게 일임하였다. 아내 역시 어려운 친정을 도와주며 열심히 부업을 하고 있다고 믿었던 구술자G는 IMF 이후 그 동안의 모든 자산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재산이 사라진 후 구술자G의 가정불화는 극에 달하였다. 수년간 이어진 가정불화 가운데, 구술자G의 배우자는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고 10여 년간의 투병 끝에 사별하게 되었다.

Q. 많이 싸우고 힘드셨겠네요?

A. 많이 싸웠어 ... 근데 말을 안하니... 아직도 몰라 ...(그 돈이) 어디 갔는지 ... 그러다가 2002년인가 애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어... 뭐 어떡하겠어... 처음 몇 년간은 거동은 괜찮았는데 ... 나중 몇 년은 아주 걸지를 못하더라고 ... 한 십년 했지

② 체념의 일상적 무력감과 외로움

구술자G의 소득은 노령연금으로 받는 15만원과 두 아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를 합쳐 월 100만원으로 생활한다. 구술자구술자G는 100만원으로 생활하는데 부족함은 없다고 표현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부족함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한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한다. 외롭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일상에서의 삶이 매우 제한적이고 혼자 모든 걸 해야 하는 것이 싫다는 표현을 내비친다.

Q.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세요?

A. 아침 6시에 일어나서 ... 근처 충북대에서 산책하고 ... 주로 집에 있고 ... 가끔 친구들과 산에 가고 ... 명절 때에는 아들이 집에 오는데 ... 명절 당일에는 큰집이라 제사 준비하고 ...

A. 여기에 동생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 반찬 같은 것들은 동생들이 해다 줘 ...

A. 심심하면 ... 티브이 보는 거지 ... 그냥 틀어 놔 ...

A. (사시는 지역에서 노인회나 다른 활동에 참여하시는지?) ... 안해 ... 뭐 친구들도 있고 한데 ... 뭐하러 ... 근데 혼자 다하니 ... 재미가 없어 ... 그래서 잘 안 먹어 ... 어딜 잘 안가 ...

10) 사례10-구술자H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H는 서울의 보통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경찰 공무원인 아버지 슬하에서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랐고, 큰 탈 없이 평범하게 고등학교(여성)을 나와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다. 평범한 회사 생활 속에서 만난 평범한 남자와 사내 결혼을 하였다. 하지만, 평범하게 보였던 남자는 극심한 의처증에 사로 잡혀 있었고, 의처증에 시달리는 결혼 생활은 바람, 음주, 도박, 폭행 등의 온갖 시련으로 점철되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이혼하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단절되어 홀로 살고 있다. 기초수급 자격을 얻어 임대주택에서 생활하지만, 기초수급자격 유지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일할 생각은 없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회적 관계·지지 네트워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여전히 누가 기초수급자인걸 알까봐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한다.

- 1953년 광주에서 출생하였으나, 어린 시절엔 주로 효자동에서 생활
- 1970년대 결혼 후 강서구에 터를 잡고 약 30여 년 거주
- 2000년 이후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생활하기 시작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후 은평구로 이주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경찰공무원인 엄격한 아버지 슬하에서 평범하게 자람

구술자H는 광주에서 출생하였지만,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스스로 평범하다고 말하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당시의 대개 많은 여성들이 그러했듯이, 평범하게 고등학교(여상)를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취직하였다고 회상한다.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과 사내 결혼하였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조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바람둥이에 가정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Q. 결혼 전 형편은? 그러면 남편 분과는 어떻게?

A. 저는 보통이었어요 ... 아버지가 경찰공무원이고 ... 서울 시내에 살고 ... 뭐 부잣집도 아니지만 모자라지도 않고 ... 그냥 평범했어요 ...

A. 저는 사내 결혼했어요. ... 사내연애로 ... 근데 바람둥이란 걸 몰랐지 ...

(2) 청년기·중년기

① 평범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 그리고 마음과 육체의 상처

구술자H는 고등학교(여상) 졸업 후 취직까지 그냥 평범했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사내에서 만나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이 일상화된 상처로 남게

되었다. 실제로 구술자H는 지금도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하고 몇 날 며칠씩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상처로 남은 결혼 생활에서 가족 간의 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Q. 남편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A. 저는 사내연애했어요 ... 근데 바람둥이라는걸 몰랐지

A. 바람만 피우면 이혼 안하는데 ... 음주, 도박, 폭행 ... 옛날에는 부부싸움 하다가 터지고 ... 제가 허리 지금 아픈 것도 남편이 나 고꾸라졌는데 허리를 밟고 그래서 내가 지금 허리가 이런거야 ... 신고하면 뭐해 .. 신고했다고 더 맞아 ... 경찰도 집안 일은 집에서 처리하라고 그러고 가버려 그러고 왜 살았나 몰라 ... 일찍 이혼했으면 돈 더 모으고 살았지 ...

Q. 생활비는 잘 갖다 주시고?

A. 돈 잘 안 갖다 줘요 ... 도박하고 그때는 쟈돈 들고 그러는데 ... 그런 거 타다 놓으면 ... 여자 건드리고 도박하고 그러면서 싹 털어가고 그랬어 ...

Q. 그러면 자녀분과 아버님들과의 관계는?

A. 우리 아들은 아빠 전화 안 받아서 .. 나한테 전화 와 ... 왜 안 받냐고 ... 그만큼 아빠한테 쌓인 게 많아서 상대하기 싫은 거야 ...

A. 지 아들 지하고 닮았는데 ... 지 자식 아니라고 그랬었다니까 ... 어릴 때는 ...

② 늦은 이혼과 생계를 위한 대리운전

구술자H는 가정폭력으로 점철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생계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회고한다. 구술자H는 술 중독자인 남편을 태워 오기 위해서 했던 운전을 경험 삼아 생계 현장에 뛰어들었다. 초창기에는 여성 대리 운전기사로서 겪는 어려움에 올랐고, 폭력적인 결혼 생활에서 얻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이중고를 겪기도 하였다.

Q. 그 때는 어떻게 생활을?

A. 저는 대리운전을 좀 했었어요 ... 제가 운전을 잘 해가지고 남편이 술 중독자라 어딜 가도 제가 운전을 하고 데리러 가야해서 ... 근데 자본도 없고 ... 경험도 없고 .. 허리가 디스크라 설거지도 못해요 ... 구부리지를 못해서 ... 근데 친구가 대리운전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 여자니까 산골 같은 곳 가면 무서워요 ... 구파발 간다고 해서 잡으면 깊이 들어가면 못 나와 ...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 ... 무서워가지고 ...

Q. 대리운전은 얼마나 하셨어요?

A. 년 수로는 꽤 했지 ... 초창기부터 했으니까 ... 허리 뚝 하면 그냥 3개월은 누워 있어야 해 ... 생활이 어려워 ...

A. (디스크 관리는?) 정형외과에서 하는데 ...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 나이 먹고 하니까 ... 골다공증도 있고 하니까 ... 그냥 약만 먹지 ... 수술한 사람도 수술하지 말라고 해 ... 돈도 없어서 못하지만 ...

A. 대리운전도 힘든게 .. 나이가 많으면 콜을 잡았다가도 취소를 해버려요 ... 대리기사 정보가 가니까 ... 내가 나이 먹으니까 예전보다 뭔가 감도 떨어져 ... 그래서 이게 나이 먹는 거구나 싶어 ... 두렵기도 하고 ... 사고 나는 상상도 자꾸 되고 ... 요즘에 사고나는 것 ... 자꾸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그런 프로 보면 내가 더 불안하고 그래서 못 하겠어 ... 70 되면 면허증 반납하라고 자꾸 그러

니까 .. 나라에서도 일하게 도움을 안 주잖아 ...

(3) 노년기

① 이혼 그리고 로또 보다 좋았던 기초수급자 선정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결혼 생활은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구슬자H는 얼마간 혼자 힘으로 생활했지만 얼마가지 못하고 허리가 안 좋아져 보증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던 차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2년 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대상자를 신청하고 수급받게 된다.

Q. 수급자 정보는 어떻게 아시고?

A.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증을 까먹었었어요 ... 그래서 사정이 어렵고 오갈데가 없어지니까 ... 우리 동네에 수급자 엄마가 왜 이려고 있냐고 ... 자기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 그래서 ... 아들과 아버지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 아들은 이혼하면서 안보고 살기로 해서 얼굴 안보고 살기로 했어 ... 내가 애들한테 십원 한 장 받는게 없거든 ... 아버지는 구십이 넘었는데 .. 한 번 거절 당해서 못 가다가 ... 체면이 문제냐 싶어서 또 갔지 ... 동생네 집에 주민등록 옮겨 놓고 .. 떠돌이는 아니지만 주민센터 여기 가 보래서 갔는데 ... 여직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 간호사분이 옆에서 얘기를 듣더니 이런 분 해드려야지 누구를 해주냐고 ... 그 분이 은인이야 ... 그래서 다시 서류 신청 했더니 그 직원이 바뀌었더라고요 ... 담당 직원이 ...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해줬어요 ... 그래서 보조금이 나와 가지고 ... 원룸에 좀 있었죠 ... 무슨 관리대상? 이라고 있더라구요 ...

A. (계속 혼자 사시고?) 네 그래서 원룸에 있었는데 거기서 신청하니까 ... 실사

나오고 그래 가지고 복지사가 그것도 다 도와줬어요 ... 그래서 됐어요 ... 수급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원룸에 40얼마 내고 있었거든요 ...

A. (그때도 일은 하시고?) 허리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었죠 ... 그래 가지고 수급자가 되면서 LH지원 받아서 방을 얻어서 왔어요 ...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말 해줘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 로또된 것 보다 더 감사하죠 ...

② 사회적 관계·지지망은 수급자 네트워크와 남아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현재 구술자H의 사회적 관계망은 수급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찾아서 참여하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생활을 한다. 수급자가 된 이후로 구술자H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새로운 수급 정보를 듣고 확인하고 수급 받는 것이다. 또한 구술자H는 수급자인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지지망을 유지하고 있다.

Q. 요즘 하루 생활이 어떠세요?

A. 너무 덥고 땀이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흘려요 ... 어디 갈 수도 없고 가기도 힘들고 ... 더우니까 머리가 땡 해서 어쩔 때는 빙빙 돌아요 ... 더워서 많이 힘들죠 ...

A. (혼자 사니까) 네 그래서 말 한마디 안하고 그냥 하루가 끝날 때가 많아요 ... 코로나 아니면 복지관 가서 에어컨도 켜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 네 그래서 요 며칠 우울해 ... 우울증이 와 ...

Q. 텃밭 정보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A.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 텃밭 없으면 신발 신을 일도 없어요 ... 저는 시

장도 안 가는데 ... 텃밭 와서 풀이라도 뽑고 물이라도 주고 그러는 거지 ... 근데 요즘 너무 더워서 잘 못 만나지 ...

Q. 혼자 계시면 세끼는 잘 챙겨 드세요?

A. (코로나 전에는 매일 여기서(복지관)에서 점심 한끼를 줬는데 지금은 대체식으로 일주일치를 주는데) ... 반찬은 잘 줘요 ... 소고기도 주고 ... 돼지고기도 주고 ... 되게 잘해줘요 ...

A. (그러면 요리는 안하셔도 되고?) 생으로 주니까 다 줄여서 먹고 그렇게 해야 되요 ... 끓여서 먹어야죠 ... 생이로 주는 있고 하는데 ... 여기가 반찬을 잘 줘요 ...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서 ... 수급자들은 공짜고 일반인은 3500원 ... 다른데서도 여기 와서 먹어요 ...

A. 제가 강서구에서 36~7년 살았는데 ... 거기로 이사하려고 영구임대주택 근처로 두 번 넣었는데 두 번 다 떨어졌어 ... 근데 시간 지나니까 여기서 이사 가기가 싫어 ... 여기 친한 언니도 생기고 복지관 혜택도 많고 프로그램도 아주 많아요 ... 컴퓨터나 영어 회화나 운동이나 없는데 없어 ... 탁구도 있고 ... 그래서 이사갈 마음이 없어졌어요 ... 그 정도야 ... 아주 너무 감사하죠 ...

③ 누가 나 기초수급자인 거 알까봐 싫어

1953년생인 구술자H는 고질적인 허리(디스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보였다. 실제로, 직계 가족과 함께 골프를 즐긴다든가 다양한 운동 동호회에 참여하는 등 매우 활동적일 때가 많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된 2년 전부터는 생계 급여와 노령연금에 의지해 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생활은 되었지만, 지금은 누가 기초수급자인 것을 알까봐 두려워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한다.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자식들을 방문하고 함께 여행했던 것들을 추억하면서, 지금은 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까봐 해외여행을 못 한다고 아쉬워한다.

Q. 자녀분이 어디에 계신지?

A. 자녀(딸 내외)가 선교사라 해외에 있어요 ... 그래서 자주 만나기 어렵지 ...

A. 기초수급자는 근데 외국을 못 간다고 하더라고 ...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갔어요 ... 많이 갔는데 .. 동사무소에서 와 가지고 담당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남들이 그러더라고 ... 저는 막 돈도 없고 ... 근데 애들이 갈 때 같이 데려 가고 그랬는데 ... 난 베트남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태국도 갔는데 .. 그러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고 하더라고 ... 그래서 무슨 자식도 잘라 놓는데 뭐 돈을 얼마나 준다고 그거야 ... 임대주택 주는거 빼면 20만원 남짓인데 ... 자식도 그렇게 같이 못다니게 하는 기초수급자가 어디 있어 ... 내가 그랬더니 담당자가 1달 안에 들어오면 된다고 하는데 ... 원래 석달인가 그랬다는데 ... 그게 나빴지 .. 자식을 보러 간 건데 못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

A. (일도 못해) 수입이 들어오면 깎여 ... 코로나로 주는 것 때문에 또 5만원 깎였어 ...

Q. 평소에 많은 사람을 만나세요?

A. 저는 다수의 사람은 만나지 않아요 ... 여기 오면 ○○언니만 만나요 ... 저는 운동 동호회가 많아요 ... MTV라이딩 동호회도 5년 했었고 그랬어요 ... 사대강 가는 것도 하고 다 해봤는데 ... 제주도 빼고 다 가봤어 ... 자건거 지금은 남 줘버렸지 ... 지금은 친한 사람만 좋고 너무 많은 사람 아는 건 싫은게 ... 누가 나 기초수급자인거 알까봐 ...

11) 사례11-구술자I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I는 1939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출생했다. 위로 오빠 3명과 언니 3명이 있었고, 구술자I와 남동생이 집안의 막내였다. 구술자I는 어린시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버지는 일하지 않으셨고, 어머니가 장사해서 8남매를 키웠다고 하였다. 구술자I 역시 어린시절부터 공장, 식당 등 가계를 위해 일해야 했다. 구술자I는 셋째 언니의 소개로 동향 사람과 결혼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해 9년만에 이혼하고 친정식구가 이사해 올라와 있는 서울로 왔다. 서울에서 혼자 살며, 식당 종업원, 식당업 등의 일을 하였다. 간간히 큰오빠와 작은오빠의 딸들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면 홀로 지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기도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며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다.

- 1939년 출생
- 1960년 결혼
- 1969년 서울로 이주
- 2006년 (현)임대아파트 입주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가난한 집, 일하지 않는 아버지

구술자가 기억하는 어린시절은 항상 먹을 것이 없었던 가족과 일하지 않는 아버지이다. 구술자의 아버지는 소위 '반건달'같은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아 구술자의 기억에 그저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으로의 기억만이 남아 있다. 구술자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먹고 살만했다고 하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일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장사해서 구술자의 8남매를 먹이셨다고 하였다.

Q.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무슨일을 하셨어요?

A. 어머니, 아버지 하신일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하신일이 없어. 어머니는 우리 8남매를 벌여 먹이려니까 장사를 많이 하셨대. 우리들은 몰라 잘. 철없을 때니까. 어머니 얘기 들어서 알지. 그때는 그런것도 걸린데. 곡식을 많이 가지고 다니며. 그래서 애처럼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애처럼 업고, 뒤편쳐서 그러고 다니면서 팔고. 뭐 장사해서 쌀 받아먹을 게 없거든. 그거. 그랬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별 장사를 다했나봐. 머리가 여기(정수리를 가리키며) 다 빠지고 없어.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아버지는 건달, 반건달. 옛날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막내아들로.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관찮게 살았는데. 그 때부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떻게 되가지고 그렇게 됐나봐. 우리는 그 때는 모르지 철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8남매를 벌여 멕(먹)이느라고 공부도 못시키고.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 아버지 대신 장사를 하며 생계를 부양한 어머니가 구술자I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이다. 어머니가 장사를 하셔서 벌어오는 돈으로 8남매를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구술자I와 형제들은 정규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② 학교 대신 공장에서 일한 소녀

구술자I는 너무 가난해서 국민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하였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구술자I의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오빠들은 중학교를 다니다 말았고, 막내 남동생은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하였고 하였다. 언니들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어린시절부터 공장에 다니거나 집을 떠나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한다.

구술자I는 국민학교를 다니지 못한 대신 야학에서 잠깐 한글을 배웠는데, ‘예쁘지 않게 이름을 쓸 수 있는’ 수준이었다. 구술자I는 학교에 다니는 대신 과자를 포장하는 공장에서 일해서 생계를 도왔다. 구술자I는 정확하게 몇 살부터 공장에서 일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열대여섯살 때부터’ ‘과자’를 만들고 ‘사탕’을 싸는 일을 했다고 하였다. 구술자I가 일을 할 때 종종 어머니가 남동생을 구술자I가 일하는 공장으로 보내 공장장에게 미리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였다.

Q. 그래도 오빠분들은 공부를 하셨네요?

A. 그래도 오빠들도 크게 배운거 없지. 기술을 기술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별로 크게 저기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잘 사는 오빠들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공장 다녀갈고, 과자 공장에 다녀갈고, 벌어서 남동생,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살고. 쌀 떨어지면 가불해오라고 동생을. 남동생을 보내 공장으로. 그럼 또 사장한테 얘기해서. 몇 푼 땅겨가지고, 가불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렇게 살았어.

구술자I의 유소년기는 가난한 어린시절과 많은 형제들, 가난으로 인해 받지 못한 정규교육과 야학, 공장에서 일을 해서 식구들을 부양했던 기억으로 요약된다.

(2) 청년기

① 아이 못낳는 여자와 시어머니의 괴롭힘

구술자I는 결혼 이후 9년간 남편과 같이 살다가 아이를 못 낳아 이혼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동안 신랑쪽을 알고 지내던 셋째 언니의 중매로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시가가 진도에 있었는데, 시가와는 떨어져 살았지만, 시어머니가 애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 구술자I를 구박하고 남편에게 새장가를 보내겠다고 지속적으로 말했다고 하였다. 사실 남편은 아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지속적으로 구술자I에게 아이를 낳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시어머니의 아이 못 낳는다는 한탄은 구술자I의 인생 중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하였다. 구술자I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결혼한지 9년 만에 남편과 헤어져 혼자 살았다. 혼자 생계를 부양하며 살아온 시간보다 남편과 함께 살며 시어머니의 구박을 들었던 것이 더 힘들었다고 하였다.

한편 구술자I는 남편과의 결혼생활 동안 가끔 진도에 있는 시가를 방문하였다. 시가에 갈 때면 외부 출입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

이 못낳는 여자라는 수군거림을 듣기 싫어서였다고 했다. 구술자I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은 시댁뿐 아니라 시댁의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구술자I는 자신이 어려움이 동네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사실이 절망감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Q. 그래서 거기서 사실 때 아이를 못 낳는거 말고 다른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A. 그거 한가지 맨날 우는 거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장가 보낸다고. 그 시골 집이니까 시가집도 며칠 가서 있다오고 그러는데. 동네 물길르러 가면 요렇게 내다보면 집에서 보이니까 보고 사람들이 둘만 있어도 안갔어. 내가 물길르러. '저 아까운 사람이 왜 애를 못 낳을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똥이나 버리지 버릴 거 없는데 애를 못 낳는다고. 그래서 저렇게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거야. 그러니까 보고 사람이 있으면 안가고 한사람 있으면 가. 물길르러. 그냥 그러고 저러고 살다가...너무. 9년동안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어 내가.

이후 구술자I는 남편과 헤어져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였다. 구술자I가 결혼 하였던 동안에 가족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구술자I에게 남편과 헤어져 서울로 올라오는 것은 어찌보면 쉬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홀로, 끊임없이 일해야 먹고사는 삶

서울로 올라온 이후 구술자I는 잠깐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했다고 하였다. 부산에서 사는 큰 오빠 대신 조카딸을 학교에 보낸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혼자 살았다. 구술자I는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했지만, 늘 돈이 부족했고 밥을 굶는 날도 있었다고 하였다.

Q. 공장에서는 하루에 몇시간이나 일하셨어요?

A. 기억 안나. 그리고 커서는 어른 되어서는 식당에서도 일하고 밤에 하는 24시, 밤새는 순대국집에서 교대로 장사도 해보고. 해서 월급받고 그냥 그랬어요.

Q. 진짜 일을 많이 하셨네요.

A. 응. 고생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했고. 그래도 애 못낳는다고 구박받을때보다는 덜 울었지. 그때 아이스케키 통 짊어지고 아이스케키 장사도 했었지. 먹고 살라고. 그것도 잘 안되고 밥도 굶어보고.

구술자가 가장 많이 했던 일은 식당에서의 일이다. 여러 식당을 전전하며 음식만들기부터 설거지, 서빙까지 다양하게 일을 했지만 돈은 항상 부족했다고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초기에는 아이스케키 장사를 했지만 잘 팔리지 않았고 이후에는 주로 식당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하였다. 구술자는 돈이 없어 종종 식사하였는데, 가끔 남동생이 같이 사는 형수 몰래 쌀을 가져다 주어서 먹기도 했다고 하였다.

가난한 가족과 많은 형제들, 어린시절부터 부족했던 교육자본과 경제자본, 결혼은 하였으나 이혼으로 인해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구술자구술자가 안정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얻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얻기 위해 구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많이 일하고 수입을 획득하는 것이었으나 아이스케키 장사를 실패했을 때의 사례처럼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구술자의 빈곤은 지속되었다.

(3) 중년기

① 죽은 오빠 대신 조카의 보호자 역할을 하다

구술사 구술자I 원가족의 가난은 구술자I 한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8남매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지만 모두 가난한채로 살았다고 하였다. 다만 형제자매와 조카들로 이어지는 친족간의 연대는 강하여 서로 돕고 살았다고 한다. 구술자I는 이 시기에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식당 운영으로 번 돈은 조카딸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구술자I의 큰오빠는 조카가 어렸을 때, 군인을 갔다가 전사했다고 하였다. 구술자I의 부모님과 구술자I가 조카딸을 예뻐해서 친자녀처럼 키웠고, 구술자I가 이혼하기 전에는 시가가 있는 진도에 데리고 가서 며칠 머물다 올라오기도 했다고 하였다. 서울에 올라온 후 조카딸은 미싱공장에 다녔는데, 구술자I는 오빠를 대신해 조카딸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 조카딸이 27살에 시집갈 때까지 생활비를 구술자I가 지원하고 조카딸은 공장에서 번 돈을 모아 시집을 갔다고 하였다.

Q.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운영을 하셨어요?

A. 그때는 내가 주인이야. 조그만 식당을 운영을 했어. 조그만 식당하고 방하나 그렇게 얻어가지고. 그래서 식사도 팔고 그런걸 해 가지고 우리 조카딸. 그래도 남자들이 드나드는 식당이잖아. 애는 아가씨고. 그래서 조그만 방을 하나 얻었어서. 그때 그래서 개는 자고, 밥만 식당가서 먹고. 직장가고. 직장을 보내야 월급을 받아야 (돈을) 모을 것 같아. 그래서 시집보내야 할 것 같아서. 미싱하러 댕겼거든. 옷 만드는데. 그래서 월급 받아오면 그걸로 계를 들어줬어. 그래서 밥은 다 내가 먹여주고. 차비도 내가 주고. 지가 번돈은 얼마나 돼. 미싱사 그게. 그거 계들어서 그거 시집을 보냈어.

가장이었던 큰 오빠의 부재는 생계부양자의 부재로 이어지고, 역시 가난할 수 밖에 없었던 조카딸은 미싱공장에 다니면서 겨우 먹고 살만큼 돈을 벌었다고 하였다. 고모인 구술자I는 자연스레 조카딸의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구술자I 원가족의 가난은 큰 오빠의 죽음과 함께 구술자I를 생계부양자의 위치로 내몰았고, 돈을 모을 수 없게 만들었다. 즉, 가난했던 가족의 생계부양자가 사라질 때 나머지 가족이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조금씩 감당해야 했고, 당장의 생계부양자 역할은 자신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4) 노년기

① 갑자기 찾아온 병, 병원도 동반인 필요

구술자I구술자II는 1년전쯤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였다.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은 며칠 전부터 어지럽고 집안일을 하거나 보행을 하기 불편했지만 혈압도 정상범위였고 당뇨도 없어서 몸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고 하였다. 구술자I는 몸이 심하게 불편해진 것은 일요일이었다고 하였다. 구술자I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데, 그날은 너무 몸이 불편하여 교회 가기가 힘들 것 같아 같은 교회에 다니는 동네 사람에게 전화하여 교회갈 때 구술자I의 집에 들려서 현금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교회사람이 무슨일이 있었는지 캐물었고, 구술자I는 몸이 불편하다고 하여 교인 둘이 방문하여 양주 병원으로 모셔갔으나 큰 병원으로 가기를 권유하여 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고 하였다. 병원에서 검사 후에 뇌경색이라고 진단을 하였고 이후 3개월에 한번씩 처방받은 약을 먹고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Q. 할머니 병원 가셨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A.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약간 뇌경색으로 쓰러졌어. 그레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그날 일요일이고 교회 갈날인데. 교회갈라고 봉투 해놓고 그날이 무슨 날이더라. 뭐? 추수감사절이래나 뭔 감사절날. 그니까 그 헌금할라고 돈 봉투에 넣어놓고 못가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사람, 여기서 다니는 사람있어. 그레 갈 때 우리집 좀 들러가라고 그거(헌금)라도 갖다내게. 그레 전화했더니 왜 그러시냐고 자꾸 그래서. 아이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어디가 아프신데 그러냐고 병원에 가면 된다고 그레.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더라고. 아프다 소리 처음엔 안 할라고 했었는데. 그레가지고 그럼 안 되겠다고 두 분이 쫓아와서 나를 병원에 성모병원에...양주병원에. 여기..무슨 병원?. (병원이름을 기억 못함). 그래서 인자 여기서 안 받아 주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인자 성모병원으로 나를 119 불러서 태워갔고 갔어. 교인들 두 분이서. 그래서 거기서 MR구술재 찍고, CT 찍고 별거 다 찍고 뇌경색이 왔다고. 며칠 전부터 불편해. 손도 못쓰겠고. 상 닦는데 손에 힘이 없고, 이상하게 어지러워서 보면 살림살이가 돌아. 그래서 어찌이러까(생각했는데). 나는 혈압도 없었거든.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리고도 병원에 안가...그게 힌트를 준건데. 그러기 전에 갔으면...얼른 병원을 갔으면.. 결국 며칠 상간에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날은 교회를 갈 날인데 알아갔고. 거기 가서는 두 사람이 나를 들어서 옮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3개월에 한번도 가서 약 타먹고 그레.

구술자I는 유일한 혈육인 조카딸들에게 연락했으나 마침 연락이 닿지 않았고 타인인 교회 사람들에게 헌금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을 했다. 다행히 교인들이 자꾸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를 물어 구술자I는 몸이 불편함을 이야기했고, 이를 들은 교인들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이동할 수 있었다.

구술자I는 병원으로 빨리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건강악화를 막을

수 있었지만, 퇴원 이후 일상생활을 하거나 병원이동을 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술자I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5일 후에 퇴원하였다. 퇴원 이후 집안일을 하기 힘들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생활보조를 요청하였지만 자격이 되지 않아 거부당했다고 하였다. 또한 구술자I는 거동이 불편하여 정기검진을 받으러 혼자 먼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가기 어렵다고 하였다. 유일한 동반자는 조카딸들인데 조카딸들은 각자 자영업과 직장생활을 하느라 평일은 시간내기 어렵고 구술자I의 거주지에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어 구술자I와 병원에 가려면 먼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구술자I는 조카딸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바쁜 사람들인데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였다.

이는 구술자I와 같이 혼자 사는 1인가구 노인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병원에 갈 때 혼자 이동이 어렵고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혼자서 가사노동을 하기 어려워한다.

② 강아지 유모차나 의지하고 걸어다니지

구술자I는 보행이 어려워 많이 걸어다니지 못하고 걸음이 느렸다. 구술자I는 4-5년전부터 협착증으로 인해 걷기가 어려워졌고, 전동차가 없으면 길을 다니지 못한다고 하였다. 면접 당시 구술자I 아파트 9층에 살고 있었는데, 겨우 옆동으로 이동할 수 있을 뿐 멀리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걷는 것 자체가 어려워 멀리 나갈때는 전동차를 이용하고 강아지와 산책할 때는 강아지 유모차에 의지해서야 걸을 수 있다고 하였다.

Q: 한번 산책나갔다 오시면 얼마나 걸리세요?

A: 아침에 그래봐야 뭐 한 30분... 우리 집에서 여기(옆동) 오는데도... 그래서 유모차 밀고 다니잖아. 강아지 유모차. 강아지들 태울 겸 나는 이거 붙잡고 가

니까...그래서 그거 밀고 다니잖아... 그리고 좀 먼데 이런데 가려면 전동차 타고
가고...

걸음 속도가 남보다 느리고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구술자¹가 외출을 하기
란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밖에 나가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길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하였다.

비노년과 같은 속도로 걷거나 이동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차와 사람이 함
께 다니는 골목길을 다니는 것은 노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위험
한 일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구술자¹와 같이 전
동차를 타거나 지팡이, 4족 보행기 등을 의지하여 이동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빠르게 이동하기 어렵고 먼 거리까지 이동이 어렵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도로일부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을
뿐 노인이 안전하게 골목길, 도보,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하다.

12) 사례12-구술자J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J는 1940년 충청남도 단양군에서 2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국민학교 2학년 무렵 6·25전쟁이 나서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다. 먹고 살만하던 전답은 부모님이 큰형에게 모두 물려주었다. 20살에 결혼했으나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 산전민으로 살며 3남 1녀를 키웠다.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후에는 아내와 단양군에서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지내고 있다. 근래 몇 년간 아내가 심장 수술을 비롯해 작은 수술을 5차례 하는 바람에 현재 아내의 간병을 도맡아하고 있다. 여전히 농사와 가사, 아내 돌봄까지 하느라 농사는 올해까지만 지을 생각이라고 하였다.

- 1942년 충청남도 단양군 출생
- 1961년 결혼
- 1962년 산전(山田)민의 삶 시작
- 2007년 현재의 거주지로 이전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전쟁으로 중단된 학교와 농사꾼으로 살기

구술자가 기억하는 어린시절은 그럭저럭 먹고살 만했다고 한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쌀밥은 못먹어도 보리밥은 먹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10집 중에 7-8집에 아침 한 끼만 밥을 먹고, 점심, 저녁을 죽으로 때운 것에 비해 구술자의 가족은 3끼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한 축에 속했다고 하였다.

구술자는 학교에도 다녔는데, 6·25가 나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고 했다. 구술자가 살던 충북 단양군은 전쟁이 났지만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갔다고 하였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면서 살았다고 하였다.

Q. 어렸을 때 공부는 어디까지.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어요?

A. 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지. 6·25사변에. 625사변에 학교 좀 땡기다가 6·25사변 나가지고 못땡겼지. 2학년까지 다녔어.

6·25 전쟁이 국가적 위기였기 때문에 교육을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이 중단된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린 소년이었던 구술자와 그의 가족이 교육을 중단하고 지속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직업에의 선택의 기회 역시 얻지 못하게 된다.

(2) 청년기

① 산전민의 삶

구술자는 21살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다고 하였다. 결혼 이전에 부모님이 형에게 모든 땅을 물려주었고 구술자는 형 밑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였다. 결혼하면서 독립을 해야 했으나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 산전(山田)을 해야 했다. 아내와 함께 독립한 이후 구인사(救仁寺) 밑에 있는 산에다 주로 오곡을 심어 수확하였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젊은 마음에 건강하면 뭐라도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에 산전을 시작했으나 평지가 아닌 산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하였다. 구술자는 아들이었지만 모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었던 부모님이 선택한 방법은 큰아들에게 전재산인 농지를 물려준 것이었다. 자연스레 둘째 아들이었던 구술자는 결혼과 독립 이후 자산이 부족했고 이후 30여년간 선전을 해야 했다.

Q. 부모님도 농사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때 땅이 있으신 거예요?

A. 우리 두 형제간이 있는데, 형이 차지하니까 나는 없지. 나는 물려받은 게 없지.

Q. 부모님이 형님한테만 땅 주셨는데, 어느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신거예요.

A. 저 뭐야. 어른들한테 물려받은 걸 형이 전부 가지고 있으니 안주면 그만이지. 그때만 해도 생각에 내가 젊는데 벌면 되지. 그때만 해도 (달라고 할) 생각을 안했지. 그까짓 거 내가 벌면 된다. 내가 건강해가지고 벌면 된다. 옛날에는 산전, 산전을 전부 일궈가지고 농사를 지었지. 그러가지고 한해 한해 살다가 자꾸 세월이 가니까 땅도 사게 되고 그렇더라고.

Q. 산전이 뭐예요?

A. 산에 올라가서 씨뿌리고. 콩, 팥, 오곡을 다했지. 5가지를 다하는 거요. 콩, 팥, 참깨, 수수, 오곡을 산전에다가. 나는 수확을 (많이) 못해. 옛날에는 비료가 있나? 그때만 해도 비료가 그렇게 안 나왔어. 거름도 그렇게 없었고. 고생했지. 그전(산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형한테 있었지. 결혼할 때 나왔지. 산전이라도 일 귀가지고 생활을 하니깐 생활이 피고 그렇더라고요. 산전은 구인사 밑에 채가동이라 하는데...내가 거기서 47년 살고서는 여기로 딱 내려왔어.

(3) 중년기

① 4자녀 뒷바라지와 끝없는 농사일

구술자의 중년기는 자녀 뒷바라지를 위한 끝없는 일로 요약될 수 있다. 구술자는 4명의 자녀를 키웠다고 하였다. 결혼 이후 땅이 없는 상태에서 산비탈을 일궈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소득은 생계와 자녀들의 학비로 쓰였다. 소득이 조금씩 있을 때마다 땅을 사기도 했지만 4명의 자녀가 계속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공납금, 등록금 등을 끊임 없이 마련해야 했다고 하였다. 등록금을 마련하는 주된 방법은 소를 파는 것이라고 하였다. 구술자는 3-4마리의 소를 키웠는데 소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하였다. 결국 선전을 하다가 산전을 정리하고 평지로 이사를 온 것은 결혼 이후 47년 만이라고 하였다. 구술자의 나이 58세 때였다.

Q. 자녀분들 다 공부시키는 거 어려웠을 거 같아요.

A. 만만치 않았지. 그러니까 만날 일만 해 가지고 소도 먹이고. 소를 주로 먹여 가지고 돈을 해 가지고 애들 공납금 끊어주고 그런거지. 이런 촌에서 4년 대학

보내는 거 참 힘들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 청(주)대 나왔지.

Q. 그러면 대학 등록금 빌리기도 하셨어요? 아니면 농사로 버는 돈으로만 했었어요?

A. 등록금이 나온다 이러면 준비를 다 해놓지. 그때는. 그때만 해도 돈이 귀할 때요. 돈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고. 그래 다음달에 등록금 나온다 그러면 송아지도 팔아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놓지. 소 키워야 새끼 나오면 애들 등록금 나오면 주지. 그때 3마리를 계속 키웠어. 새끼도 놓고 팔아가지고 계속 공부시켰지. 농사도 하고 소도 3-4마리를 계속 키우니까 새끼도 매년 한 마리를 낳아요. 매년 팔아가지고 애들한테 (등록금) 준거지.

(4) 노년기

① 홀로 하는 농사와 아내돌봄

구술자J는 80세인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는 생계수단을 위한 것이 라기보다 자신과 자녀들이 먹을 것 정도만 조금 하고 있다고 하였다. 구술자J는 무릎이 아픈 것 이외에는 그럭저럭 다닐만하다고 하였다. 구술자J는 마을 노인회장직을 맡고 있어 경로당과 노인회를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씩 읍내에 나가 노인회장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였다. 80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활발하게 활동하는 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화로 인해 신체활동이 둔화되어 활동을 줄여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구술자J는 농사를 짓는 것이 힘에 부쳐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쉴 생각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면접) 한달 전 심장 수술을 받은 아내가 가사일을 전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구술자J의 아내는 가사일을 조금 줄이고, 구술자J가 가사를 조금 돕는다고 하였다. 구술자J는 현재 농사, 노인회 관련 일들을 하고 있어 외부로 나가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

다고 하였다. 구술자J가 자신이 없을 때 아내를 잠깐씩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군청에 노인 돌봄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대상자가 독거노인이라 부부가 함께 사는 자신은 거절당하였다고 하였다.

Q. 그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할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A. 요새는 (아내가 아팠던게) 조금 회복이 된거 같아. 없어. 그래서 마침 그걸 신청을 했는데. 저 뭐야. 군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와가지고 두 내외 사는 건 안된다네. 그것 저 뭐야. 맞춤 서비스라던가. 그거는 안된다. 두명이 있으면 안되고, 혼자 있으면 맞춤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방도를 해야 되는 거는 돈이 들어간단 말여. 이걸 맞춤서비스를 하는 거는 돈이 안 들어가고 정부에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해. 그래서 그냥 뒀어.

두 사람이 함께 살지만 구술자J 역시 초고령 노인이라는 점에서 아내를 전적으로 돌보기 어렵다. 아내가 항상 누워있거나 심각한 질병 상태는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간병서비스를 받거나 요양병원에 보내기에는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아내를 돌볼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1인가구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부부로 이루어진 노인가구는 서비스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 지점은 노인들이 함께 사는 가구의, 혹은 노인이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할 때 나타나는 딜레마이다.

② 먹고 살만하지만, 아프면 방법이 없는

구술자J는 한달에 75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다. 수입금액은 자신과 아내의 노령연금을 합쳐 50만원, 국민연금 25만원 가량이다. 농사는 소규모로 짓

기 때문에 팔 생각이 없으나 콩, 팥, 고추 등의 밭작물과 작게 벼농사를 지은 쌀로 구술자J 부부의 자녀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남는 것은 가끔 장에 팔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나마 80만원정도 되는 연금이 있기에 생활비는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신이나 아내가 수술을 크게 할 정도로 아프게 되는 상황이 걱정이라고 하였다. 구술자J 자신도 몇 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고, 아내도 작년에 심장수술을 했다고 하였다. 다행히도 자녀들이 어느 정도 도왔고 큰돈이 드는 수술은 아니어서 감당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아파서 돈이 많이 들까봐 걱정이라고 하였다.

Q. 그러면 여기 할머니랑 사시면서 불편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A. 아직까지는 내 통장에 돈 있는거 가지고 쓰니까 아직까지 불편한 걸 모르겠어. 인제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정말 불편하지만. 내 병원에 가고 싶으면 가고, 우리 식구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하고. 아들한테 손벌리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Q. 그럼 사는데 부족하진 않으세요?

A. 농사는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없어.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안돼지.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구술자J는 국민연금을 중간에 한꺼번에 정산받았던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은 정산받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잘한 일이라고 하였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은 생활비까지 감당할 수준은 되고 정기적으로 가는 병원비 정도는 낼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프게 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고 하였다.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건강이 약해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나 수술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픈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되어 버렸다.

13) 사례13-구술자K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K는 1948년 서울 서대문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구술자K를 외가댁이었던 서대문에서 출산하였으나 원래 가족이 살던 곳은 안양이었다. 위로 오빠 2명이 있어 3남매 중 막내로 자랐다. 구술자K는 자신이 태어난 해보다 10년 늦은 1958년생으로 호적 신고가 되어 있다. 10년 어리게 호적 신고가 되어 노령연금 등의 혜택을 늦게 받았다.

- 1948년 서대문 출생
- 1962년 결혼
- 1998년 남편 사망
- 2006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위 획득
- 2008년 임대 아파트로 이주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어머니의 희생으로 먹고살았던 어린시절

구술자K의 부모님은 안양에서 쌀장사하셨다고 하였다. 당시 안양에는 큰 방직공장이 있어 시골에서 올라오는 공장노동자들에게 쌀을 팔아서 먹고 굶지는 않을 만큼 살았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일하시긴 했으나 술을 좋아해서 식구들을 먹여살림만큼 열심히 일하시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구술자K의 어머니가 살림을 위해 고생하였는데, 시골에서 잡곡을 받아와서 내다 파신 어머니 덕분에 5식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Q. 원래 안양에서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A. 그 때는 그렇지. 우리 엄마는 그때는 쌀장사를 해었기 때문에 굶는 걸 모르고 살았지. 고생 많이 했어. 옛날에 소쿠리 그거 한 통 가지고 시골에 가서 팔이니 뭐니 다 받아다가 해서 머리에 이고. 맨날 머리가 아프시대. 임질(머리에 물건을 이는 것)을 많이 해서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시기 시작하면서 구술자K는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특별히 지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체력이 약해 일을 많이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오빠들과 함께 천막에 지은 국민학교를 다니며 공부하였으나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왔다고 하였다. 오빠들도 큰오빠만 중학교까지 나오고 생계를 위해 일했다고 하였다.

(2) 청년기

① 가난한 남편과의 결혼

구술자K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채 함께 살았다고 하였다. 구술자K의 남편은 전쟁 당시 북한에서 가족과 함께 넘어 온 사람이라고 하였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지만, 몸이 약해서 돈을 잘 못벌었다고 하였다.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사우디에 가기도 했는데, 사우디로 남편을 보낸 회사가 건설하지 못해서 직원들에게 적절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남편은 1년만에 돌아왔다고 하였다. 남편과 구술자K는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했지만 몸이 약해서 일을 못 할 때가 많았고 사우디 해외취업 등 시도하는 일이 계속 실패해서 안정적으로 자신을 모으지 못했다고 하였다.

Q. 남편 분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A. 건축일. 건축일을 했어도 돈 별로 못벌었어. 의정부 쪽에서 살았지 거기서 또. 저사람도 혼자 살았었는데. 옛날에 사우디도 갔었어. 그때는 너무 태평양인가 망하는 회사로 가서 1년 만에 왔어.

구술자K 남편이 생계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벌어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술자K도 간간히 일했지만, 자녀들을 키우며 일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남편의 약한 체력은 생계부양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노후를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도 방해가 되었다.

(3) 중년기

① 일본을 오가며 한 노동

구술자K는 돈을 벌기 위해 주로 식당에서 일했다고 하였다. 40대에는 3년 정도 일본을 다니면서 일을 했다고 하였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지인의 설득에 일본에 있는 한국 식당에 취직하였다. 하지만 배타적인 일본 문화에서 구술자K는 15일마다 한국을 오가며 비자를 갱신해야 했다고 하였다. 관광비자로 일본을 드나든 것이어서 불법으로 장기간 체류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일본의 기후가 맞지 않아 병이 나고 마침 식당 주인이 한국에 오가며 음식 재료들을 사오라고 했기에 2주에 한 번씩 왕복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비행기값이 너무 많이 들고, 장거리를 여행하다 보니 돈을 별로 모으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Q. 일본 어느 지역에서 일하셨어요?

A. 일본에 오사카. 거기 한국사람 너무 많잖아. 근데 어딜 가나 주인한테 아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직설적이거든. 우리는. 그거 뭐 일본말 배우고 싶진 않고 다 한국 사람들이 장사를 해. 한국 사람들이 아가씨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없어 장사를 못해. 일본 사람 만나야, 결혼을 해야 가게를 얻지 한국 사람은 방도 안줘.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너무 거기 상태가 안좋고 그래서 온거지 뭐. 그리고 불법으로 있으면 돈을 좀 모으는데 불법으로 있으면 힘들어 나름대로. 좀 돈좀 벌으라고 불법으로 있었는데 금방 병이 나더라고. 한국사람 병이 잘 나. 거기 기운이 안좋잖아. 그리고 보름에 한번씩 왔다 갔다 하려니까 비행기 샀도 보통이 아니야.

(4) 노년기

① 혼자서는 뭘 먹기도 귀찮아

구술자K는 혼자 살면서 세끼 끼니를 대충 먹게 되었다고 하였다. 혼자 있으면서, 더군다나 근 2년간 코로나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어려워지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자연스럽게 식사도 집에서 혼자 먹게 되었는데, 혼자 있으려니 뭘 해먹기도 귀찮고 입맛도 없다고 하였다. 신체적 노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인 노년기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K와 같이 혼자 사는 노인들은 혼자 음식을 해서 영양소를 맞춰 먹기 어렵다. 코로나 이전에는 노인정에도 다니면서 함께 먹을 기회도 있었으나 코로나로 단절된 상황으로 인해 함께 식사할 기회는 감소하였다.

Q. 그럼 시장도 다니고 그러시나요?

A. 시장은 주로 시장은 잘 안가고 노인네들 파는 데. 고추나 이런 거 사서 해 먹고. 노인네들 파는데, 거기도 가긴 가는데. 잘 못가요. 반찬을 만들어야 먹을 거 아냐? 그것도 하기 싫어서 안먹을 때가 많은데. 옛날에 비하면 3분의 1도 못먹는거야. 먹는 양이. 입맛이 첫째는 없어서 안먹고. 그리고 귀찮으니까 만들기 싫어서 안먹고. 그러다보니까....

14) 사례14-구술자L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L은 1950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출생하였다. 27살이 되던 해 시내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을 만나 4년 후 인천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인천으로 온 후 공장, 슈퍼운영 등을 하며 남편과 같이 일을 했다. 남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으로 입원했다가 2012년 사망하였고 그 이후 L은 혼자 살고 있다.

- 1950년 전라북도 정읍 출생
- 1976년 결혼
- 1980년 서울로 이주
- 2012년 남편 사망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먹고 살만했던 어린시절

구술자L의 가족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먹고살 만한 집이었다고 하였다. 구술자L은 바로 바로 밑의 남동생을 제외하고 막내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예쁨을 받으며 자랐다고 하였다. 구술자L은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준 덕분에 국민학교도 졸업할 수 있었다. 구술자L은 대신 농사짓는 동네 사람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하였다. L이 살던 동네는 같은 성씨들끼리 사는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친인척이라 여겼고, 가끔 L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 향렬에 따라 구술자L을 ‘고모’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Q. 어릴 땐 일 하신 거 있으세요.

A. 애들 다 모아다 놓고 애들이나 봐주고. 동네 애들 (부모들이) 다 바쁘니까.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애들 가르키고. 나는 십원짜리 하나 못 벌어봤어. 그냥 자라가지고 24살인가 23살에 편물을 해가지고. 조카가. 그래서 같이 그거 일했어.

(2) 청년기

① 가난한 남자와의 결혼

구술자L은 27살이 되던 해에 결혼했다고 하였다. 남편은 당시 정읍의 옛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도 가난한 경상도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부터 타지를 돌아다니며 일을 하다가 정읍에 와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지인이 소개해주었다고 하였다. L의 아버지는 남편이 아무 것도 없는 것 때문에 반대했지만, 구술자L은 남편이 말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아서 결혼했다고 하였다. 당시 남편이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친정에서 살림살이를 다 마련해주었다고 하였다.

Q. 어떻게 인천분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A. 거기서 일했어. 정읍 시내서 옛공장에서 아저씨(남편)가. 그래서 회사에서 옛 공장에서 그래서 누가 소개시켜 줘가지고 했는데. 아주 몸뚱아리만 있고 암것도 없고. 진짜. 제주도에서 혼자. 고생많이 했더라고. 우리 아저씨가 17살부터 혼자 몰래 지게 밭에다가 내버리고 도망가서 제주도에서 살다가. 원래 경상도 사람인데 17살에 제주도 가가지고 그 때 나이 스물 몇 살에 정읍으로 왔다. 그래서 사람 하나 보고 한 거야. 말은 얼마나 잘하냐. 말이 청산유수인데 아버지가 막 반대했어. 암것도 없는 놈. 혼자 굴러다니는 놈이 어떤 놈인줄 알고 여지껏 놔뒀다가 지금 인제와서 급한께 하냐고. 오빠(남편)가 내가 말을 시켜보니까 퐁퐁하게 생겼고. 저만하면 되지. 있으면 더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친정에서 다 가져다 먹고 살았어.

(3) 중년기

① 지속적 노동

구술자L은 결혼 이후 인천에 정착하면서 여러 노동을 했다. 처음엔 전축 공장에서 8년동안 일을 했으나 공장이 성남으로 옮기게 되면서 일을 그만 두었다. 이후 동네에서 슈퍼를 인수받아 운영했는데, 동네에 큰 마트가 생기면서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 슈퍼를 운영하던 도중 계속 적자가 나자 L은 슈퍼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방이 딸린 더 작은 가게를 운영하였다. 다행히 근처에 교회나 성당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기에 장사는 잘되었다고 하였다. 가게는 총 18년 정도를 운영하면서 아들 학교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가게 앞 파라솔에서 술은 먹는 남자 손님들이 막무가내로 안주를 더 달라고 하거나 김치를 달라고 하는 등의 일이 있어서 힘들었다고 하였다.

Q. 슈퍼도 이 근처에서 하셨어요?

A. 서운동에서 하고 내가 속아서 갔어. 왜냐하면 우리 살던 주인끼리 슈퍼를 했는데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처음이잖아. 근데 밑에 뭐를 짓더라고. 주인 놈이 마트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거를 내놓은 거야.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한 거야. 그래서 엘지아파트에 마트가 생겼어. 그러니까 누가 가게로 와. 그래서 안 되니까 빼달라고 해도 안 해주지 현찰 9000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다 망했어. 그래서 우리 집에 빵 넣는 아저씨가 있어. 근데 사장님 우리 마누라가 힘들어서 작은 구멍가게 하더라고 서운동에서. 근대 그만둔다고 거기서 다 까먹고 조금 남은 거 찾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로 옮겨서 월세로 해서 거기서 살았어.

(4) 노년기

① 자녀들에게 기댈 수 없는 형편

구술자L은 현재 자신에게 나오는 수급비로 일상적인 생활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였다. 구술자L은 자식이 있지만, 자식들도 자신의 생계를 부양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자신을 도와주기 어렵다고 하였다. 구술자L의 아들은 트럭을 가지고 다니며 장사를 하고 며느리 역시 장사를 한다고 하였다. 부부가 다 같이 일을 하지만 두 자녀를 키우느라 구술자L까지 부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구술자L은 자신이 아프지 않은 것이 다행이며 아프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Q. 그러면 생활비나 이런 거는 좀 넉넉하신가요?

A. 다 부족하지. 우리 며느리도 그냥 노점상에서 여자들 속옷 그거 팔고. 그것도 비오면 못 가고 뭐 하면 못가고.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들도 차 가지고 다니면서 아파트 장 서는 데 있잖아. 그거 그것도 200만원씩 내놔야 들어가거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몇 개 잡으려면 큰돈 들어가는 거지. 그것도 겨우 먹고 사나봐. 그래서 나는 내가. 그냥 나온 걸로 먹고 살고. 애들이 뭐 생활이 넉넉해야 부모님을 도와주지. 잘사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아프지만 않으면 자식들을 도와주는 거야. 진짜야. 우리가 아픈거 짐이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② 남편의 병과 죽음

구술자L의 남편은 2년정도 병원에 입원한 후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병원

에 입원하기 전 구술자L의 남편은 자신이 아픈 것을 알고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고 하였다. 구술자L은 평생 남편이 어려운 일을 다 처리해줬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신청 같은 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하였다. 남편의 수급신청이 받아들여진 덕분에 구술자L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비를 많이 내지 않아도 되었다고 하였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2년 동안 구술자L은 워낙 튼튼하던 남편이 아무것도 못 하고 아픈 것을 보면서 속상했다고 하였다.

Q. 그러면 할아버지 아프셨을 때는 주민센터에 가봐야겠다 그러신거예요?

A. 근데 (수급신청을) 자기가 했으니까 나는 몰라. 아프기 전에.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그때는 건강해가지고 갑자기 아프니까 가서 했더라고.

Q. 그럼 어디가 아프셨는지 여쭙봐도 돼요?

A.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러고. 허가 있잖아요. 이게 오래되니까 자꾸 안으로 빨려들어가요. 근데 무슨 속이 아프고 이런건 아니고. 자꾸 손도 떨리고. 이 생각이 없는거예요. 오줌도 아무데나 싸고. 치매였나봐.

Q. 그럼 그렇게 아프신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A. 2년. 병원에 있어갔고 계속 허가 안으로 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가야 모르니까 속상하니까.

15) 사례15-구술자Q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Q은 1938년 전라남도 간산(현재 나주시 주변)에서 2남 4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20세에 결혼해 딸 하나를 두었으나 첫 결혼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으로 종결된다. 서울로 상경한 후 언니에 의지해 단순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딸이 출가한 후 지인의 소개로 두 번째 남편을 만나 충청남도 당진으로 이주한다. 작은 농토를 경작하고 가마니를 만들어 팔았던 부모는 가난으로 딸들을 교육시키지 못했다. 배우지 못한 아쉬움보다 굶는 것 일상인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이 컸다. 재가 후 의붓자식을 정성으로 돌보았음에도 두 번째 남편의 사망 후 의붓자식들이 왕래를 끊은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크다. 현재 빈곤한 삶을 살고 있지만 밥을 굶지 않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크고 국가에서 연금과 쌀을 지원하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한다.

- 1935년 전라남도 간산(나주) 출생
- 1955년 결혼 및 출산
- 1968년 이혼 후 서울로 이주
- 1976년 바느질(가족) 공장 취업
- 1986년 재혼 후 당진으로 이주
- 2010년 두 번째 남편 사망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아들에게만 허락된 교육

구술자Q는 교육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 교육은 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고 딸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구술자Q가 유소년기를 보낸 당시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은 없었다. 특히 굶는 것이 일상이었던 빈곤한 구술자Q의 가정에서 교육의 기회를 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되었다.

Q. 어머니 연세 때는 학교 다니기 어려웠죠?

A. 그래도 다들 국민 학교는 갔는데 우리는 못 갔어. 왜 안 보냈을까 싶었는데 세상을 살다보니깐. 그냥 먹고 살 것도 없고 새끼도 많고 하니깐. 못 갔겠구나 싶어

② 보릿고개 노래를 부를 때라

어린 나이부터 구술자Q는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일에 참여한다. 어머니와 둘이서 벼짚으로 나락을 담는 가마니를 만들고 오일장을 다니며 파는 일을 했다. 노동이 힘들거나 부당하다는 인식은 없었다. 형제자매가 많아 밥 먹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가마니를 만드는 일만이 끼니를 해결해 준다는 절박함과 고생하는 어머니를 향한 안쓰러움은 노동에 대한 구술자Q의 순응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Q. 어머니 어릴 적에 시집가기 전 얘기좀 해주세요

A. 시집가기 전에는 가마니 일을 했어. 벅빚으로 가마니를 짜. 그러면 이쁘. 그래서 우리 엄마는 잘 짜고 튼튼해서 잘 팔려가지고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았어. 밤에 가면 식구들이 다 새끼 파. 내가 잘 파. 그러면 엄마랑 나랑 둘이 가마니 짜고 꼬매서 오일장에 팔러 다니고 그래. 다른 사람 가마니는 안팔려도 우리 가마니는 이쁘고 좋아서 잘 팔렸어.

(2) 청년기

① 노동 : 지불되지 못하는 노동

유소년기에 오일장에서 가마니를 팔았던 경험은 인적자본으로 축적되어 결혼 후 생계를 유지하는 데 활용된다. 빈곤한 소작농과 결혼한 후 장사를 해 땅과 집을 마련한다. 구술자Q의 장사는 땅과 집이라는 자산을 형성하는 주요 수단이었으나 첫 남편과의 관계가 종결되면서 13년 결혼생활 동안 지속된 노동은 서울 가는 차비 5000원만을 남긴다.

Q. 그렇게 결혼 하시고 그렇게 집도 사고 논도 사고 다 하셨어요?

A. 나는 장사한다고 돌아다니고 할아버지는 농사짓고 그래서 그렇게 땅 조금씩 사서 모으고 그랬지. (중략) 시골에서 첫 번째 남편이랑 살 때 나무하러 다니고 이런 거. 십리 이십리를 넘게 걸어서 다녔어. 땀감 찾으려고. 남편은 안 가고 여자들끼리 대여섯 모여서 새벽에 가. 그 땀감을 찾아서 다 이고 와가지고 또 밥을 해.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

② 아들을 낳지 못해 파기된 결혼

첫 남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나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당한다. 이혼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있음에도 ‘애기를 못 낳으면 쫓겨났거든’이라는 구술자Q의 표현은 아들만이 자식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구술자Q의 성역할 규범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다르지 않다.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가치관이 내재화된 구술자Q에게 이혼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고 남편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쫓겨나면서도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해 아무 주장도 하지 못하고, 이후 가족으로부터 노동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Q. 어르신은 평생 고기 잡고 바다가에서 사신거예요?

A. 20살에 거기에서 시집까지 다 갔지, 그때 딸 하나를 낳았는데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애가 안 생겼어. 애기를 못 낳으면 그때는 다 쫓겨났거든 그래서 시어머니가 엄청 구박을 했지.

(3) 중년기

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

서울에 올라온 후 친언니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도끼다시를 닦고 광내는 일을 한다. 작업과정은 바닥을 닦고 흘러나온 물을 용기에 퍼 담아 밖에 버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과정이었으나 노동강도가 높은 작업이라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들어 그만둔다. 도끼다시 일의 임금은 친언니가 받았다. 구술자Q는 친언니로부터 십원도 받은 바가 없으며 본인의 임금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딸과 본인의 생계와 주거를 모두 언니에게 의존

하고 있는 절대 약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언니에게 귀속 되는 것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바느질 공장으로 직장을 옮겨 재혼하기 전까지 약 10년간 일했다. 실밥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이었으며 일이 많을 때는 야근을 하거나 저녁 일거리가 있는 다른 공장에서 작업했다. 바느질 공장에서는 월급을 받았고 적지만 야근 수당도 받을 수 있었다. 구술자Q의 기억에 의하면 가장 많이 받은 급여액은 50만원이었고, 5년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상품을 받기도 했다. 바느질 공장 일을 통해 구술자Q는 노동과 임금이라는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처음 경험했으며, 5년 근속 보상품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0년간의 노동이 직무 역량을 습득하거나 숙련된 일자리의 이동으로 연계되지는 못했다.

Q. 도끼다시랑 바느질 하실 때 한 달에 얼마정도 받았어요?

A. 도끼다시는 언니가 돈 받아서 나는 몰랐어. 바느질에는 한 달에 최고 많이 들면 50만원. 서울은 그런 곳 다니는 여자들이 엄청 많더라고. 우리 언니 친구 딸이 그 공장을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게 됐지.

② 제한된 사회적 자본

서울로 이동한 후 구술자Q의 사회적 관계망은 친언니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친언니 이외에 지인의 없었고 남성 중심의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상황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기회 또한 제한한다. 바느질 공장에 취업한 후 유사한 처지의 여성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여성 동료들은 구술자Q가 야간 일거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후에 재혼자를 만날 계기를 얻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한다.

Q. 가족공장은 누구 소개로 가셨어요??

A. 서울은 그런 곳 다니는 여자들이 엄청 많더라고. 우리 언니 친구 딸이 그 공장을 다니더라고. 그래 가지고 가게 됐지.

(4) 노년기

① 과한 노동으로 취약해진 건강

치아 상태가 심각하게 나쁘다. 아래쪽 앞니가 없어 식사하는데 한시간 이상 소요된다. 노화로 허리통증도 심해 1차 면접일 당일에도 의료기기 상점에서 무료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가 젊어서 도 기다시 일을 하면서 몸이 상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취약한 건강상태는 구술자Q가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Q. 그냥 오래 지고 오고가셔야 하니까 다리도 아프시고

A. 젊었을 때는 몰랐지. 그때 골병 든 게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 그때는 젊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라고 그랬지. 이리가고 저리라고 밤도 새고 그랬는데 맘이 너무 편해서 아픈가봐.

②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

남편이 가입한 연금¹⁰⁾에서 지급되는 15만원, 기초연금 30만원이 고정적

10) 남편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는 것인지 남편이 구술자Q의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인지 구술자Q가 정확히 알지 못함

인 현금성 수입이며 현물수입으로는 지자체에서 주는 쌀이 있다. 의붓자식들로부터 받는 돈은 없고 친딸과 손녀딸이 간헐적으로 주는 용돈이 사전 이 전소득의 전부이다.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적지 않았으나 모두 의붓자식에 계 상속되어 구술자Q는 상속받은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

Q. 그러면 자식들이 어머님한테 생활비 같은 건 안주시고

A. 십 원도 없어. 막내딸이 그래도 내가 학교도 보내고 대학이랑 직장까지 다 보내서 뭐라도 해 줄지 알았거든. 근데 십 원 한 장도 없어.

③ 하루 15시간의 무임금 노동

재혼 후 구술자Q는 전 남편의 건어물 가게에서 일한다. 생선을 염장하고 말리고 파는 일까지 대부분의 노동을 구술자Q가 담당한다. 약 25년을 하루 15시간 이상씩 건어물 가게에서 일했으나 무임금으로 노동에 상응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Q. 처음 봤을 때 뭐가 좋으셔서 결혼하셨어요?

A. 그냥 뭐, 밥이나 먹고 사나 했는데 가게 하느라 엄청 바빴지. 아침 5시에 문 열어서 저녁 8시까지 계속 일했었지.

Q. 할아버지 안하시고요?

A. 하긴 하는데 얼마나 해 내가 거의 다 하지. 조기를 다 씻어서 소금에 절였 지. 다라이에 절여서 파는 거야. 절일 때 근데 힘들어

④ 의붓자식과의 관계 단절

친딸과는 연락하고 지내며 특히 손녀딸에 대한 애정이 깊다. 전 남편을 고리로 가족으로 연결되었던 의붓자식과의 관계는 전 남편의 사망 후 단절되었다. 구술자Q는 의붓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으나 의붓자식들은 집이 건너다보이는 근거리에 살고 있으면서도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 어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며 친구처럼 지냈던 이웃들은 시장현대화사업으로 모두 떠나고 없다. 이제는 종종 소일거리를 맡기고 딸처럼 챙겨주는 이웃에게 의지하고 지낸다. 구술자Q의 식사를 챙기고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이웃이 유사가족이 되어 자주 만날 수 없는 친자식과 관계가 소원해진 의붓자식을 대신하고 있다.

Q. 막내는 초등학생이라 정이 있지 않으셨는지요?

A. 나는 항상 키워서 즈그들이 그리워. 근데 나를 모른척 하니까 점점 멀어졌지. 진짜 전화 한 번 없어 내 새끼처럼 키웠는데.

⑤ 철거되는 주거지

사망한 둘째 남편이 구입한 상가형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가건물로 최근 지역복지관에서 방한을 위해 창호를 교체해 주었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지자체 소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은 공공 주차장 건설 계획에 의해 곧 철거될 예정이다. 건물이 의붓딸 명의로 되어있어 건물 철거시 구술자Q는 보상도 받지 못하고 주거지를 잃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Q. 어머님 사시는 댁은 누구네예요?

A. 처음에 그 집도 빼앗아 가려고 했었어. 식당이라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지. 주차장 만들라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보상금이라도 주면 좋은데 그것도 없고 그냥 할아버지가 논 팔아서 산 집이거든.

16) 사례16-구술자R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R은 오사카에서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해방되던 해에 외삼촌이 있는 통영으로 이주했다. 아버지는 구술자R이 3세 되던 해에 사망하고 초등학교 5학년때 어머니마저 사망한다. 어머니 사망 후 부산에 있는 버스공장에서 기술을 배우자는 친구의 제안으로 부산으로 가출한다. 군대에서는 사단장 운전병을 하다 중앙정보부 운전기사로 일하게 된다. 이후 평생동안 운전과 관련된 일자리를 갖는다. 초혼에 실패하고 딸이 있는 두 번째 아내와 재혼했으며 그 사이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얻었다. IMF 시기에 딸이 구술자R의 집을 동의없이 저당잡혀 집을 모두 잃게 된다. 그 후 아내, 딸과 인연을 끊고 생계급여에 의지해 혼자 살고 있다.

- 1939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
- 1945년 해방 후 통영으로 이주
- 1951년 어머니 사망 후 부산으로 가출
- 1962년 부산 중앙정보부 운전기사로 취업
- 1970년 서울 검찰청에서 퇴직
- 1972년 아들 출생 후 장애 진단
- 1998년 IMF 사위의 부채 문제로 아파트 두 채를 잃음
- 2002년 유치원 기사 퇴임
- 2019년 대장암 2기 진단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조실부모하고 교육받지 못함

구술자R은 세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마저 사망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가출한다. 부산의 버스공장에서 기술을 배우자는 친구의 제안으로 부산에 왔으나 기술을 배울 기회는 갖지 못한다. 공장에서 잔심부름하며 야간학교를 다녔으나 졸업하지 못한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어린 나이지만 생존을 위해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Q. 어르신이 막내이신거네요?

A. 네 막내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상태로 부산을 가게 된 거예요. 나하고 절친한 친구가 부산 서면에 버스 만드는 공장에 있었어. 그 친구가 통영에 있지 말고 기술 배우러 부산가자고 그래서 5학년때 부산 가서 잔심부름 하고 그랬어.

(2) 청년기

① 운전면허는 일자리로 연결됨

군대에 입대하기 전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군대에서 검수병으로 복무하던 중 사령관 기사로 차출되어 운전병으로 일하게 된다. 사령관과의 인연으로

부산에 있는 중앙정보부 기관에 운전기사로 취업한다. 부산 중앙정보부를 축소하면서 4급 이하의 직원들이 각지의 정부기관으로 재배치 된다. 구술자 R은 서울 검찰청으로 발령받은 검사장의 제안으로 서울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로 이동한 후 5년 뒤 검사장이 퇴임하면서 구술자R도 퇴직한다. 구술자R은 운전기술을 매개로 군대 제대 후부터 줄곧 정부 주요 기관의 운전기사로 일한다. 1960년대 당시 운전기술은 일자리를 얻는데 유용한 기술이었으며 구술자R도 운전기술을 통해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운전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Q. 3년간 검수병이셨어요?

A. 그걸 하다가 사령관 기사로 차출이 되어서 나갔지. 감찰부가 그때 사령관이랑 붙어있는데 행정처장이 내가 면허 있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갑자기 모시라고 그래서 검수병이었다가 운전병으로 가서 중정까지 갔지.

② 두 번의 결혼과 아들의 장애 판정

첫 결혼은 힘들고 고생스러웠으며 처가 식구로부터 이용만 당했다고 회고한다. 첫 결혼이 실패하고 이후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누나와 형님이 있었으나 형제와는 연락을 끊고 지냈고, 구술자R의 사회적 지지망은 전반적으로 취약했다. 딸이 있는 현재의 부인을 만나 재혼했으며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미숙아로 출생한 아들은 시력장애, 발달장애로 장애등급 5급을 받았다.

Q. 그 사이에 결혼은 안하셨어요?

A. 했는데 실패했어. 거기서부터 실패한 거야 결혼한게 잘못됐어서.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바보스러워서 고생을 엄청 하고 일도 다 안되고 그랬었어. 처가댁 쪽에 이용만 당하고.

(3) 중년기

① 부상으로 인한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은퇴

검찰청을 퇴직한 후 건설현장 현장감독을 하다 다시 운전기사 일을 시작한다. 구청장 운전기사, 택시기사를 하다 개인택시를 받게 된다. 허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한 후 의사의 권유로 개인택시를 처분한다. 중년기의 소득 활동 또한 운전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며, 부상은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Q. 공사현장 계시다가 개인택시 하시고요?

A. 그렇지 85년도에 무사고로 개인택시를 받았어요. (중략) 나한테 이제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가 더 나이들기 전에 같이 택시기사를 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568번 면목동까지 그거 타고 맨날 다니면서 그렇게 택시 하자고 해서 택시 근속을 했어. 그렇게 무사고 근속해서 택시를 받은 거야.

② IMF로 인한 재정적 파탄

저축한 돈과 개인택시를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서울시 강동구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IMF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의붓딸이 남편의 사업 빚 때문에 구술자R의 동의 없이 아파트 2채를 근저당 잡혔다. 빚을 갚지 못하면서 아파트가 은행에 넘어가고 구술자R은 모든 자산을 잃

게 된다. IMF로 국가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고 사업장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상황에서 구술자R의 가족 또한 IMF의 영향으로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다.

Q. (사기를) 사위분한테요?

A. 사위가 IMF 때문에 빚을 많이 졌었는데 가족 신발이랑 피혁 같은 거 납품했는데 그걸 그 거래소에 갖다주고 받아놓고 하는 건데 돈을. 근데 돈을 회수도 하나도 못하고 물건만 계속 깔게 되니까. 딸이랑 외손녀 데리고 강원도 동해안으로 갔어. 거기를 우리 할머니(부인)가 좋아했거든. 그래서 할머니를 데리고 강원도 3박 4일동안 같이 다니면서 밥도 해먹고 집이 두 개 있었는데 그거를 아빠 몰래 6개월만 돌려다가 돌려준다고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거야.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사기를 당한 거지. 우리 할머니가 심근경색이 있어가지고 고생하면 안되는데 딸하고 사위가 진짜 나빴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엄마한테 해달라고 한 거야. 근데 나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쥐버린 거지. 어머니니까.

(4) 노년기

① 생계급여를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유치원 차량을 운전하다 퇴직하고 환경업체에서 방역차를 잠깐 운전했다. 대형식당에 취업해 손님 이송용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업주가 바뀌면서 일자리를 잃는다.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유치원 차를 운전하거나 식당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등 운전과 관련된 일을 지속했다. 5년 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대상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며 노령연금과 함께 월 85만원의 소득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된 뒤에는 추가

소득의 발생이 생계급여의 차감으로 연결되어 일거리를 찾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도 좋지 않으며 노동이 부가소득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구술자R에게 노동의 기회를 부여한 운전면허증의 반납은 노동 생애의 종식을 의미한다.

Q.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알고 하셨어요?

A. 암튼 그렇게 수급신청을 했더니 되고나서 어디 재단이랑 그런 곳에서 다 전화도 오고 간염주사도 맞으러 오라고 그러고. (중략) 주민센터를 원래 처음 갔었는데 구청을 가라고 하더라고. 그거 하나까 여기 저기서 연락이 와. 굽은다리 밑에서 백내장도 하고 공짜로 많이 받았지.

② 대장암 2기 판정

현재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하고 있으나 구술자R은 수술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의료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수 있다. 허리 디스크도 심각해서 장거리 보행에 어려움이 크다. 1차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받은 바 있으며 대학병원 사회사업실의 도움으로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심한 통증 때문에 허리는 추가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Q. 건강이 안 좋아지진 않으셨어요?

A. 안 좋았지. 대장암 2기가 그래서 왔나 싶어. 그래서 200미터 정도 가면 쉬어야되거든. 비 오는 날 안가게 그러면 중간에 앉아서 쉬어야하니까. 근데 여기 수술도 한 번 해야되는데 암수술 말고 허리수술 해야되거든. 신경이 끊어졌

다고 하더라고. 아플 때는 엄청 아파. 너무 아파서 동네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 일주일만에 괜찮다는데 난 또 아프거든 MRI도 찍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70만원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잖아.

③ 간병 부담으로 수술 포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생활지원사가 매주 2회 정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러나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 대장암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수술할 마음이 없다.

Q. 어르신은 움직임 감지 그거 신청 안하셨어요?

A. 감시당하는 느낌이 싫어. 근데 (생활지원사)복지사가 매일 전화오고 일주일에 한 두 번 방문도 하고 그래요. 무슨 세탁도 다 해주고 가고 선풍기 없으면 선풍기도 사다주고 그래요.

④ 가족과의 자발적 관계 단절

아파트를 잃고 난 후부터 현재까지 혼자 거주한다. 부인과는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며 찾아오겠다는 부인의 요청도 거절하고 관계를 단절해 버렸다. 딸 역시 아파트 사건 이후로 전화조차 하지 않는다. 유일한 혈육인 아들은 공주에 거주하며 일주일에 일 회 정도 만난다. 사회적 관계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에 대한 신뢰가 높고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 이용자들과 자주 어울린다. 이웃들은 차 편을 제공해 주고, 찬거리를 챙겨주는 등 사회적 지지원으로 기능한다.

Q. 원래 가족분들과는 (왕래가 없으시지요)?

A. (중략) 옛날에 마누라도 날 속였는데 지금 나밖에 없어. 그나마 고마운 사람은 생활복지사랑 영양사 선생님이야. 코로나에 대체식품이라고 다 갖다주고 영양사 그 사람이 참 고생 많이 하고 생활 보호사도 집에와서 다 챙겨주고 그 사람 외에 믿을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연락을 끊어버렸어. 따로 살고 인천에 살아. 연락도 안하고 온다는데 내가 못 오게 했어.

17) 사례17-구술자S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S는 마산에서 3남 2녀의 셋째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다. 고등학교까지 마쳤으나 여자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던 시대라 직업을 갖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25살에 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의 아버지는 임신 중에 월북한다. 친정에서 딸을 혼자 키우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서울로 이주한다. 아이의 아버지가 남기고 간 공작금으로 여관, 일수 등을 했으나 돈은 모으지 못했다. 딸은 남동생의 호적에 올렸으며 딸이 결혼한 후 영구임대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다.

- 1947년 마산에서 출생
- 1971년 임신, 아이 아버지 월북
- 1972년 첫 아이 출산
- 1985년 서울로 이주, 여관 경영
- 1999년 딸 출가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여자는 일하면 안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직장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여자는 일하면 안된다는 성별 역할분업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따랐다. 바람이 나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의 영향으로 결혼에도 관심이 없었다.

Q. 배우고 싶으시거나 일하고 싶은 것 없으셨어요?

A. 그때는 19살이면 다 시집보내고 이럴 때라 다들 일하고 여자는 배우고 이런 게 생각이 없었지.

(2) 청년기

① 자산이 된 공작금

아이의 아버지가 남기고 간 공작금은 구술자S에게 큰 자산이 된다. 자산으로 동생에게 사업기반을 마련해 주거나 땅을 사준다.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낳은 아이를 남동생의 호적에 올린 구술자S는 일종의 보상으로 남동생에게 자산의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Q. 경제적으로 괜찮았어요?

A. 친정 말고도 나한테도 돈이 많았어. 공작금이 많다니까. 이북에서 넘어올 때

돈이 장판에 붙여놓은거 그게 엄청 큰 돈이었어. 숨겨놓고 동생들은 나한테 손 안대는데 오빠랑 언니는 냄새를 맡았나봐. 막내가 빨간 줄이 딱 그여 있으니까 취업도 힘들고 그래. 식당을 내가 해줬다가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밀 양 촌 어디에 땅을 싸게 몇 백평 사가지고 그거로 내가 젊을 때 그 산골에도 많이 있었거든.

② 경제적 도움을 요구하는 가족

공작금의 존재를 아는 형제는 구술자S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구한다. 구술자S는 형제로부터 경제적 지원은 물론 도구적, 심리적 지지도 제공받지 못한다. 이에 대한 부담과 부당함으로 구술자S는 의도적으로 형제자매들과 거리를 두고자 한다. 가족이라는 의미는 훼손되고 형제는 뿔뿔이 흩어진다. 이후에도 가족은 구술자S에게 사회적 지지망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Q. 형제는 없으세요?

A. 형제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내가 돈 좀 있다니까 내 팔자가 그런지 다 나한테 달라붙어서 돈만 달라고 그러고. 그래도 주변에서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도 좀 있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지.

(3) 중년기

① 여관업과 사채의 실패

서울로 이주한 후 여관을 인수해 운영했으나 사업체 운영의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숙박업을 중단한다.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현금 500만원을 밑천으로 일수를 시작한다. 초기에는 돈이 빠르게 불

어나며 잘 운영되는 듯했다. 그러나 점차 돈을 떼이는 일이 많고 힘들었으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구술자S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를 얹잡아 보아 돈을 떼이기 쉬웠다고 생각한다.

Q. 그 전에 사업은 오래 하셨어요?

A. 그냥 현금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게 없으니까 일수를 했지. 일수 하니까 돈이 너무 잘벌려. 500으로 시작했는데 1000만원이 눈깜짝할사이야. 그 때 생각 좀 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4) 노년기

① 생계급여에 의존한 살림

소득은 생계급여로 받는 월 5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딸로부터 이전 되는 소득은 규칙적이지 않다. 구술자S는 50만원으로 생활하는데 큰 부족함은 없다고 표현한다. 생계급여 대상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적 부담만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 또한 낮다. 의료비와 주거비가 노인가구 지출 중 부담도가 가장 높은 두 개의 비용임을 고려하면 구술자S는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낮아 월 50만원의 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Q. 부족하진 않으신지 보통 어느 정도 받으세요?

A. 50만원 받는데 부족하진 않아. 약값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내가 돈도 조금 모았어. 한 20만원 정도. 그러면 그거 한 달에 한 번 밥도 사주고 그래 그 돈을 어디에다 쓰겠어. 그냥 차곡차곡 조금 모이면 또 쓰고. 딸 밥도 사주고 그러

면 딸이 나 멋있다고 하지.

② 우울증 극복을 위한 자구적 노력

우울 증상이 있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 중이다. 코로나 이후 격리된 생활이 지속되면서 자살 충동을 경험한다.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원봉사, 산책, 반려견 키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서 우울증은 회복되는 기초를 보인다. 그런데 구술자S가 우울 증상으로 고통받고 전문의를 찾기까지 이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없었다. 이는 구술자S가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병원을 찾는 위기 대응역량이 있음을 확인해 준다. 더불어 대응역량이 없는 개인은 위기에 방치되는, 즉 공공지원체계의 한계를 시사한다.

Q.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세요?

A. 내가 진짜 우울증처럼 오더라고. 그래서 정신과 가서 약 먹어야겠다 싶더라고. 너무 우울하고 왜 이렇게 사나 싶고. 그래서 지금 약 먹은지 한 달됐고. 내 생활이 완전 바뀌었지.

③ 위축된 사회적 지지망

형제, 자매가 모두 사망했다. 가장 친한 친구, 사회생활 중 알게 된 지인 또한 대부분이 사망했다. 사회적 관계는 복지관, 성당의 지인들로 집중되어 있고 관계망의 크기와 밀도 모두 낮다.

Q. 어르신 막내세요?

A. 아냐 셋째야. 남동생 둘도 다 죽고. 내가 너무 외롭고 그럴 때가 많아. 어찌
내 주위에 사람이 이렇게 없나 싶어.

18) 사례18-구술자T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T는 청주에서 유복한 가정의 4형제 중 셋째로 태어난다. 아버지는 아들을 얻기 위해 새어머니를 들일 만큼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랐다. 딸인 구술자T는 교육받을 기회를 가지 못했으며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왔다. 서울로 와 미용일을 하다 결혼한다. 결혼 후 기타를 잘 다루던 남편과 음악학원을 차려 돈을 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밴드에서 반주하거나 피아노를 가르치며 생활한다. 화장품 가게를 열었으나 망하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 피아노 레슨도 중단한다.

- 1939년 청주에서 출생
- 1950년 새어머니 아들 출산
- 1951년 청주 귀가 후 가사일
- 1956년 서울로 와 미용일 시작
- 1959년 결혼
- 1963년 음악학원 운영
- 1975년 1977년 사이 이혼
- 1988년 화장품 가게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학교조차 보내지 않는 새어머니, 미용학원을 찾음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새어머니를 들었던 아버지는 딸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새어머니는 구술자T에게 냉담했으며 학교조차 보내지 않았다. 한글도 깨우치지 못한 구술자T는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했으나 평생 동안 문해력이 요구되는 교육은 받을 수 없었다.

Q. 학교는 안다니셨어요?

A. 못했지. 계모가 나를 왜 보내. 내가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 음악공부를 하는데 내가 진짜 영어도 모르고 배운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미용기술은 문해력이 없는 구술자T가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었다.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높았던 시기에 미용은 기술자로의 입직을 가능하게 하는 업종이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숙식을 지원 받을 친인척이 없는 빈약한 사회적 관계망은 또다른 한계로 작동한다. 서울에서 머물 곳이 없었던 구술자T에게 미용기술도 배우고 숙식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았다.

Q. 배우고 싶으시거나 일하고 싶은 것 없으셨어요?

A. 서울로 올라오고 내가 미용학원을 다니게 됐어. 내가 열심히 해서 돈 안내고 배웠어. 근데 어디가서 뭘 할 수가 있어야지 밥을 먹을 수가 없는거야. 시다부

터 단계가 있는데 그때 주인들 생각하면 나쁘게 주인이 밥을 먹어야하는데 총각 김치 다 쉬어가는 걸 가지고 그걸 딱 세 번 떠먹게했어. 그래서 한 달하고 못하 겠더라고.

② 힘없는 여성 가족원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어린 가족원을 돌보는 일은 구술자T의 과업으로 주어진다. 가족의 요청으로 청주 본가로 돌아간 뒤에 새어머니가 낳은 어린 동생을 돌보고 뿐만 아니라 고모의 자녀를 돌보는 일까지 구술자T에게 맡겨진다. 가족 돌봄은 여성 가족원에 의해 수행되고 특히 여성 가족원 사이에서도 권력관계의 하위에 있는 가족원에게 돌봄부담이 집중된다. 구술자T의 사례는 가족 돌봄에서의 전형적인 권력 관계를 재현한다.

Q. 배우고 싶으시거나 일하고 싶은 것 없으셨어요?

A. 아들을 낳았다고 오라고 해서 다시 청주로 갔어. 아들 낳았다고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 애를 7살부터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내가 키웠어. 그래서 거기서 바느질 하고 애도 키우고 엄청 고생하다가 또 거기 일하는 분이 나를 도망시켰지. 그래서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불고데 기술도 배우고 그랬지. (중략) 내가 고모네 애들까지 돌봐줬잖아. 근데 개네는 지금 잘 살거든. 그러다가 고모 돌아가시니까. 이제 연락도 잘 안되고 그렇지 뭐.

③ 노동을 벗어나지 못한 어린 시절

가족 내에서 구술자T의 노동력은 댓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소유처럼 취급된다.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부터 가사노동에 시달린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집안 고용인의 도움으로 서울로 가출하기 전까지

구술자T는 무관심한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서 보상 없는 노동으로 유소년기를 보낸다.

Q. 미용학원은 어떻게 가시게 되었어요?

A. 광고보고 갔지. 나를 도망시켜줘서 내가 거기라도 다닌 거야. 진짜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데, 산에서 통나무 가져오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열 몇 살 때 부터 그렇게 그런 통나무 들고 껍질 손으로 다 벗기고 그래서 진짜 고생 엄청 했어.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어. (중략) 아무것도 없고 집에 나보고 애 보라고 하니까.

(2) 청년기

① 명예와 경제권 모두 남편에게

미용일을 그만두고 전자오르간 레슨을 시작한다. 교육을 받지 못한 구술자T에게 악기를 배우기가 쉽지 않았으나 초급자 레슨이 가능한 정도로 발전한다. 전자오르간 수강생이 많아지면서 수입이 늘자 음악학원을 연다. 구술자T는 학원을 위해 무학인 자신 보다 남편의 인적자본을 높이는 선택한다. 구술자T의 지원으로 남편은 청주대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받게 되며, 남편을 앞세운 음악학원을 기반으로 재산을 모은다. 음악학원은 구술자T의 전자오르간 레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구술자T는 학원에서 레슨을 계속했다. 그러나 경제권은 남편이 가졌으며 구술자T는 급여도 받지 못했다. 구술자T의 노동은 가족의 재산으로 축적되었으나 자신의 노동에 대한 구술자T의 경제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Q. 미용 외에 어떤 직업 가지셨어요?

A. 전자오르간. 그거 배워서 밴드로 다니면서 돈벌이했지. (중략) 긴 거는 못하고 짧은 걸 했지. 악보는 그릴 줄을 모르잖아. 기본이 없으니까 그걸 매일 사보를 해가지고 매일 그러서 그렇게 내가 사보를 잘해. 요즘은 내가 열심히 벌어들인 돈으로 돈 벌었나 싶어. 내가 처음에 학생이 들어오면 두 달은 맡았어. 그렇게 해서 애들 귀가 트이면 또 소문이 나서 오고 그래서 돈을 잘 벌었지.

② 남편의 외도, 빈손으로 끝난 결혼

남편이 학원 수강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한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구술자T는 학원에서 번 돈을 남편이 시댁식구에게 임의로 주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기여한 재산을 정당하게 분배받지 못했다. 무학으로 글조차 모르는 구술자T는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정보를 얻거나 함께 싸워줄 가족조차 없는 구술자T가 부당한 상황에 맞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Q. 결혼하고는 어떻게 사시고 ?

A. 내가 사업해서 집안을 일으켰지. 돈을 버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더라고. 내가 페인트칠도 다 하고 그랬어. 근데 내가 그렇게 돈을 버는데 바람을 피니까 믿음이 깨져서 회복이 안되더라고. (중략) 우리가 당시 피아노 학원비가 3천원인데 학생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돈을 버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그때 집 좀 사 놓을 걸 그랬어. 남편이 돈을 쥐고 안줬어 그렇게.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너 재 돈 주면 재 탄 주머니 찬다. 이렇게 말해서 돈을 안 준거야. (중략) 내가 번 돈도 다 시동생들 해줘버리고. 그때만 해도(이혼할 때) 내가 학원을 다시 할 자신이 있어서 그 앞에 더 크게 열어서 복수를 하려고 그랬거든. 손님들도 다 내가 더 잘 알거든. 근데 그걸 여동생이랑 다 빼들려버린거야 내가 설마 그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지.

(3) 중년기

① 노동으로 고장난 몸

좋지 않은 건강상태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다. 손가락 관절이 굽어 지지 않아 더이상 전자오르겐을 연주할 수 없으며 이는 전자오르겐 레슨으로 생계를 해결해 온 구술자T에게 실질적인 은퇴를 의미한다. 구술자T는 어려서부터 고된 노동에 시달려 왔고, 결혼 후에도 밴드와 레슨으로 손을 혹사한 때문에 손가락 관절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한다.

Q. 50, 60대 때 일은 못하시고?

A. 관절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못했어. 20대부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고장이 나버렸어. 손목 봐. 다 이렇게 굽었잖아. 내가 피아노를 맨날 쳐서 그래. 근데 아프진 않아.

이혼 후 화장품 가게를 열었으나 장사가 안되 처분한다. 자본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게를 시작하나 손님들의 잦은 외상과 미지불로 운영이 쉽지 않았다.

Q. 화장품가게 하시고 그걸로 생활하시고요 ?

A. 응 근데 장사가 안됐어. 그리고 미용실 주변에 아파트 사람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외상하고 다 떼먹더라고. 없는 사람 있으면 내가 밥도 사서 먹이고 그냥 못 보냈어. 그러니까 돈도 못 모으고 그랬던 거지.

(4) 노년기

① 오직 생계급여뿐, 소득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배제

주요 소득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이다. 월 50만원으로 구술자T가 생활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령액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은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노인일자리사업 또한 생계급여 대상자는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 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소득보충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생계급여 대상자는 노인을 위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어 부족한 생계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주거급여 또한 받을 수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보도 없는 구술자T는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Q. 일 안하고 수급비는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A. 수급비. 수급비가 올라가잖아. 근데 연금 받으면서 또 깎였어. 그래서 빠듯하지. (중략) 그런거 사고 하느라고. 그래서 일자리 같은 거 달라고 하는데 복지관에서 나 수급자라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일 좀 찾으면 좋겠어.

Q. 처음에 주거급여 모르셨어요?

A. 힘들어 죽겠다고 일자리 달라고 하니깐 그건 안된다고 하고 주거급여를 주더라고.

② 가족의 빈자리에 생활지원사

형제와 자매가 모두 사망하고 아들과도 왕래하지 않기 때문에 구술자T는 돌봄을 위한 비공식적 자원이 매우 취약하다. 생활지원사만이 구술자T의 안전과 안부를 챙기고 있으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는 높지 않아 보인다.

Q. 장은 어떻게 보세요?

A. 그거 관리하는 사람 있어요. (중략) 그래서 뭐 전화 안 받는다고 위에 보고를 했대요. 내가 죽었냐고.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연락 한 번 안됐다고 그렇게 하냐고.

③ 거주지 재개발로 밀려남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곧 재개발될 예정이다. 거주지 이전은 사회적 관계망의 상실과 재구성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지지의 약화를 초래한다. 때문에 멀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보고 있으나 제한된 주거급여로 거주할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주할 곳의 주거비가 현 주거지 보다 높을 경우 구술자T의 빈곤한 삶은 더 빈곤해 질 것이다.

Q. 재개발 되면 다 이사가셔야겠어요? 이사가면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랑 떨어지시는 것 아닌지?

A. 그렇지. 벌써 다 근데 배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아. 엄청 멀리는 아니니까. 어디가서 누구랑 또 사귀고 살아. 그래서 멀리 안 가려고. 내가 여기 그나마 이웃이랑 알고 지내니까 그리고 복지관도 오래 다녔고 해서 다른 곳 가면 서먹서먹해. 내가 반지하도 가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못 살겠더라고.

19) 사례19-구술자C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C는 실향민이다. 5살에 남한으로 피난 온 기억으로 인해 생긴 전쟁 트라우마가 생겼다. 비행기가 지나가면 무섭고, 아직도 당시의 장면들이 생생히 떠오른다. 날이 흐리고 비행기 소리가 나면 공포감이 심하다. 임진강을 통해서 6남매가 경기도 고양시로 갔고, 고양시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당시 피난민들을 위해 미군들이 주는 옥수수가루와 우유가루를 나누어 먹었다. 어린시절 아버지가 엄해서 형제들이 모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남한테 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는데, 부모가 너무 가부장적으로 키워서 그런 것 같다. 결혼 후, 아이가 8살 때부터 남편이 아팠다. 바로 혈액암에 걸렸다. 5년의 투병생활 끝에 세상을 떴다. 이후 노인 일자리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혼자 사는 여성 노인으로 사는 삶이 고달프다.

- 1946년 개성 출생
- 1950년 피난, 경기도 고양시
- 1970년 결혼
- 1978년 남편 사망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내가 실향민이거든. 비행기 소리가 나면 예 전쟁이 나는 그런 공포감이 많이 있어요

구술자C는 실향민으로서, 5살에 남한으로 왔다. 피난 오면서 여자들이 아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는 등 전쟁 중 겪은 끔직한 기억들 때문에 아직도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임진강을 건너 고양시로 넘어와서 고양사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Q.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A. 개성에서 살다 5살 때 피난 나왔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 근데 그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폭탄폭격을 하니까 소랑 뭐랑 그런 게 막 저기 타서 죽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엄마들이 아기들을 버리고 가고 그러는 거를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저는 그 전쟁 후유증이 있어서 좀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사람 엄마가 돼서 사람을 저렇게 자기 살려고 가다가 애 놓고 버리고 가고 죽고 그러는 걸 많은 사람이 봐서. 임진강을 통해서 나왔다가. 임진강으로 해서 고양시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자랐어.

② 피난민들 사정이 더 어려우니까 피난민들 우선 먼저 줬거든요.

당시 피난민이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판단에 피난민에게 미군이 우선적으로 우유가루와 옥수수가루를 지급해 주었다. 그러나 오히려 원당에 사는 주민들이 피난민에게 배급받은 식량을 요구했다. 구술자C의 눈에는 남한사

람들이 게으르다고 느껴졌다. 사람들이 먹는 김치죽을 보고도 놀랐다. 개성에 살 때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었는데, 개성과 차이가 크게 느껴졌다.

오빠는 서울에서 학교 다녀야 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 여기 온당면에 있었고요. 그렇게 피난을 나오고 원당에 살면서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원당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덕을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뭘 먹으면 자꾸 와서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눠먹고 그래야하니까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7살인가 8살에 미군들이 나와가지고 피난민이나 어려운 사람 우유가루나 옥수수가루를 줬어요. 그거 받아오면 다 나눠먹어야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피난민들 사정이 더 어려우니까 피난민들 우선 먼저 줬거든요.

(2) 청년기

① 부모가 너무 가부장적으로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구술자C는 유년시절 아버지가 엄하고 무서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절대 먼저 밥을 먹어서도 안되었고, 형제들도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서 그런지 구술자C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남들한테 말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가 너무 가부장적으로 키운 탓인 것 같다.

Q.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A. 아버지가 많이 엄하고 무서웠어요. 옛날 우리 유교처럼 아버지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숟가락을 못 들었어요. 넉넉하지 않아도 아버지 들어오신 후에 숟가락 들으셔야 저희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는 엄한 속에서 자라서 꼭 해야 할 말 그런걸 참고 남한테 안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 받을까 참아서 속으로 꺾어요. 부모가 너무 가부장적으로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

② 오빠가 서울에 있을 때 오빠 회사 친구였어요.

구술자C는 오빠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남편과 10살 차이가 났는데, 오빠가 다니는 회사의 친구였다. 처음에는 오빠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중간에 외삼촌에게 말을 전해 본인이 양반 집안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결혼의사를 밝힌다. 당시 구술자C는 나이가 어려 결혼하기 싫다고 반대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으나 중매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 후, 남편의 작은 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작은아버지를 모시게 살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의 동생들까지 키우면서 뒷바라지까지 하게 되었다.

Q. 결혼은 어떻게 하셨나요?

A. 우리 남편이 나이가 많았어요. 10살 차이 났는데 오빠가 서울에 있을 때 오빠 회사 친구였어요. 오빠 친구가 나 보고 결혼하고 싶다고 한 거지 그랬는데 처음에는 오빠가 반대하니까 우리 외삼촌한테 본인 집이 양반 집안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외삼촌 통해서 중매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때 남편이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집 근처에 와서 저 얼굴 보고만 가고 그랬대요. 근데 나는 뭐 너무 나이도 어렸고 해서 무슨 결혼이야.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울고 불고 했었지. 너무 어리고 철도 없고 그래서 결혼하고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남편 작은 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동생도 다 키우고 그랬지.

(3) 중년기

① 남편의 투병생활

구술자C는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남편에 대한 별다른 기억은 없고, 아이를 낳자마자 아팠기 때문에 힘들기만 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남편은 5년 정도 투병생활을 했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니, 짐을 좀 덜었다.

Q. 남편분이랑은 언제 사별하셨어요?

A. 그래서 나는 둘이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본 적이 없어.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은 또 계속 아팠으니까. 내가 우리 막내를 38세에 낳았잖아요. 애를 늦게 낳아서 애는 아버지가 계속 아팠으니까 아버지에 관련된 추억이 없어요. 애들 아빠도 막 아프고 그래서 내가 밖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그랬거든. 애 아빠가 아파서 시댁에 애들 밥좀 먹여달라고 일 할 동안 그렇게 데려가도 데려오지 말래. 그래서 엄청 서운했지. 애들 아빠한테 시댁에 섭섭한게 있어도. 지금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게 너무 감사해.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냐고 했는데 애들도 잘 자라주고 감사하지. 그래서 감사할 것만 많아... 그리고 바로 갔죠. 5년 정도 앓다가.. 갔어. 가고 나니까 이제 살 것 같더라구.

(4) 노년기

① 아들 장가보내려면 돈도 모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걸 해줄 돈이 없어.

구술자C가 혼자 사는 것은 큰 지장이 없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노인일자리로 일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그럭저럭 생활한다. 그러나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고, 가장 큰 걱정은 아들이다. 직장이 없는 아들을 결혼시키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런 여유는 없다.

Q. 사는 건 괜찮으세요?

A. 노령이랑 국민연금해서 30만원에 17만 5천원. 아들은 직장생활을 오래 쉬어서 38살인데 뭐 갚아줘야 될 돈만 많아. 대출 받은거 갚느라고 빠듯해. 그래서 노인일자리 하고 있지 그걸로 27만원 벌어서 한달에 10번 정도 해서 그 정도 받아. 빚도 갚아야 하고 아들 장가보내려면 돈도 모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걸 해 줄 돈이 없어. 아들이 결혼못해서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게 걱정이지. 있는데 만날 수가 없지, 홀어머니인게 요즘 세상에 큰 단점이잖아. 엄마가 혼자면 싫어해요. 지금 아가씨들은 가치관이 다 달라요.

② 혼자 살면 진짜 챙겨서 먹기가 힘들거든.

코로나19로 가족들과 만남도 자제하고 있는 구술자C는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경로당에서 제공했던 식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들은 더욱이 밥을 챙겨먹기 어렵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함께 밥을 같이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교회에서 자원봉사로 하기는 하지만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하면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Q.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A.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도 힘드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을 누가 챙겨주면 좋겠

어. 우리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다섯 개 어려운 분들 갖다 드리거든. 그런 식으로 하는게 너무 필요하지. 국가에서 해주면 더 좋지. 이 지역에서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좀 도시락 같은거 반찬 해주고 쌀 갖다주고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기흥구에 독거노인들 많거든요. 노인들 밥 좀 챙겨주면 좋지. 혼자 살면 진짜 챙겨서 먹기가 힘들거든.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 대접하기 어려우니까. 도시락이라도 해주고 혼자 살면 또 입맛도 없고 혼자 먹으면 맛도 없잖아. 좀 밥도 같이 먹고 그럴 사람이 있으면 좋지

③ 남편 없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무시해.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안 해.

구술자C는 혼자 사는 여성 노인으로서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을 느낀다. 혼자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래서 일부러 혼자 사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 여성 노인들은 괜찮은데, 남성 노인들의 무시가 느껴지기 때문에 구술자C는 남성 노인들과 말을 잘 안 하게 되었다.

Q. 주변 사람들과는 친하세요?

A. 남편 없다고 그러면 엄청 무시해.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안해. 혼자 산다고 그러면 안되거든. 남자들이랑 말하면 더 그래요. 여자들이랑 말을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랑 말 안해요.

20) 사례20-구술자D

□ 생애사적 사실

구술자D는 충남 예산 출신이다. 가난하지만 아버지 덕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서 2-3년 일을 하다 지금 사는 곳인 경기도로 와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살았다.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후 3년 후 정신지체 장애 판정을 받는다. 아내와 함께 아들을 돌봤지만 7년전 아내 사망 이후, 혼자 아들을 돌보고 있다. 아들 때문에 가까운 곳도 혼자 나가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희망이 없다. 아들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과 노령연금을 다 합치면 150만원 정도 되는데, 형편에 맞게 살고 있다.

- 1952년 충남 예산 출생
- 1968년 서울 상경
- 1971년 경기도 이사, 결혼
- 1987년 아들 장애 판정
- 2014년 아내 사망

□ 주요 생애사 분석

(1) 유소년기

① 그래도 난 아버지가 중학교 보내줬어

구술자D는 충남 예산 출신이다. 당시는 다 가난해서 동네 친구들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 구술자D는 아버지가 중학교를 보내주어서 다행히도 중학교는 마쳤다. 당시의 친구들은 부러워했다.

Q.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A. 이사를 왔지 원래 충남 예산이 고향인데. 거기서 중학교 졸업했어요. 그때는 다 가난했잖아. 중학교 졸업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내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다들 초등학교 밖에 못 갔거든. 그래도 난 아버지가 중학교 보내줬어

(2) 청년기

① 직장을 잡으려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2, 3년 살았지

구술자D는 중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오게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였다. 서울에서 2,3년 살다가 경기도로 와서 이곳에서 꾸준히 직장생활을 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40년 이상 살다보니, 이곳이 고향 같기도 하다.

Q. 언제 올라오셨어요?

A. 직장을 잡으려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2, 3년 살다가 직장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에서 애들 낳고 그랬지. 그래서 40년 넘게 여기

서 살게 됐지. 그러다보니까 내 고향 본적은 여기가 되어버리더라고.

(3) 중년기

① 아들의 교통사고, 장애

구술자D는 아들의 초등학교 4학년때 교통사고를 당한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작은 병원에서 엑스레이만 찍었다. 이후 3년이 지나고 나니, 아들은 지체장애가 되었다. 그때는 그래도 아내가 있어서 아들을 함께 돌보았는데, 아내마저 세상을 뜨고 나서 매일매일 혼자 아들을 보려고 하니 괴롭다. 나아지지 않는 아들을 보니, 답답하다.

Q. 아드님은 어디가 안 좋으세요?

A. 초등학교 4학년때 교통사고 이후로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교통사고 이후로 많이 심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교통사고 났을 때 철과상만 나고 어디 깨지고 피나지를 앓았어요. 그래서 신갈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거기는 작아서 mri나 ct가 없어서 엑스레이만 찍었거든. 그리고 3년 지나니까 애가 저렇게 변해가지고 교통사고 후유증인가 싶지. 우리 집사람 살아있고 내가 젊으면 집에서 어떻게 잘 다독거리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했지. 집사람 없고 나 혼자 있으면서 애를 매일 보니까 이게 제 정신 돌아오기도 틀렸고 안되겠구나 싶더라고.

(4) 노년기

① 정인지체 장애아들과의 삶

정신지체 장애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구술자D는 아이 때문에 일하지 못하고, 기초생활 수급과 정신장애 연금으로 산다. 아이한테 들어오는 돈이랑 다 합치면 150만원정도 된다. 남들처럼 살기는 어렵지만 쪼개고 쪼개서 산다. 경제적인 것도 어렵지만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 물건을 부수거나 할 때 진정시키고, 어디 가까운 데도 잘 다니지 못한다. 일도 맘이 놓이지 않아서 일거리가 들어와도 잘할 수 없는 형편이다.

Q. 아드님은 어디가 안 좋으세요?

A. 정신지체 장애 가진 아들과 둘이 살고 집 사람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애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애 정신장애 연금이랑 기초생활 수급자로 애한테 나오는 걸로 먹고 살죠. 애한테 들어오는거랑 다 하면 100만원에서 10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내 노령연금 30만원 나오는거랑 난 국민연금 20만원 나오는 거로 먹고 살죠.

Q. 식사량은 잘 하고 계세요?

A. 남들 먹는 것 처럼은 어렵고 내 현실에 맞게 해서 먹고 사는거지.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좀 잘 챙겨먹으려면 어렵지. 그렇게 살면 한 달을 어떻게 살아. 그냥 쪼개고 쪼개서 사는 거지

Q. 아드님 돌보는 것 중에서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A. 우리아들이 말썽 부리고 이러는게 어렵죠. 사는 거야 똑같지 큰 불편은 없는데 뭐 그런대로 사는데 우리아들이 정신장애를 가져서 텔레비전도 부시고 그래서 그런 것 진정시키는게 어렵죠. 지금도 아들 혼자 두고 나온게 편치 않죠. 작년에도 한 달에 평균 15일에서 20일 정도는 일을 했었어요. 올해는 그나마도 못해. 3월이랑 6월까지 좀했는데 애 때문에 마음이 안놓여서 못하겠더라고. 그

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요.

구술자D는 아이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은 후순위로 밀린다. 병원 치료는 아들 돌보느라 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3년 전 받은 허리 수술 이후 큰 병치레가 없어서 그나마 나은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혈압약만 정기적으로 먹고 검사를 받고 있을 뿐 아프거나 하는 큰 어려움은 없다.

Q. 아들 말고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A. 혈압약 먹는 것 외에는 없어요. 3년 전에 허리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 그 때에는 한 달에 15일 정도 노가다 일을 한다고 그랬더니 혹시나 해서 먹으라고 하면서 염증약 처방해주고, 그거 한 번 밖에 없어요. 요즘은 그 약 안먹고 혈압약만 먹지. 근데 빠근하다 싶으면 있는 약 한 봉씩 먹고. 병원은 1년에 한 세 번정도 가서 검사를 받아요.

제5장

정책제언

1. 연령인지 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2.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3. 노년층 건강 및 욕구를 고려한 고용노동 정책 수립 및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
4. 건강보장 및 돌봄
5. 주거보장 및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6. 노년층 심리적 지원과 여가, 교육, 문화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제5장 정책 제언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크게 노인 관련한 주요 현안과 이슈,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중앙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외국의 취약계층 노년 관련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적용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그리고 노인 대상 심층면접(총 55명)와 생애구술사(총 20명)를 통해 노인이 직면한 현안문제와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주요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책 제언은 지침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현이 가능한 사안은 단기 과제로, 그리고 국회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제언하였다.

생애구술사에 참여한 20명은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선행연구처럼 노인소득보장 취약, 일자리의 불안정성, 사회참여활동 제약, 의료정보 접근성 및 의료이용 제약, 돌봄이 부재, 질 낮은 주거 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짐에 따라 노년층 심리적 위축, 차별과 혐오에 따른 피해, 여가활동 제약, 사회적 관계망의 빈약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고독감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는 어린 시절 경험한 전쟁, 가난, 학대 등이 불리한 경험이 청년, 중년까지 전이되고 노인의 취약성으로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어린 시절 ‘여자’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 부부 관계에서 남편으로부터 당한 ‘폭력과 폭행’으로 이혼까지 이르기도 하고, 이혼 이후 경제적 자립에 따른 취약함으로 인해 기초수급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즉 여성 노인은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사건의 충격, 생애전환기에서 급작스러운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로 사회적 관계도 그만큼 고립되고 위축되게 된다.

□ 경제적/일자리 취약성

심층면접과 생애구술사 참여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음. 다수는 기초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일자리 지원 사업 등과 같이 비정기적이고 허드렛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대부분이다. 특히 경제적 취약성이 생애 전반에서 이어지고 개선보다는 악화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유년기 시절부터 노동에 시달린다. 또한 IMF 이후, 경력 단절, 자영업 실패와 구조조정 등으로 중장년기의 경제적 어려움이 현재 노인의 생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과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자신들이 자녀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야 하는 처지로 노쇠한 육체를 씬 없이 계속 일하면서 사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 건강의 취약성

노인들의 경제적 취약성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손자녀 돌봄 등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의 경우 ‘아플 권리’마저 빼앗겨 본인들의 건강관리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한국전쟁을 겪은 노인들의 경우 전쟁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정서적 불안이 몸의 곳곳에 남아있지만 제대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형편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러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와 폭력, 배우자 폭력의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예도 있다. 노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의료서비스는 치과 치료이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치과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치아건강은 노년의 삶을 향유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고, 아직까지 한국에서 노인들의 치과진료는 ‘12개월 카드 할부’로 진행되어야만 가능한 이례적인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화나 퇴화로 인해 생활하는 데 불편을 느낄 정도의 건강이 취약해졌지만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크지 않다.

□ 사회적 관계 취약성

생애구술사에 참여한 노인들 다수는 혼자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자녀들과도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경제적 취약성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스스로 고립상태를 유지하거나 합리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질병과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그만큼 사회적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일도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립은 악화하기도 한다. 경로당, 노인정, 노인회관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회적 관계망이 해체되어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찾아갈 곳도 마땅치 않아서 혼자 사는 삶의 외로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 혼자 사는 노인들의 ‘끼니’ 해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인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염려보다 끼니 걱정으로 더욱 빈곤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밥을 매개로 연결됐던 친밀성은 관계의 단절로 이어져 우울 증세까지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 노인혐오와 차별

한국전쟁 전후에 출생한 노인들의 경우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여, 현재 한국에 대해 강한 만족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무상교통 등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시혜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은 대중 공간에서 노인혐오와 차별이 발생할 때 제대로 대응하

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경제활동 인구인 노인에 대한 인식, 경제활동인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노인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스스로 '쓸모없음'에 대한 수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노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모멸감과 수치심을 스스로 감내하고 심지어 동조하기도 한다.

2. 정책 제언

이상의 연구 분석을 토대로 “경제적 불안정성”, “건강 관련 불안정성”, “주거의 불안정성”, “사회적 관계 불안정성”에 따른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크게 6가지의 정책 제언을 하였다. 1) 연령인지 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2)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3) 노년층 건강 및 욕구를 고려한 고용노동정책 수립 및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 4) 건강보장 및 돌봄, 5) 주거보장 및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6) 노년층 심리적 지원과 여가, 교육, 문화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그림 5-1〉 정책 제언 사항

분야		세부 정책 제언	
1	연령인지 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1-1	연령인지 감수성 제고 및 관련 교육 확대
		1-2	연령주의와 성차별적인 용어 사용 지양: '노년' 호명
		1-3	연령인지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의 결합
2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빈곤선 상향 조정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빈곤선 관련 기준 변경
		2-3	기초연금의 일부를 일종의 부가급여로 인정하는 방안: 쪼다 뺀 기초연금 문제의 해결
		2-4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자를 규정한 기초연금법 개정
		2-5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또는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 검토
		2-6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및 성인지적 관점 적용
3	노년층 건강 및 욕구를 고려한 고용노동정책 수립 및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	3-1	노년층 건강상태 및 욕구를 고려한 고용노동정책의 수립
		3-2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
4	건강보장 및 돌봄	4-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입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공공병원 역할 강화
		4-2	노인주치의 제도를 통한 일차의료체계 강화
		4-3	건강검진 항목의 추가: 정기적인 정신건강 스크리닝 등
		4-4	노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 건강보장 및 돌봄보장체계 구축
5	주거보장 및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5-1	주거빈곤에 기초한 급여 대상자 선정 및 주거급여액 상향 조정
		5-2	고령친화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다양한 주택 보급
6	노년층 심리적 지원과 여가, 교육, 문화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5-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
		5-2	노년기 여가, 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체계 구축

1) 반연령주의에 대한 제언: 연령인지 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 연령인지 감수성 제고 및 관련 교육 확대
- 연령주의와 성차별적인 용어 사용 지양: ‘노년’ 호명
- 연령인지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의 결합

(1) 연령인지 감수성 개념 도입 및 노인인권 관련 교육 확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정적 인식은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대중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고, 노인들은 점점 사회로 나오기가 꺼려진다. 대부분의 사회 서비스 시설은 일반 성인에게 맞추어져 있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성인 남녀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 시선의 차별을 겪게 된다. 구술자A의 경우 지하철에서 냄새난다고 무시하는 듯한 시선을 받기 싫어서 더운 여름에 옷을 더욱 자주 삶아서 빨거나, 주변 식당을 혼자 이용할 때 주인에게 괜한 눈치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 외에도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했던 노인들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지만, 이를 자신들의 인권과 연결하지는 못했다.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경험한 한국 노인들은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고, 본인들 스스로도 위축되어 있었다. 특히 연금생활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연금, 국가지원을 받으며 생활하는 데에 있어 사회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기도 했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 문헌연구와 유사하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과 편견, 차별이 만연하고, 인터뷰에 참여한 노년층 중 일부는 스스로 이러한 연령주의(ageism)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연령주의는 성차별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성평등과 달리 연령평등 개념이 없다는 점을 보면, 연령주의의 대안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반노화(anti-aging)이나 ageless는 얼핏 반연령주의처럼 보이지만, 중년의 연장으로 노년을 이해함으로써 노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¹¹⁾ 연령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연령통합 개념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역시 의문이다. 노년 집단만을 위한 고령친화형 주택 단지이나 노인복지관의 설치가 필요하기도 하고 노년 집단의 욕구를 반영하여 정책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연령집단의 분리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정책을 연령통합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연령 구분없이 통합해서 실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연령통합 역시 제한된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이슈를 포섭하고 분리와 통합을 뛰어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안적으로 한국 사회의 연령인지 감수성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연령인지 감수성은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연령 개념에 접목시킨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젠더 감수성으로 명명되기도 하는데, 젠더 감수성은 생물학적인 성 차이가 아닌 사회적 성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로 인한 성차별과 불평등까지 인지하는 능력(이진영, 2011)으로, 또는 젠더의 이분법으로 인한 차이점과 결핍을 이해하는 능력(김정은, 2019)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연령인지 감수성은 생물학적인 연령 차이가 아닌 사회적인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연령차별과 불평등을 인지하는 능력, 연령이라는 이분법으로 인한 차이점과 결핍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

11) 자신의 연령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인정하자는 agefulness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애플화이트, 2016; 지은정(2018)에서 재인용).

의할 수 있다. 연령인지 감수성은 성인지 감수성처럼 의료, 사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임혜숙, 2021). 또한 성인지 감수성, 인권 감수성 제고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같은 어법이라는 점에서 연령주의나 연령통합 개념보다 직관적인 이해가 쉬울 수 있다. 연령인지 감수성은 청년, 중장년, 노년의 차이점과 연령집단별 결핍, 그리고 연령을 초월하는 공통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세대간 이해와 세대간 연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령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노년 집단에게도 다른 연령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연령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 연령인지 감수성 교육에는 노인 스스로 노년기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기 위해서는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발달한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노인복지법 제 6조의 3) 정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에 발맞추어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포함한 전체 노인복지시설에서 연령인지 감수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중장년 세대가 노년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연령인지 감수성 교육 역시 필요하다. 노년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 차별, 혐오, 주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노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은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설치·운영자와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권교육이 있다(노인복지법 제 6조의 3). 법령 개정을 통해 노인교실 설치·운영자, 종

사자, 경로당 임원 등으로 인권교육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 사회복지관 등에서 청년,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령인지 감수성을 포함한 노년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과정에 연령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포함한 노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연령주의와 성차별적인 용어 사용 지양: ‘노년’ 호명

노인에게 덧씌워진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진웅(2011)은 노인 대신 노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확대하여 필자는 노인 대신 노년 개인, 노년 성인, 노년 집단, 노년층으로 지칭할 것을 제안한다. 노년 개인이나 성인은 개별성을 강조할 때, 노년 집단과 노년층은 전체 인구 집단의 특성을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다른 용어의 사용이 그 집단의 위상을 현실적으로 제고시키지 않지만(정진웅, 2011), 새로운 용어의 사용은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진웅의 제안처럼 노년은 노인과 달리, 긍정적인 이미지와 주로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예를 들면 행복한 노년) 새로운 호명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노년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년기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균형있게 부각됨으로써 노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보다 가능해진다. 따라서 노인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노년과 같은 보다 중립적인 용어의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새로운 호명은 기존의 고정관념과 차별이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성 노인, 남성 노인의 용어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용어는 노년기에만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이다. 왜냐하면 정진웅(2011)의 지적처럼 다른 연령집단을 지칭할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중년 여성을 ‘여성 중년’으로, 젊은 남성을 ‘남성 청년’으로 지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진웅의 지적처럼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보다는 늙음만을 강조하는 어법으로, 노인을 더 이상 성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 연령주의가 암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 노인, 남성 노인 대신 노년 여성, 노년 남성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독거노인이라는 표현 역시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된다는 점에서¹²⁾ 정진웅(2011)이 제안한 것처럼 노년 1인 가구 또는 노년 단독가구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생애주기 인구집단을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등 관련 학회와 대안적인 용어 사용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법령제정 이전이라도 정책적으로 우선 이 용어를 사용하고, 공익광고를 활용하여 노년에 대한 용어와 그에 따른 효과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3) 연령인지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의 결합

본 연구결과는 노년 집단을 위한 사회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하여 설계되지 못함으로써 다수의 빈곤한 노년 여성을 포섭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기존 사회정책은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가사 노동, 돌봄 노동을 가시화하여 노후에라도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생애기간 누적되었던 불리함이 많은 노년 여성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편 노년 여성은 젊은 시절 무급 가족 종사자의 지위를 가졌거나 이혼이나 사별 이전에는 가정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경

12) 정진웅(2011: 756)은 20대 젊은이가 혼자 살면 ‘자립’, ‘독립’ 혹은 ‘원룸 거주’가 되고, ‘노인’의 경우에는 외롭고 소외된 ‘독거’가 된다고 지적하였음.

우가 상당히 많았다. 본 구술사에 참여했던 여성 노인은 대체로 생애과정에서 이혼은 중요한 사건으로 작용한다. 남편과의 이혼 전과 후로 더욱 여성과 이혼이라는 부정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구술자F, 구술자H, 구술자Q, 구술자T). 즉 가사와 육아/양육 중심의 노동에서 이혼 후 자발적인 의지보다 생존 때문에 경제적 자립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짧은 경제활동 경력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수급해도 수급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수행했던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보상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성인지적 관점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노년 남성이 경험하는 문제는 노년 여성과는 차이가 있다. 노년 남성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와 성별 분업체계의 희생자로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난관에 처하게 된다. 먼저 식사, 청소, 세탁 등을 혼자서 하는 법을 알지 못해 영양상태가 결핍되거나 불결한 환경에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녀와의 교류 역시 여성 배우자에 의존해 왔고, 사회관계망 역시 직장생활 위주로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은퇴 이후 1인 가구로 살게 된 노년 남성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노년 남성에게는 가사노동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이, 그리고 지역사회내에서 친구 및 이웃을 만듦으로써 심리적 지지체계를 구축함이 필요하다. 2021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를 보면 노인복지관의 기본 운영방향에 고령사회, 황혼돌봄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성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발전시켜 성인지적 관점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기술하고 관련 프로그램들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예: 노년 남성을 위한 가사노동 교육 등)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¹³⁾

13) 현재는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

2)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빈곤선 상향 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빈곤선 관련 기준 변경
- 기초연금의 일부를 일종의 부가급여로 인정하는 방안: 줬다 뺀 기초연금 문제의 해결
-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자를 규정한 기초연금법 개정
-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또는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 검토
-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및 성인지적 관점 적용

노후 소득보장은 유급 노동의 중단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완하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최혜지 외, 2020).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노인빈곤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현 세대 노인빈곤의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현재 정책 빈곤선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석재은, 2021).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확대되고, 생계급여액이 인상됨으로써 빈곤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빈곤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소득인정액과 관련한 기준(1인 가구로 변경,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개선)을 변경하여 생계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다(김태완, 2021).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빈곤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제도를 개

회참여 및 권익증진, 돌봄으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성인지적 프로그램을 새로운 범주의 사업으로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편하여, 기초연금의 일부(예: 월 10만원)를 일종의 부가급여로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이다(남찬섭·허선, 2018). 넷째,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자에 대한 법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노인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의 수급액을 인상하거나 범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국민연금은 서로 연계된 제도이므로 제도의 재편에 따른 효과는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다음으로 미래세대 노인의 빈곤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은 현 세대 노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 세대 노인빈곤에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후술하고자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빈곤선 상향 조정

'0'층 노후 소득보장체계로 기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빈곤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설정하고 있는데, OECD 국가의 빈곤 수준을 비교할 때에는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를 빈곤선 기준으로 사용한다. 국내 빈곤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설정한 것은 전물량방식으로 측정하던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추어 2015년 상대적 빈곤선 수준을 정하였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국내 정책 빈곤선이 너무 낮으므로 기준 중위소득의 35~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 빈곤선이 상향 조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확대되고, 생계급여액이 인상됨으로써 빈곤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상향 조정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다.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향후 수행하여 정책 빈곤선의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빈곤선 관련 기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빈곤선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이외의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규모별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빈곤선을 설정한다. 그런데 빈곤가구, 노인가구는 1-2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며, 4인 가구 빈곤선에는 1-2인 가구의 실질적 필요소비지출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석재은, 2021). 따라서 정책 빈곤선을 설정할 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한 후 가구규모별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므로 단기과제로 설정하여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거주주택의 비현실적인 기초공제율, 자산에 대한 과도한 소득환산율, 자동차의 소득환산제도의 합리성 등을 열거할 수 있으며(석재은, 2021),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상당한 수의 노년빈곤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의 소득환산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외의 사안은 시행령 개정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다.

(3) 기초연금의 일부를 일종의 부가급여로 인정하는 방안: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의 해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빈곤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의 일부(예: 월 10만원)를 일종의 부가급여로 인정하게 되면 줬다 뺐는 기초연금의 문제가 일부 해소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연금을 전액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제도적 구조자체를 개편하여

제 1범주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최소연금(가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제 2범주는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 인정액 하위 1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는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남찬섭·허선, 2018). 이렇게 제도가 개편된다면, 제 1범주의 최소연금을 일종의 부가급여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과거 경로연금도 소득인정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선례가 있으며, 소득인정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자를 규정한 기초연금법 개정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한 것을 수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보듯이 공무원 퇴직자 중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근무기간이 짧거나 재직시 소득이 낮아 노년기에 빈곤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다. 최근 헌법재판소(헌재 2018. 8. 30 선고, 2017헌마906 등 결정 참조)는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것이 노인소득보장체계의 구상과 정합성이 없고, 노인빈곤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반하며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보았다(전광석, 2020). 이는 기초연금법 제 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5)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또는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 검토

기초연금은 현 세대 노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구술자P는 양화점 등 다양한 자영업의 실패경험이 있으며 2000년 이후, 도배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배 일을 한 달에 7번 정도 하

고, 기초연금과 합치면 그럭저럭 생활은 된다고 진술했다. 기초연금이 상대적 빈곤 해소에는 제한적이지만, 절대적 빈곤을 줄이는 효과는 있다(김연명·한신실, 2017). 미래 노년층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¹⁴⁾ 기초연금은 향후에도 노후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¹⁵⁾2021년 4월 기초연금 수급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향후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제적 기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노년층 상대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준을 소득수준별로 조정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 즉 소득이 낮은 노년층에게 하후상박 개념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고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김태완, 2021)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기여에 의해 수급권이 확보되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수급권이 부여되는 기초연금 급여액 사이의 합리적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기초연금을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고, 범주형 기본소득을 65세 이상이 아니라 50세 이상 중고령자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김태완, 2021). 범주형 기본소득이란 특정 범주(인구집단)에 있는 개인에게 무조건적,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지은, 2020). 이는 권리의 보편성 제고에 기여하지만, 동일 급여액이 지급된다는 면에서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 역시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60대 초반부터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빈곤율이 악화되고,

14) 2020년 5월 기준으로 총 가입자 22,145천명 중 3,445천명(15.6%)가 납부예외자이고, 1,072천명(4.8%)가 장기체납자로, 총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비율은 20.4%에 달함(주은선, 2020). 이들은 향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큼.

15)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캐나다와 같은 최저보장연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60대 이상은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근로/사업소득의 수준 역시 낮은 편이다(이승호, 2021; 이원진, 2021). 또한 노동할 만큼 건강하지 못함에도, 생존을 위해 노동을 지속하기도 한다. 이러한 빈곤 문제의 해소,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해서는 범주형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제도가 도입된다면 범주형 기본소득은 빈곤해소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기본소득은 노년 빈곤의 젠더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제도 개편을 통해 수급액 인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철학적 가치의 판단을 요한다. 또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다. 향후 이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및 성인지적 관점 적용

국민연금제도는 유급 노동의 중단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완해 준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현 세대 노년층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미래 세대 노년층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현 세대 노년 빈곤 문제의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출산, 양육, 돌봄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불리한 생애 이력을 갖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군복무자에게 적용하는 군복무 크레딧 역시 실질적인 군복무기간으로 연장) 양육이나 돌봄 등에 대해 연금크레딧을 제공하는 제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석재은, 2021). 이런 성인지적 관점 적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확대로 이어짐으로써 향후 국민연금소득액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3) 노년층 건강 및 욕구를 고려한 고용노동정책 수립 및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

- 노년층 건강상태 및 욕구를 고려한 고용노동정책의 수립
-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

노년기 노동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닌, 사회에 참여하는 권리와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건강이 좋지 못함에도 빈곤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노인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또한 노년기 노동자 역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활동지원이라는 목적상 사업참여에 대한 보상이 활동수당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노인의 소득을 의미 있게 개선하는데 한계가 크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빈곤해소나 노동권 보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참여의 성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노년층 건강상태 및 욕구를 고려한 고용노동정책의 수립

노년층의 건강상태 및 욕구를 고려한 고용노동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년층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별로 노사관계, 고령자 고용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사례처럼 산업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박명준 외, 2015).

다음으로 노년층 다수는 청장년층과 동일한 시간의 일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을 포함한 근무환경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장시간 근무가 어렵지만 단시간 근무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구술자 I 사례).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단시간 일자리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단시간 일자리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 역시 같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2)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

한국은 은퇴연령 자체는 높지만 원래 일자리(primary job)에서는 이르게 은퇴하는 편이다. 따라서 원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점진적 퇴직제도(고령자파트타임법) 등을 검토하여 중고령자 계속 고용을 지원하고 감소된 임금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칭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병희, 2021). 이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달리 정년제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피보험기간을 충족한 장기 근속 중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병희, 2021). 점진적 퇴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4) 건강보장 및 돌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입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공공병원 역할 강화
- 노인주치의 제도를 통한 일차의료체계 강화
- 건강검진 항목의 추가: 정기적인 정신건강 스크리닝 등
- 노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 건강보장 및 돌봄보장체계 구축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입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공공병원 역할 강화

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구술자 H, R 사례)가 있다. 구술자N의 경우 기초수급자이면서 복지관에서 청소 일을 하며 27만원의 돈을 벌지만 초과치료를 받는 일은 부담스럽다. 치료비가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해서 미루다 치료받아야 하는 시기를 놓쳐버렸다. 치료 후, 얼굴이 변형되었고, 기초연금과 복지관 월급을 꼬박 모아 임플란트 한 개를 겨우 했다. 현재도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틀니로 버티고 있다.

비급여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급여화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면,¹⁶⁾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 부담 문제 역시 이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16)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외에도 비급여와 급여항목의 혼합진료를 막는 방법(일본),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별도의 보험을 만드는 방법(칠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중장기적인 과제이므로, 단기적으로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필수의료부분에서 필요한 비급여에 한해서 공공병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입원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노인주치의 제도를 통한 일차의료체계 강화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은 보건의료서비스 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년기 심리적 지원에서 후술하겠지만, 보건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건강검진보다는 노인주치의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관련된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건강검진 항목의 추가: 정기적인 정신건강 스크리닝 등

노년기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는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노년기에 진입한 66세에 단 1회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울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 우울증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격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건강검진에 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최혜지 외, 2020). 다만 불필요한 의료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 등을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

(4) 노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 건강보장 및 돌봄보장체계 구축

우리나라 건강보장 및 돌봄보장정책은 급성기 질환 위주로 되어 있어, 노년기 질환 예방과 아급성기(sub-acute) 치료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양질의 아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아급성기 치료와 장기요양치료간의 연계 역시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입원과 퇴원 이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크고, 간병의 질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간병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분담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의 간병에 대한 사적 부담을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시키는 방안,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간호간병 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퇴원 후 간병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노인을 위해 서울시 돌봄SOS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제정, 노인복지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재가센터에서 간병서비스를 지역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돌봄보장정책은 장기요양 대상자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건강이 극도로 쇠퇴한 이후에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요양 대상자 이외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독거노인 위주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한 구술자 J와 같은 노인부부 가구의 노인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노인복지법의 개정 등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를 최소한 노인부부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제정 등을 통해 전체 노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듯이 코로나 방역,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하며, 혼자 사는 노인은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영양결핍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구술자A와 구술자K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국 노인 실태조사 결과(이윤경 외, 2020)에서도 영양관리의 주의가 필요한 노인은 19.8%,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노인은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밀반찬배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3.8%에 달해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노인과의 격차가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는 다른 노인가구에 비해 밀반찬배달서비스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지만(6.2%), 영양관리의 주의가 필요한 비율은 28.1%,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비율은 17.2%에 달해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 비율이 총 45%에 달하였다.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 1인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밀반찬배달서비스를 포함한 영양서비스의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에서 밀반찬배달서비스 등을 포함한 영양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우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5) 주거보장 및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 주거빈곤에 기초한 급여 대상자 선정 및 주거급여액 상향 조정
- 고령친화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다양한 주택 보급

(1) 주거빈곤에 기초한 급여 대상자 선정 및 주거급여액 상향 조정

현재 주거급여는 주거빈곤에 기초하여 수급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인 정소득액(기준 중위소득의 45%)을 기준으로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주거빈곤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 하며 주거급여액을 실질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주거비용이 경감되고, 특히 노년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¹⁷⁾ 주거빈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기초한 급여 대 상자 선정 및 주거급여액 상향 조정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2) 고령친화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다양한 주택 보급

주거, 의료, 돌봄 등의 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을 개발 및 보급하여 기능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나이들 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노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저 렵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고령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을 뿐만 아

17) 주거급여 대상자의 확대는 맞춤형 급여의 성격(주거비용 지출)으로 인해 소득수준 자체가 향상되 는 것은 아니므로 빈곤을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라, 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한도 10년으로 매우 짧은 편이다. 따라서 공공 실버주택과 같은 고령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2021년 주거복지로드맵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확대로 인해 장기공공임대재고율이 8%에 이르러 OECD 평균에 달함.),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노인가구의 16.3%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은 더 많이 보급될 필요가 있다. 노인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여 이를 토대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연령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는 세대간 거주가 가능한 코하우징(co-housing)과 같은 다양한 주택의 확대가 필요하다.

6) 노년층 심리적 지원과 여가, 교육, 문화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
- 노년기 여가, 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체계 구축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

노년층의 심리적 문제(생애 트라우마 치료, 우울증 치료, 배우자 폭력피해,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단절)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몸이 불편하여 이동이 어려운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 단절, 고립, 우울의 문제가 심각하다. 구술자 E는 젊어서 가지게 된 장애로부터 적응하고 나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지만, 노년기에 경험한 또 다른 질병(고관절 골절)은 그의 삶을 완벽하게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다. 이동성의 극심한 제한으로 인해 구술자 E는 “개코나 아무도 안와”라는 스스로의 표현처럼 공적 도움의 부재와 함께 매우 제한적인 사람들만 경험해야 하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구술자N도 어릴 때 부모의 반복적인 폭력으로 30대 이후 강박증이라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다. 계속해서 정신과 상담을 통해 약 처방을 받고, 일년 정도 복용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약중독이 생기게 되었다. 심리치료를 받은적도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자주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강박증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관련 서비스로는 2020년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

봄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에는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로 구분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기본돌봄서비스 외에 5개 관련 돌봄서비스를 통합하였으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혜지(2021)는 노인빈곤율 58.5%, 독거노인 비율 19.6%을 기준으로 하면 빈곤한 노인 1인 가구의 51.1%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인빈곤율을 높게 추정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전문가들도 서비스 대상자가 협소함을 지적하고 있다(전용호, 2020). 특화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의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며, 이에 맞게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 우울 문제의 심각성과 보편성을 고려할 때 특화서비스를 독거노인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복지법의 개정 또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제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사업의 집행을 강구해야 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현행 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고 있어, 서비스 대상자를 독거노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해야만 한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생활지원사인데, 생활지원사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도 필요하지 않다.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화서비스의 제공은 생활지원사가 아닌 다른 직종(예: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서비스 관리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사회복지사의 대폭적인 확충을 제안한다. 생애구술사의 분석 결과(구술자 I)에서 보듯이 노년기 심리 문제는 유소년기 부모로부터 받은 폭언과 폭행, 아동학대에 기인하는, 오래된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예를 들면 신체적 건강의 악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사례관리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년 심리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사회복지사 1인이 노인 256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최혜지, 2020)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2) 노년기 여가, 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체계 구축

노년은 역할없는 역할(roleless role)의 시기로 역할 상실에 따른 심리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노년기 여가, 교육, 체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실은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¹⁸⁾ 따라서 노년층이 이와 관련한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창구(예: 노인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적인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8) 노년층으로 대상으로 여가,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시설인 노인복지관은 전국에 391개소(2019년 기준)가 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성인을 포함한 노년층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전국적으로 472개소(2021년 기준)가 있다. 또한 보건소 등 관련시설이 3,564개소가 있는데(2019년 기준, 보건지소 1,340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64개소, 보건소/보건의료원 256개소, 보건진료소 1,904개소 포함), 보건소 등에서도 다양한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2019년 3,491개소)에서도 노년층을 포함한 성인 대상 여가,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인교실 1,332개소(대한노인회 운영 251개소 포함), 평생교육기관 4,541개소(2020년 기준, 평생학습관 475개소 포함), 공공체육시설 30,185개소(2019년 기준), 마을체육시설 22,866개소(2019년 기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지방문화원 230개소(2021년 기준)은 전국적을 고루 분포되어 있어, 지방문화원과 노인복지관 등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노년층이 보다 쉽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가이스탠딩(2014). **프레카리아트**. 서울: 박종철출판사.
- 강성호·김혜란(201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 강은나·김영선(2018).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행정학**, 20(4). pp. 1-25.
- 권중돈. (2016).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권혁·김진영·박수경·최흥기·김수민(2020). **초고령화시대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방안**. 고용노동부 연구보고서.
- 권현정·이미진·고지영·오혜은(2020).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유형별 인건비 체계 조사 연구**. 서울시복지재단·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귀환(2017).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정민사.
- 김기흥·장창원·심인선(2010).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세진·남석인(2020).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연구: 코호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3), pp. 114-151.
- 김연명·한신실(2017). 빈곤완화 효과를 통해서 본 기초연금의 정책목표 설정. **한국사회정책**, 24(4), pp. 89-112.
- 김정은(2019). 설화창작을 통한 젠더 감수서의 이해와 확장. **한국구비문학회**, 53(1). pp. 165-201.
- 김주현·오혜인·주경희(2020), 노인차별경험과 자기연령주의. **한국노년학**, 40(4). pp. 659~689.

- 김태완(2021). **노인빈곤 실태와 소득지원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 나영선·임언·모선희·임새나·김효진(2010). **고령자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실태조사 및 향후개편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남찬섭·허선(2018).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등 각종 현금급여 간의 관계설정의 원칙. **비판사회정책**, 59(1), pp. 193-230.
- 민상기·이명훈·문세연·길대환·노경희(2015). **중장년 대상 적합 훈련직종 발굴 및 취업연계를 위한 해외 운영사례 조사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구보고서.
- 박명준·김주현·노광표·이호창·임상훈·Schröder, Heike. (2015).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 - 양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박은주·권혁수(2020).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7(1), pp. 117-143.
- 배성우·손지아·박순미(2008). 빈곤노인가구의 특성과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2(1), pp. 291-318.
- 백미연(2019). 초국적 정의-빈곤 패러다임 연구: 한국여성노인빈곤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5), pp. 477-492.
- 백학영(2006).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31(1), pp. 5-39.
- 서병숙·김수현(2000).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0(1), pp. 55-67.
- 서부덕·권경희(202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지역사회 노인들의 우울감 영향 요인.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6(1), pp. 54-63.
- 석재은(2021). 노인 빈곤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해법의 모색. 제4차 노인인권포럼(2021. 11. 26) 발표 자료.

- 선우덕·오영희·이수형·오지선·이석구(2016).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 과제 - 일상생활기능의 자립향상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선우덕(2016). 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9)**. pp.34-48.
- 선한이·조운오(2020). 노인 1인 가구의 취약성과 범죄·차별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14(3), 315-339.
- 성영태·최인규(2020). 한국 노인빈곤의 원인과 과제. **사회융합연구**, 4(2), pp. 169-179.
- 안기덕(2012).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생애사 연구. **한국노년학**, 32(2), pp. 447-465.
- 애슈턴 애플화이트(2019).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이은진 역. 서울 : 시공사.
- 여유진·김미곤·권문일·최옥금·최준영(2012).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 보장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오혜인(2020). 코로나(COVID-19)는 초고령 노인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 윤진호(2004). 선진국의 빈부격차와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사례연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 이미진(2012).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패널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4(1), pp. 101-124.
- 이병희(2021). 중고령자 계속고용 촉진의 필요성과 지원방안. **노동리뷰**, 8, pp. 40-53.
- 이승호(2021).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유형과 특성. **노동리뷰**, 10, pp. 7-20.

- 이윤경·김세진·황남희·임정미·주보혜·남궁은하·이건희·정경희·강은나·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주미·김태완(2020) 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pp. 193-221.
- 이지연(2015). 미국의 고령자 복지 법제 및 프로그램. **글로벌 현안분석**, 2015(3). pp. 68-83.
- 이지은(2020).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 **복지이슈 FOCUS**, 2020(7). 경기복지재단.
- 이진영(2011). 젠더감수성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숙(2021). 젠더 감수성에 대한 개념 분석. **인문사회**21, 12(5), pp. 505-518.
- 전광석(2020). 기초연금법의 헌법적 쟁점 - 현재 2016. 2. 25., 2015헌바191, 2018. 8. 30., 2017헌바197 등 결정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49(1), pp. 37-61.
- 전용호(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 **한국노년학**, 40(4), pp. 599-616.
- 정경희·강은나·이윤경·황남희·양찬미(2016).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윤희(2021). '불안정'은 영혼을 잠식한다- 노동의 불안정성과 프리캐리야트의 존재론. **독일언어문학**, 91(1), pp. 283-299.
- 정진웅(2011). 노년 호명의 정치학. **한국노년학**, 31(3), pp. 751-765.
- 정형준(2021). 전환적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구체적 정책제안. **복지동향**, 10, pp. 27-34.
- 조선주·정가원·김난주·손정민(2013). OECD 국가의 장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

- 책 사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주은선(2020). 팬데믹 시대와 이후, 국민연금개혁의 주요 쟁점과 21대 국회의 입법과제. 21대 국회 공적 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 지그문트 바우만(2005). 액체 근대. 이일수 역. 서울: 강.
- 지은정(2013).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사회복지연구**, 44(3), pp. 177-206.
- 지은정(2016). 60+에 적합한 직종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앙코르시니어**,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보고서.
- 지은정(2018).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최성재·장인협(2010). **고령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재성·강영숙·김진욱(2009).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인지된 사회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1), pp. 309-341.
- 최해경(2017).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최혜지(2020). 2021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노인복지 분야. **복지동향**, 11.
- 최혜지(2019).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 - 세대 간 전이와 민족 계급화를 중심으로**. 서울: 아산재단연구총서.
- 최혜지(2018). 중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 세대 비교적 관점으로. **노인복지연구**, 73(2), pp. 249-272.
- 최혜지·이미진·전용호·이민홍·이은주(2020). **노인복지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최혜지·정은수(2017). 중고령 프레카리아트의 이해.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7(1), pp. 439-439.

- 최흥기(2011).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고용정책: 최근 독일의 고령자 고용정책(Initiative 50 plus)을 중심으로. **노동연구**, 21(1), pp. 151-188.
- 최희경(2005). 빈곤 여성 노인의 생애와 빈곤 형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27(1), pp. 147-17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건강보험통계연보」(2021. 9. 23. 기준)
- 공무원연금공단, 「2020 공무원연금통계집」(2021. 9. 23.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2021. 9. 23. 기준)
- 국민연금공단. 「2020 국민연금통계연보」(2021. 9. 23. 기준)
- 국민연금연구원(2012), 「해외 공·사연금제도 I: 유럽편」, 국민연금연구원. (2021. 9. 23. 기준)
-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2021. 9. 23. 기준)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21. 9. 23. 기준)
- 국토교통부. 제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 (2017∞2021). (2021. 9. 23. 기준)
- 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2021. 9. 13. 기준)
- 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2021. 9. 13. 기준)
- 법령정보센터. 「고령자고용촉진법」(2021. 9. 13. 기준)
-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2021. 9. 30. 기준)
-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안내」(2021. 10. 15. 기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20), 「사학연금통계연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kdca.go.kr/index.es?sid=a2> (2021. 9. 13. 기준)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2021. 9. 13. 기준)
- 통계청「사망원인통계」(2021. 9. 13. 기준)
- 통계청「사회조사」(2021. 9. 13. 기준)

- Berghman, J. (1995). "Social Exclusion in Europe :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pp.10-28). In *Beyond the Threshold :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 Room. Bristol: Policy Press.
- Bosch, G. (2019). "Reducing Annual Working Time and Improving Schedule Flexibility—Causes, Effects, Controversies". (pp. 193-218). In *Current Issues in Labour Relations*. edited by De Gruyter.
- Breman, J. (1976). A dualistic labour system? A critique of the 'informal sector' concept: I: the informal sector.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1*, pp. 1870-1876.
- Brooke, J. & Jackson, D. (2020). Older people and COVID-19: Isolation, risk and ageism.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20(29)*. pp. 2044-2046. DOI: 10.1111/jocn.15274
- Leisering, Lutz and Stephan Leibfried (1999), *Time and poverty in western welfare states: United Germany in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 O'Rand, A. M. (1995), "The cumulative stratification of the life course," (pp. 188-207.)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4th Edition*, edited by R.H. Binstock, L.K. George, and Associates, San Diego:Academic Press,
- O'Rand, A. M. (2002), Cumulative Advantage Theory in Life Course Research,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22*, pp. 14-30.
- Palmer, B. D. (2014). Reconsiderations of class: precariousness as

- proletarianization. *Socialist Register 50*, pp. 40-62.
- Pierson, J. (2001). *Tackling Social Exclusion*, Routledge.
- Room, G. (1995).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he New European Agenda for Policy and Research." (pp.10-28). In *Beyond the Threshold :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 Room. Bristol: Policy Press.
- Rowntree, B. (1901),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London:Thomas Nelson & Sons.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pp. 531 ~ 578.
- OECD, 「Health Status」
<https://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https://doi.org/10.1787/socwel-data-en>

노인의 생애사를 통해서 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인쇄일 | 2021년 12월

| 발행일 | 2021년 12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사회인권과 02)2125-9845

| F A X | 02)2125-0933

|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

| 제 작 | 네오블루 02)2274-1937

ISBN : 978-89-6114-877-1 93330 비매품